

태권도를 애국 스포츠로 !

고도로 발전한 산업사회는 세계를 일일생활권으로 바꾸어 놓았고, 모든 문화권까지 세계 평준화를 향해 치닫고 있는 요즈음, 뜻있는 일각에서는 국적있는 제반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칫 국수주의적 성향에 치우칠 얘기로 생각될지 모르나, 한국사람은 세계 어느곳에 가서 어떤 자격으로 어떤 생활을 하든 한국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 사랑은 물론 한국인을 사랑하여야 하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의 문화를 아끼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인은 우리 태권도가 애국적 스포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해외파견 스포츠 코치 5,000여명 중 4,000여명이 태권도 사범이며, 우리나라에서 즐겨하는 거개의 스포츠가 외국에서 도입된 것임에 반해, 태권도는 우리의 것을 외국으로 수출한 유일한 스포츠로서 '86 아시아 경기대회 정식종목으로 참가하여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88 서울올림픽 대회에는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인의 가슴 속에 우리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의 이미지를 감명깊게 심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도의 경제발전으로 세계의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출을 증대시키고 수입자유화를 통해 선진국들과 선



김 운 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태권도인은 태권도라는 정신적 문화와 기술을 수출하는 애국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일상 생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태권도인들은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와 분수에 맞는 생활로 내일의 자기발전을 도모하며, 공중도덕심을 배양하여 공공 질서를 지키는 모범 국민과 지역사회의 일꾼으로서 솔선 봉사하는 태권도인이 되도록 정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태권도인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국기 태권도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태권도인들의 자세가 사회속에 널리 확산되고 더욱 깊게 뿌리 내려질 때 태권도는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 체육으로서 발전되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여러분들이 투철한 애국심과 사회봉사 정신으로 생활할 때 태권도 발전의 내일은 기약되리라 확신합니다. 정신 운동, 생활운동으로서의 태권도를 승화시키는데 전 태권도인이 동참하여 애국 스포츠로서 태권도의 면모를 보여주는 생활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체급 우승자 — 오는 10월 제 8회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

1987년도 국가대표선수 최종선발대회

4. 9~10, 국기원



김영삼 /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분과 위원장

경량급에 신인 유망주들이
1진과 2,3진에 등장함으로써
국가대표의 세대교체를
원활히 해주고 있음은 물론
경기의 리듬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 주었다.

1. 대회개요

1987년도 국가대표선수 최종 선발대회가 4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최종선발전에 출전한 선수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3일 까지 3일간 거행된 1987년도 국가대표선수 1차 선발대회의 각체급 1위자 및 1986년도 국가대표선수 체급별 1, 2, 3위, 1986년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각체급 우승자 등 체급별로 5명이 출전, 리그전을 통해 국가대표 체급별 1, 2, 3위 3명씩을 선발하였다.

경기는 3분 3회전 중간휴식 1분으로 진행되었으며 동률인 경우 「승자승」으로 순위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승자승 원칙에서도 동률인 경우 재경기를 치루었다.

국가대표선수 선발자 중 각체급 1위자는 오는 10월 7일에서 10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8회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파견되며, 2위자는 5월 15일에서 17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거행하는 1987년도 월드컵 태권도 대회에 파견된다. 또한 각체급 3위자는 상비군으로 국가대표 1, 2위자의 유고시에 대치되어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한편 국가대표로 선발된 1, 2, 3위자는 '88서울올림픽 대회 출전선수를 선발하는 '88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출전한 자격이 부여된다.

2. 고교선수들 돌풍일킨 1차선발대회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앞서 4월 1일부터 3일까지

국기원에서 거행된 1차 선발대회에는 총 371명이 출전하여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출전할 티켓을 놓고 열전을 벌였다.

이번 1차전 경기에서는 고교 선수들이 패기와 다양한 기술에 의한 공격력을 발휘해 노련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위협한 점이 특기할 사항이었다.

특히 핀급의 윤희준(신탄진고) 선수와 플라이급의 강창모(동성고), 페더급의 윤정욱(동성고) 선수는 고교 선수로 경기에 있어 연결동작이 유연하고 다양한 기술과 과감한 공격으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 함으로써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출전할 자격을 얻어냈다.

한편 밴텀급에서 전 국가대표선수인 함 준(한국체대) 선수와 웰터급의 정국현(지하철공사)등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국가대표 복귀전의 서전을 장식하기도 했다.



1차전에서 핀급 1위를 차지하며 유망주로 기대를 모은 윤희준 선수가 최종전에 올라 국가대표 이종선 선수와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다.

■ 입상자명단

- ▲ 핀 급 : 1위-윤희준(신탄진고)
2위-김철호(한국체대)
3위-오대환(계명대)
3위-최 천(경희대)

- ▲ 플라이급 : 1위-강창모(동성고)
2위-전용환(지하철공사)
3위-김훈섭(동성고)
3위-조기현(성동고)

- ▲ 밴 텀 급 : 1위-함 준(한국체대)
2위-심무진(한국체대)
3위-조영남(동성고)
3위-박정욱(유도대)

- ▲ 페 더 급 : 1위-윤정욱(동성고)

- 2위-이희우(경희대)
3위-조준걸(동성고)
3위-이광로(한국체대)

▲ 라이트급 : 1위-박해영(한국체대)

- 2위-박호상(상 무)
3위-김태균(유도대)
3위-허 런(경희대)

▲ 웰 터 급 : 1위-정국현(지하철공사)

- 2위-최상진(상 무)
3위-김태영(오현고)
3위-공두환(성동고)

▲ 미 들 급 : 1위-이화상(동아대)

- 2위-김현곤(상 무)
3위-황진철(청주대)
3위-이강식(상 무)

▲ 헤 비 급 : 1위-고영철(유도대)

- 2위-김현일(유도대)
3위-여준기(명지대)
3위-김병수(상 무)

3. 선수층분석

이번 '87년도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출전한 선수층을 분석해 보면 '86년도에 비해 대학부 선수가 23%(9명)가 감소한 반면, 일반부 선수는 2배로 증가되어 선수들의 조기 은퇴 경향이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 별	'86		'87		증 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고등부	5명	12%	5명	12%	-	
대학부	26명	65%	17명	42%	-9명	-23%
일반부	9명	22%	18명	45%	+9명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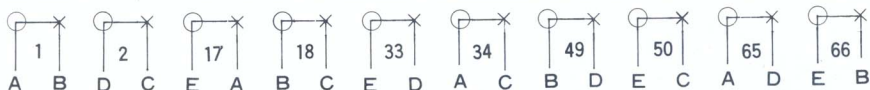
이는 태권도가 '86아시아게임, '88서울올림픽의 중목으로 태권도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지하철공사팀의 창단 등 군, 실업팀(6개)의 지원과 경기력향상 연금의 지급, 체력관리의 과학화로 선수수명의 장기화 경향이 주요인이라고 본다.

또한 고교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명, 12%) 국가대표선수의 세대교체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각체급별 경기

● 핀 금 경 기

기호		A	B	C	D	E	승	패	등위	소 속	주 요 경 력
기호	성명										
A	이 중 선		○	○	○	×	3	1	2	한국체대 2 학 년	'86국가대표선발전 1위 '86아시안게임 1위
B	권 태 호	×		○	○	×	2	2	3	동성고교 2 학 년	'86우수선수 선발전 1위
C	김 영 주	×	×		×	×	○	4	5	동아대학 2 학 년	'85제 2 회월드게임 1위 '86국가대표선발전 3위
D	윤 희 준	×	×	○		×	1	3	4	신탄진고 2 학 년	'87국가대표 1차선발전 1위
E	임 성 욱	○	○	○	○		4	○	1	계명대학 1 학 년	'83제 12 회소년체전 1위 '86국가대표선발전 2위



대회 첫날 첫 경기는 이중선 선수와 권태호 선수의 대결로 시작되어 계속 물아 붙이며 우세한 경기를 펼친 이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며 1승을 장식하였다. 그러나 임성욱 선수와의 대전에서는 1회전에 킷발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경고를 받는 가운데 판정패하였다.

권태호 선수와 김영주 선수와의 대전은 우세한 경기와 득점을 올린 권선수가 1승을 거두었고, 이어 벌어진 윤희준과 임성욱의 대전은 치열한 공방전 끝에 1회에는 임선수가 우세판정, 2회에는 윤선수가 득점, 3회에는 임선수가 득점을 얻음으로써 근소한 차이로 1회에 우세판정을 받은 임성욱 선수가 승리를 장식, 2승을 올렸다.

한편 1승1패의 전적을 갖고 있는 이중선 선수는 약세에 몰린 김영주 선수를 맞아 1,2회전을 우세하게 이끌다 3회전에 결정타를 때림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다.

고교선수로 '88대회의 유망주로 주위의 주목을 받으며 등장한 권태호와 윤희준의 대전에서는 권선수가 1회에 우세한 경기로 기선을 잡았으나 2회에 득점을 빼앗기는 역공세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3회전에 들어서 2득점을 올리는 분투로 역전승을 거두고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2승 1패의 전적을 보유, 국가대표로 길에 가깝게 접근해 갔다.



핀금경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권태호 선수와 임성욱 선수와의 대전에서는 권선수가 1,2회전을 우세하게 물고 갔으나 3회전에 접어들어 임선수가 맹공을 퍼부우며 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림으로써 4승을 올리며 핀금 국가대표선수 1위로 확정되었다.

● 플라이급경기

기호	기호	성명	A	B	C	D	E	승	패	등위	소 속	주 요 전 적
A	김 영 식			×	×	×	×	○	4	5	부산시태권도협회	'86 국가대표 선발전 1위 '86 아시안 게임 1위
B	전 웅 환	○			○	×	○	3	1	2	지 하 철 공 사	'82 제5회세계선수권대회 1위 '87 국가대표 1차선발전 2위
C	이 해 진	○	×			×	○	2	2	3	부산시태권도협회	'84 우수선수 선발전 3위 '86 국가대표 선발전 3위
D	강 창 모	○	○	○			○	4	1	1	동성고교 3 학 년	'87 국가대표 1차선발전 1위
E	인 해 진	○	×	×	×			1	3	4	한국체대 4 학 년	'85 제2회 월드게임 1위 '86 국가대표 선발전 2위

3	4	19	20	35	36	51	52	67	68
B A	D C	E A	B C	D E	C A	D B	C E	D A	B E

플라이급 경기에서는 동성고에 재학중인 고교생으로 기량과 패기, 다양한 공격력을 갖춘 강창모 선수가 국가대표 1위로 선발되어 가장 기대되는 유망주로 떠올랐다.

한편 전년도 국가대표선수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영식 선수가 4패를 기록, 최하위로 밀림으로써 대표선수에서 탈락했다.

김영식 선수는 전웅환 선수와의 첫 경기에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며 패했다.

1승을 올린 전웅환 선수는 여세를 몰아 이해진 선수

에게도 판정승을 거두었다.

강창모 선수는 이해진 선수, 전웅환 선수, 인해진 선수 등 화려한 경기 전적을 바탕으로 노련한 경기운영을 펼치는 선배들을 맞아 빠른 발을 이용해 다양한 공격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김영식 선수가 부상으로 기권하자 4승을 기록하며 국가대표선수가 되었다.

전웅환 선수는 인해진 선수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막상막하의 실력을 겨루는 가운데 득점면에서 앞서 승리를 거두며 국가대표 2위로 확정되었다.

● 밴텀 급 경기

기호	기호	성명	A	B	C	D	E	승	패	등위	소 속	주 요 전 적
A	홍 종 만			○	×	×	×	1	3	4	유도학교 (조 교)	'85 제 2 회 월드게임 1위 '86 국가대표 선발전 1위
B	심 우 현	×			×	×	×	○	4	5	동성고교 3 학 년	'86 우수선수 선발전 2위
C	지 용 석	○	○			○	×	3	1	2	청주대학 3 학 년	'83 국가대표 선발전 2위 '86 국가대표 선발전 3위
D	함 준	○	○	×			×	2	2	3	한국체대 2 학 년	'86 제67회 전국체전 1위 '87 국가대표 1차선발전 1위
E	유 명 식	○	○	○	○			4	0	1	한국체대 3 학 년	'85 제7회세계선수권대회 1위 '86 국가대표 선발전 2위



밴텀급 경기에서는 '85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밴텀급 챔피언 자리를 차지한 바 있으나 '86년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홍종만 선수에게 밀려 아시안게임의 티켓을 놓쳤던 유명식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복귀했다. 한편 플라이급에서 동성고의 강창모 선수가 뛰어난 기량으로 1위로 선발된데 비해 같은 동성고 출신으로 밴텀급에 출전한 심우현 선수는 다른 선수들의 노련한 경기운영에 밀려 최하위에 머물고 말았다.

홍종만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1승 3패로 대표선수에게서 탈락했다.

지용석 선수는 합준 선수를 맞아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는 등 공격의 주도권을 잡는 가운데 득점을 올리며 판정승을 거두었다.

이어 벌어진 홍종만 선수와 유명식 선수의 대전에서

는 유선수의 판정승, 심우현 선수와 지용석 선수의 대전에서는 심선수가 2회 초반에 방심하는 사이 얼굴공격을 당하며 판정패하였다.

합준 선수와 유명식 선수의 대전은 같은 한국체대 동료끼리의 경기로 유선수가 가볍게 판정승, 2승을 기록했다.

심우현 선수와 합준 선수의 경기는 1,2회전에 막상 막하의 경기를 펼치던 두 선수가 3회전을 맞아 합선수가 1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1승2패를 거두고 합준 선수와 맞선 홍종만 선수는 합선수에게도 판정패, 1승3패로 4위로 밀려났다.

또한 3패를 거둔 심우현 선수는 3승을 거둔 유명식 선수에게 자동 탈락되어 유명식 선수가 밴텀급 패권을 차지했다.

● 페더 급 경기

기호	기호	A	B	C	D	E	승	패	등위	소속	주요경력
A	한재구		×	×	×	×	0	4	5	제천시청	'86 국가대표 선발전 1위 '86 아시안 게임 1위
B	하계수	○		×	×	×	1	3	4	한국체대 3학년	'85 우수선수 선발대회 1위 '86 우수선수 선발대회 1위
C	정승환	○	○		○	○	4	0	1	지하철공사	'85 제2회 월드컵게임 1위 '86 국가대표 선발전 3위
D	윤정욱	○	○	×		×	2	2	3	동성고교 3학년	'85 우수선수 선발대회 1위 '87 국가대표 1차선발대회 1위
E	장명삼	○	○	×	○		3	1	2	설악케이블카	'82 제5회 세계선수권대회 1위 '86 국가대표 선발전 2위



페더급경기는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년도 국가대표인 한재구 선수가 첫 경기에서 하계수 선수에게 판정패한 후 2번째 경기를 치른 장명삼 선수와의 대전에서 3회전에 장선수의 주특기인 앞돌려차고

2단 옆차기 공격에 부상을 당한 후 그 다음 경기는 모두 기권함으로써 대표선수에서 자동탈락되었다.

한편 한재구 선수와의 경기에서 R.S.C승을 거둔 장명삼 선수는 윤정욱 선수와의 대전에서 판정승을 거두

며 2승을 기록했다.

정승환 선수는 신예 윤정욱을 맞아 1,2회전을 각각 우세 판정을 받은 비등한 경기를 펼치는 가운데 3회전에서 우세판정을 받은 정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하계수 선수를 맞은 정선수는 1회에 1득점을 올리는 등 판정승으로 2승을 기록했고 한재규와의 경기는 한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기권승으로 가뭇게 3승을 거두고 마

지막 장명삼과의 대전에서 판정승을 올리며 국가 대표 선수로 확정되었다. 한편 2승 1패를 기록한 장명삼 선수는 하계수 선수를 누르고 3승 1패로 국가대표 2위로 확정되었다.

또한 하계수 선수와 윤정욱 선수의 경기에서는 윤선수가 1회에서 2득점이나 올리는 선전으로 기선을 잡으며 판정승을 거두어 3위로 확정되었다.

라이트급경기

기호		A	B	C	D	E	승	패	등위	소 속	주 요 경 력
기호	성명										
A	박 봉 권		○	○	○	×	3	1	2	한국체대 2 학 년	'85제7회세계선수권대회 1위 '86아시안 게임 1위
B	김 찬 구	×		×	○	×	1	3	4	상 무	'84우수선수 선발전 3위 '86우수선수 선발전 1위
C	이 창 건	×	○		○	×	2	2	3	한국체대 4 학 년	'86 제7회아시안선수권대회 1회 '86 국가대표 선발전 3위
D	박 해 영	×	×	×		×	0	4	5	한국체대 3 학 년	'84 대통령기 쟁탈전 1위 '87국가대표 1차선발전 1위
E	양 대 승	○	○	○	○		4	0	1	한국체대 1 학 년	'85 우수선수 선발대회 1위 '86 국가대표 선발전 2위

 9	 10	 25	 26	 41	 42	 57	 58	 63	 64
A B	C D	E A	C B	E D	A C	B D	E C	A D	E B

라이트급 경기에서는 상무팀의 김찬구 선수를 제외한 4명의 출전 선수가 한국체대 선수들로 구성됨으로써 경기에 있어서는 순위가 자체적으로 내장된 듯 경기에 있어 공격다운 공격이나 수비가 펼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됨으로써 태권도 관계자의 지적 및 관중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에서는 리그전 경기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어 팀동료끼리의 기권을 인정하지 않아 경기가 시간만 채우는 부실한 경기가 속속되어 감점 및 경고가 가장 많이 속출하기도 했다.

첫 경기는 박봉권 선수와 김찬구 선수의 대결로 1회전에 김선수가 우세한 경기, 2회전에 박선수의 우세로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는데 3회전에 박선수가 얼굴 및 밑에치기를 성공시킴으로써 득점을 올리며 판정승을 거두었다.

이어 벌어진 이창건과 박해영의 경기는 이선수가 득

점과 우세로 판정승, 박봉권과 양대승의 경기는 어런시절부터 함께 태권도를 수련해 온 한체대 동료끼리의 경기로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공방전으로 경기가 계속되어 신장과 힘이 우세한 양대승에게 판정승이 돌아갔다.

김찬구 선수와 이창건 선수의 경기에서는 1회전에 이 선수가 1득점을 올린 가운데 2회전을 맞아 서로가 공격을 주고 받았는데 경기를 마치자 전광판에 이창건 선수의 1득점이 판정되자 상무팀에서는 이에 불만, 심한 어필이 나오는데 가운데 3회전 경기가 치루어져 그 결과는 이선수에게 판정승이 돌아갔다.

라이트급은 양대승 선수가 4승으로 1위, 박봉권 선수가 3승 1패로 2위, 이창건 선수가 2승 2패로 3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체대 선수들이 모두 국가대표선수가 되었다.

● 웰터급 경기

기호	성명	기호					승	패	등위	소	속	주요 경력
		A	B	C	D	E						
A	문종국		○	×	×	○	2	2	3	포항상공회 의소		'86 국가대표 선발전 1위 '86 아시안 게임 1위
B	최상진	×		○	×	○	2	2	4	상무		'85 우수선수 선발대회 1위 '87 국가대표 1차선발대회 2위
C	윤순철	○	×		×	○	2	2	2	경희대학 2학년		'85 전국 체육대회 1위 '86 국가대표 선발전 3위
D	정국현	○	○	○		×	3	1	1	지하철공사		5,6,7세계선수권대회 1위 '87 국가대표 1차선발전 1위
E	정용석	×	×	×	○		1	3	5	한국체대 3학년		'84 대통령기 태권전 2위 '86 국가대표 선발전 2위



정국현 선수를 응원하는 지하철공사 동료직원들.

웰터급 경기는 어느 체급보다도 치열한 접전을 벌인 체급이었다.

막강한 실력과 노련한 경기운영에 익숙한 출전선수들은 저마다의 주특기를 살려 경기를 진행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든 열전을 벌였다.

4,5,6회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를 자랑했던 웰터급의 정국현 선수가 86년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탈락, 재기를 노려오다가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국가대표선수 1차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이번 최종선발전에 출전, 3승 1패를 기록하며 국가대표 1진으로 선발됨으로써 국가대표팀에 복귀 하였다.

한편 문종국 선수는 최상진 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었고, 정국현 선수는 윤순철 선수를 맞아 1,2회전을 1:1 동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우세판정으로 승리했다.

1승을 거둔 후 정용석 선수를 맞은 문종국 선수는 판정승으로 2승을 올렸고 최상진 선수는 윤순철 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며 1승 1패를 기록했다.

한편 정국현 선수와 정용석 선수의 대전은 한국체대 5년 선배인 정국현 선수가 후반 정용석 선수를 맞아 1,2회전에 우세판정을 받았으나 3회 1분경에 정용석 선수 가 앞돌려차기와 뒤회기로 정국현 선수를 강타하는 등 득점을 올리며 판정승을 거두었다.

이어 최상진 선수와 정국현 선수의 대결에서는 정선수가 오른발 앞돌려차기와 얼굴을 강타하여 득점을 올리는 등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판정승을 올렸다.

윤순철 선수와 정용석 선수의 대전에서는 1,2회전에 승패를 가릴 수 없는 막상막하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3회전에 두 선수와 분전, 득점 1개씩을 뽑으며 동점을 이루었으나 우세판정을 받은 윤순철 선수가 승리를 거두어 2승 2패를 기록했다.

한편 문종국 선수와 정국현 선수의 대전에서는 정선수가 판정승을 거둠으로써 3승 1패로 1위가 확정되어 국가대표선수로 복귀하는 영광을 안았고 문종국 선수는 2승 2패를 기록 최상진, 윤순철 선수등과 동률을 기록함으로써 재경기를 펼쳐 윤순철 선수가 2위, 최상진 선수가 3위로 확정되었다.

● 미들급 경기

기호	기호	A	B	C	D	E	승	패	등위	소 속	주 요 경 력
기호	설명										
A	이 제 행		○	○	○	○	4	0	1	조선대학 대학원	'86 국가대표 선발전 1위 '86 아시안 게임 1위
B	연 기 호	×		○	○	○	3	1	2	유도학교 4 학 년	'86 대학개인 태권도대회 3위 '86 우수선수 선발대회 1위
C	장 질 환	×	×		×	×	0	4	5	상 무	'85 대통령기 쟁탈전 3위 '86 국가대표 선발전 3위
D	이 화 성	×	×	○		×	1	3	4	동아대학 3 학 년	'85 대통령기 쟁탈전 3위 '87 국가대표 1차선발전 1위
E	김 현 곤	×	×	○	○		2	2	3	상 무	'84 대통령기 쟁탈전 2위 '87 국가대표 1차선발전 2위



미들급 경기에서는 다른 체급에서 지난 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위권으로 밀려나거나 탈락한 사례에 비해 이계행 선수는 유일하게 4승을 거두며 1위로 선발되어 전년도 국가대표선수의 체면을 유지 했다. 또한 '86우수선수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태권도계에 부상했던 연기호(유도학교) 선수가 끈질긴 집념으로 국가대표의 자리를 노렸으나 3승 1패로 2위로 국가대표의 자리를 차지했다.

경기에 있어 미들급 첫 경기를 치른 이계행 선수와 연기호 선수의 대전에서는 대등한 기량을 펼쳐보인 가운데 연선수가 신장의 열세로 다소 밀리며 1패를 기록했다.

1승을 거둔 이계행 선수는 이어 계속된 김현곤 선수, 이화성 선수, 장질환 선수와의 대전을 가볍게 승리로 이끌어 국가대표선수다운 면모를 보이며 86년도에 이어 87년도 국가대표 1위로 확정되었다.

● 헤비급 경기

기호	기호	A	B	C	D	E	승	패	등위	소 속	주 요 경 력
기호	설명										
A	강 승 우		×	×	○	×	1	3	5	상 무	'86 국가대표 선발전 1위 '86 아시안 게임 1위
B	노 신	○		○	×	○	3	1	2	경 회 대 3 학 년	'84 우수선수 선발전 3위 '86 우수선수 선발전 3위
C	이 정 진	○	×		×	×	1	3	4	상 무	'85 전국 체육대회 3위 '86 국가대표 선발전 3위
D	고 영 철	×	○	○		○	3	1	1	유도학교 (조 교)	'84 제6회아시안대회 1위 '87 국가대표 1차선발전 3위
E	임 재 역	○	×	○	×		2	2	3	상 무	'85 국가대표 선발전 3위 '86 국가대표 선발전 2위



해비급 경기에서는 고영철 선수와 노신 선수가 3승1패로 동률을 이루었으나 승자승 원칙에 따라 고영철 선수가 1위로 확정되고 국가대표급으로는 신인이라 볼 수 있는 노신 선수가 2위로 선발되었다. 또한 전년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강승우 선수는 1승 3패로 이정진 선수와 동률이었으나 최하위권인 4, 5위로 두 선수다 대표선수에서 탈락했다.

한편 강승우 선수와 노신 선수의 대전으로 시작된 해비급 경기는 1, 2회전에서 각각 우세 판점을 주고 받는 가운데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고 3회전에서도 득점을 주고 받는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으나 노신 선수에게 판정승이 돌아갔다.

고영철 선수는 임재억 선수에게 판정승을 올렸고, 노신 선수와의 대전에서는 오른발 찰기 등으로 4득점, 노선수가 2득점을 기록하는 파이팅 넘친 경기를 펼친 가운데 고선수가 4:2 득점차로 판정승을 거두었다. 승승장구하던 고선수는 86년도 국가대표 강승우 선수를 맞아 1회전에 강선수에게 득점을 빼앗긴 뒤 2, 3회전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판정패함으로써 1패를 기록했다.

5. 경기분석 및 개선점

이번 대회 of 가장 큰 특징은 '86년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탈락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대표 1위 자리를 고수한 선수는 미들급의 이계행 선수 단 1명 뿐이었고 2진으로는 핀급의 이종선, 라이트급의 박봉권 선수, 나머지 체급에서는 모두 탈락한 것이다.

한편 경량급에 신인 유망주들이 1진과 2, 3진에 등장함으로써 국가대표의 세대교체를 원활히 해 주고 있음은 물론 경기의 리듬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플라이급 1위자인 강창모 선수의 경우 순발력, 뛰어난 기량, 다양한 기술로 노련한 선배들의 경기흐름에 도전하여 좋은 경기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있을 세계선수권대회는 물론, '88서울 올림픽의 유망주로 기대를 모은 뛰어난 선수였다.

득점면에서 보면 각 선수들은 자신의 주특기를 사용하여 득점을 내고 있으나 난이도가 큰 기술발휘로 경기를 활성화시켰다가 보다는 득점부위만을 노린 경기운영으로 경향이 축적되어 나온 기술 발휘에 머물러 관중들

로부터의 호응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본다. 따라서 선수들의 다양한 기술발전과 기량향상을 위해서나 스스로로서의 흥미라는 측면에서의 고려를 위해 태권도 기술의 득점상 차등제를 위한 규칙 개정이 시급하다.

한편 경기운영면에서 볼 때 같은 팀 동료끼리의 대전에서는 공격다운 공격이나 수비가 없는 부실한 경기로 공명정대하게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친다는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고 있어 선수들이 승패를 위한 경기기술만의 수련을 지양, 기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 등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등장했다.

● 입상자명단

체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급	1 위	임	성	욱	계 명 대
	2 위	이	종	선	한 체 대
	3 위	권	태	호	동 성 고
플라이 급	1 위	강	창	모	동 성 고
	2 위	전	웅	환	지 하 철
	3 위	인	해	진	부 산 시 협
밴텀 급	1 위	유	명	식	한 체 대
	2 위	지	용	석	청 주 대
	3 위	함	준	한	체 대
페더 급	1 위	정	승	환	지 하 철 공 사
	2 위	장	명	삼	설 악 케 블 카
	3 위	윤	정	욱	동 성 고
라이트 급	1 위	양	대	승	한 체 대
	2 위	박	봉	권	한 체 대
	3 위	이	창	건	한 체 대
웰터 급	1 위	정	국	현	지 하 철 공 사
	2 위	윤	순	철	경 회 대
	3 위	최	상	진	상 무
미들 급	1 위	이	계	행	조선대 대학원
	2 위	연	기	호	유 도 대
	3 위	김	현	곤	상 무
헤비 급	1 위	고	영	철	유 도 대
	2 위	노	신	경	희 대
	3 위	임	재	억	상 무



각 체급 우승자 제1회 세계 여자 태권도 선수권 대회 출전

'87년도 한국여자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5월 8일, 국기원



최주열 /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분과 부위원장

1. 대회개요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 선수선발대회에 파견할 '87년도 여자국가대표선수권 선발대회'가 5월 8일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만 15세 이상의 1단(품) 이상자들이 출전해 부별 구분없이 각 체급별 토너먼트 개인전으로

몸통호구, 머리보호대 및 팔다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경기를 치루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해의 134명보다 23명이 줄어든 111명이 출전했는데 이를 부별 구성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참 가 현 황

체 급	중 량	인원	선 수 구 성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핀 급	43kg까지	9	1	7	1	-
플라이급	43kg초과 47kg까지	15	-	12	3	-
밴 텀 급	47kg초과 51kg까지	23	4	15	4	-
페 더 급	51kg초과 55kg까지	22	2	15	3	2
라이트급	55kg초과 60kg까지	18	1	13	3	1
웰 터 급	60kg초과 65kg까지	9	-	6	3	-
미 들 급	65kg초과 70kg까지	7	-	4	2	1
헤 비 급	70kg초과	8	-	4	4	-
계		111	8	76	23	4
점유율		100%	7.2%	68.5%	20.7%	3.6%

이번 대회와 각체급 우승자는 올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제8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남자)와 병행하여 개최되는 제1회 세계여자 태권도선수권 대회에 한국대표선수로 파견된다.

2. 경기현황

핀 급

핀급경기에서는 이번 대회의 유망주로 기대를 모은 도재선(성신여대) 선수가 1차전에서 이화진(청산여상) 선수에게 1회전에 1점, 2회전에 2점, 3회전에 1점 등 총 4점을 내주며 완패당하고 탈락했다. 이화진 선수는 1차전에서 펼친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2차전에서 장이숙(청산여상) 선수에게 아깝게 탈락했다.

준결승전에서 장이숙 선수는 이남숙(문성여상) 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었고 김민정(천안여고) 선수는 홍자(문성여상) 선수를 맞아 우세한 경기로 공격을 퍼부으며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장이숙 선수는 김민정 선수에게 1회전을 우세하게 이끌고 2회전에 1득점씩을 주고 받는 가운데 우세한 경기를 펼쳤고 3회전은 득점이 없는 가운데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어 핀급의 국가대표선수 고지를 확보하였다.

되었다.

신 숙 선수는 김성숙(인천체고), 강경숙(청산여상), 안희경(유도대) 선수를 시종 우세한 경기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으나 강인숙(청산여상), 장복순(문산중고), 조인경(고양여중고) 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올라온 이 영(경희대) 선수에게 판정패로 주저앉게 되어 한체급의 벽이 얼마나 두꺼운가를 실감하게 했다.

이 영 선수는 '85년도에 3위, '86년도에 2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선수로의 꿈을 키워왔는데 이번 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제1회 세계여자 태권도선수권대회에 중중국 대표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영광을 획득했다.



이 영
(플라이급 1위)

- ▲ 소 속 : 경희대
- ▲ 생년월일 : 1969년 12월 18일
- ▲ 주요전적

'84 국가대표선발전 플라이급 1위
'85 국가대표선발전 플라이급 3위
'86 국가대표선발전 플라이급 2위
'84 제11회중고연맹전 플라이급 2위
'85 제12회중고연맹전 플라이급 1위
'86 제13회중고연맹전 플라이급 1위
'87 전국여자개인선수권 플라이급 1위



장 이 숙
(핀급 1위)

- ▲ 소 속 : 청산여상
- ▲ 생년월일 : 1970년 8월 20일생
- ▲ 주요전적

'85 제12회 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 핀급1위
'86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 핀급3위

플라이급

플라이급 경기에서는 1986년도 핀급 국가대표선수인 신 숙(청산여상) 선수가 한 체급 올린 플라이급에 출전하여 2위에 머물러 두 체급 국가대표 선수의 꿈이 좌절

밴 텀 급

예선전 1차전 경기에서 손미경(청산여상) 선수는 2회 1분만에, 박동선(인천체고) 선수는 윤 회(인천체고) 선수를 1회 1분만에 R.S.C(주심직권승)승으로 누르고 2차전에 올랐다.

한편 1986년도 밴텀급 국가대표선수인 박선영(경희대) 선수는 김은숙(천안동여중), 박추경(청산여상), 모미라(성신여대) 선수를 차례로 물리치고 준결승전에 올라 박현숙(고양여중고) 선수를 맞아 1회전부터 돌려차기, 뒷차기 등 다양한 공격으로 국가대표선수답게 무

난히 결승전에 진출했다.

배은정(성신여대) 선수는 '84년도 핀급 국가대표선수 등 핀급에서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 뱀턱급에 출전하여 박동선(인천체고), 박연실(성신여대), 손미경(청산여상) 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결승전에 올라 강력한 우승후보로 각광을 받았다.

결승전에 오른 박선영 선수와 배은정 선수의 대전은 배은정 선수가 시종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며 고교시절 동료였으며 국가대표선수인 박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고 꿈에도 그리던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으며 두체급 석권의 꿈을 실현하였다.



배 은 정
(뱀턱급 1위)

수에게 1회 20초만에 R, S, C승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올랐으나 전 국가대표 출신인 김소영 선수에게 아깝게 패해 3위에 머물렀다. 또한 정은경(문성여상) 선수는 김경숙(문산여중고) 선수를 맞아 우세한 경기와 공격으로 판정승을 거두어 16강에 올라 차례로 송혜경(청산여상), 오선주(천안여고) 선수를 누르고 준결승전에 올랐으나 임신자 선수에게 1회 20초만에 기권하여 3위에 머물렀다.

결승전에서 붙은 임신자 선수와 김소영 선수의 대전은 김선수가 1, 2, 3회전을 시종 우세하게 이끌어 우세 판정승을 거두고 페더급 1위를 차지했다.



김 소 영
(페더급 1위)

▲ 소 속: 성신여대

▲ 생년월일: 1968년 9월 17일

▲ 주요전적

'84 국가대표선발전 핀급 1위

'84 제11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 플라이급 1위

'84 제20회협회장기겸제11회중고개인선수권대회 플라이급 1위

'85 국가대표선발전 핀급 2위

'85 제21회협회장기겸제21회중고개인선수권대회 페더급 1위

'86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 플라이급 1위

'86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뱀턱급 2위

▲ 소 속: 성신여대

▲ 생년월일: 1966년 6월 12일

▲ 주요전적

'82 국가대표선발전 페더급 1위

'83 제10회중고연맹쟁탈전 라이트급 1위

'84 제11회중고연맹쟁탈전 라이트급 1위

'84 국가대표선발전 라이트급 1위

'85 국가대표선발전 페더급 1위

'86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 페더급 1위

'86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라이트급 1위

라이트급

페더급 국가대표선수인 이은영(경희대) 선수는 라이트급에 출전, 남정동(청산여상) 선수를 누르고 8강에 올라 김경미(문성여상) 선수에게 3회 1분 40초만에 기권승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올랐다. 준결승전에서 홍상희(인천체고) 선수를 맞아 1회전에 2득점이나 올리는 일방적인 공격으로 가볍게 결승전에 올랐다.

또한 김유숙(성신여대) 선수는 박진경(인천체고), 김영인(인천체고) 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준결승전에 올라 석소경(유도대) 선수를 판정으로 누르고 결승전에 올랐다.

페 더 급

페더급경기에는 '84년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라이트급 1위와 '85년도에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김소영(성신여대) 선수와 '84년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페더급 1위, '85년도에 뱀턱급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임신자(금나루체육관) 선수가 출전하여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열전을 벌여 김소영선수가 1위, 임신자선수가 2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이현하(청산여상) 선수는 이소연(청산여상) 선

결승전에서 이은영선수는 김유숙 선수를 맞아 1회전에 1득점, 2회전에 1분 50초만에 다운을 뺏은 등 다양한 공격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은 영
(라이트급 1위)

- ▲ 소 속 : 경희대
- ▲ 생년월일 : 1968년 1월 4일
- ▲ 주요전적

- '84 제11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 라이트급 3위
- '85 제12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 라이트급 1위
- '85 국가대표선발전 라이트급 1위
- '86 국가대표선발전 페더급 1위
- '86 제1회세계대학선수권 페더급 2위
- '87 전국여자개인선수권 라이트급 1위

웰 터 급

'85, '86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라이트급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김지숙(경희대) 선수는 부전승으로 8강에 오른 김진아(청산여상) 선수를 판정으로 누르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는 정현숙(청산여상) 선수를 누르고 올라온 이정림(인천체고) 선수를 맞아 1회전에 2득점, 2회전에 1득점 등 총 3득점을 올리는 맹공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한편 '86년도에 거행된 제13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와 제9회 회장기쟁탈 및 제2회 국제대학한국대표선수선발전에서 우승한 바 있고 올해 4월 21일과 22일 거행된 1987년도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오현주(이화여대) 선수는 김혜옥(청산여상) 선수에게 2회 50초만에 기권승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올라 고재경(성신여대) 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김지숙선수와 오현주선수의 대결은 김지숙 선수가 기량면에서 한수 앞서 1회전에 1득점을 올리며 기선을 잡았고 2회전에도 우세하게 이끌고 3회전에 서도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거두었다.



김 지 숙
(웰터급 1위)

- ▲ 소 속 : 경희대
- ▲ 생년월일 : 1967년 4월 1일
- ▲ 주요전적

- '82 국가대표선발전 라이트급 3위
- '83 제10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 웰터급 2위
- '84 제11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 웰터급 1위
- '85 국가대표선발전 라이트급 1위
- '85 제7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 '86 국가대표선발전 라이트급 1위
- '86 제1회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미 들 급

미들급경기에서는 '86년도 제7회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미들급 2위 및 '86년도 제1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 미들급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김현희(경희대) 선수가



김 현 희
(미들급 1위)

- ▲ 소 속 : 경희대
- ▲ 생년월일 : 1967년 7월 14일
- ▲ 주요전적

- '83 제10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 미들급 2위
- '84 제10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 미들급 1위
- '85 제10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 미들급 1위
- '86 제9회 회장기쟁탈전국대학대항 미들급 1위
- '86 제7회아시아선수권대회 미들급 1위
- '86 제1회세계대학선수권대회 미들급 1위
- '87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 미들급 1위

1차전에서 송미영 선수에게 2회 14초만에 기권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올랐다.

한편 양인덕(문성여상) 선수는 '84년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해비급 3위 및 '85년, '86년도에 미들급 3위를 차지한 바 있는 이진희(이화여대) 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김현희 선수는 양인덕 선수를 맞아 1회전에 우세한 경기를 이끌고 2회전에 득점을 올리고 3회전에도 우세한 경기를 치루며 판정승을 거두고 무난히 국가대표선수가 되었다.

해비급

해비급경기에서는 '84, '85, '86년도 국가대표선수 출신인 장운정(명지대) 선수가 이번 대회에도 해비급 패권을 차지함으로써 태권도 여자대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장운정
(해비급 1위)

- ▲ 소속 : 명지대
- ▲ 생년월일 : 1966년 6월 11일
- ▲ 주요전적

'82 국가대표선발전 해비급 1위
'83 제10회중고연맹회장기경쟁전 해비급 1위
'85 제7회세계선수권여자부 해비급 1위
'86 제7회아시아선수권 해비급 1위
'86 제1회세계대학선수권 해비급 1위
'84 '85 '86 국가대표선발전 해비급 1위

장운정선수는 1차전에서 '84년도에 해비급 3위, '85년도에 2위, '86년도에 3위 등을 차지하며 장선수를 도전해온 손지희(성신여대) 선수를 맞아 우세한 경기와 득점으로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에 올라 백영미(인천체고) 선수를 1회 20초만에 R.S.C승으로 누르고 결승전에 올랐다.

한편 지난해 국가대표선발전에서 2위를 차지한바 있

는 정완숙(성신여대) 선수는 부전승으로 준결승전에 올라 정영숙(성신여대) 선수를 3회 34초만에 R.S.C승으로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정완숙 선수는 장운정 선수에게 1회전에 득점을 올리며 설욕전을 펼치는데 했는데 2회전에 역공세를 당하며 패색이 짙어져 2위에 머무르고 말았다.

3. 선수들 체중관리의 중요성 인식필요

이번 대회를 통해 볼 때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85, '86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핀급 우승자인 신숙(청산여상) 선수가 한체급 올린 플라이급에 출전해 이영(경희대) 선수에게 밀려 2위에 물러났으며 '85년도 제7회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부 시범경기과 '86년도 제1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85년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서 뱀텀급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임신자(금나무체육관) 선수가 페더급에 출전해 국가대표에서 탈락한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선수들의 지속적인 훈련과 수련으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대변해 주는 하나의 보기가 되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었다. 따라서 선수들은 한 체급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 것인가를 인식하고 수련과 기술축적 및 체력연마를 통해 기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대회를 앞둔 선수들에게는 승패를 가름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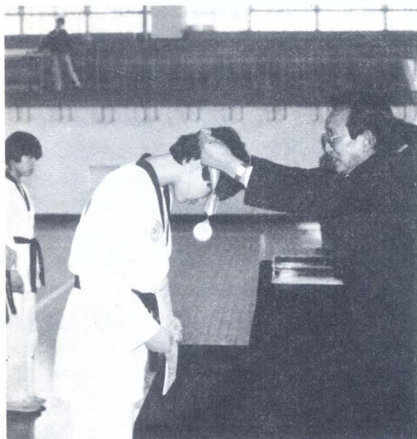
4.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대비 강화훈련 필요

이번 대회에서 각 체급별로 우승한 선수 8명은 한국 여자국가대표로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87년 10월 7일에서 11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최될 제1회 세계여자 태권도 선수권대회에는 8개국이 참가하여 8체급 64명의 여자선수가 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국가대표 선수를 5월에 조기 선발하였고 앞으로 강화훈련 등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여자부 국제대회 성적을 보면 1985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여



우승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엄운규 부회장.

자부 시범경기에서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은 금 4, 동3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어 스페인이 금3, 은1로 2위, 미국이 금1, 은3, 동2로 3위, 서독이 은2, 동2로 4위를 차지했다.

또한 1986년 4월 호주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는 총 7개국이 출전하여 자유종국이 금 3, 은3, 동2로 1위, 한국은 금3, 은2, 동2로 2위, 호주가 금2, 은1, 동3으로 3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1986년 11월 미국에서 개최된 제7회세계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에는 5개국이 참가하여 한국이 금5, 은2, 동1개로 1위, 자유종국이 금2, 은3, 동2로 2위, 미국이 금1, 은3, 동3으로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처럼 각종 국제대회에서 한국은 세계각국의 여자태권도 선수들과 대등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 중주국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여자 태권도 경기의 국제화 추세로 볼 때 외국의 여자태권도가 활성화됨으로써 많은 선수층을 확보하고 있는 점, 신체적인 조건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우위에 있는 점 등으로 중주국 태권도를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고 중주국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체력연마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 입 상 자 명 단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핀	급	1	장	이 숙	청	산 여 상
		2	김	민 정	천	안 여 고
		3	이	남 숙	문	성 여 상
		3	홍	자	문	성 여 상
플라이	급	1	이	영	경	회 대
		2	신	숙	청	산 여 상
		3	안	희 정	유	도 대
		3	조	인 경	고	양여종고
밴	팀	1	배	은 정	성	신 여 대
		2	박	선 영	경	회 대
		3	박	현 숙	고	양여종고
		3	손	미 경	청	산 여 상
페	더	1	김	소 영	성	신 여 대
		2	임	신 자	금	나무체육관
		3	정	은 경	문	성 여 상
		3	이	현 하	청	산 여 상
라이트	급	1	이	은 영	경	회 대
		2	김	유 숙	성	신 여 대
		3	석	소 정	유	도 대
		3	홍	상 회	인	천 체 고
웰	터	1	김	지 숙	경	회 대
		2	오	현 주	이	화 여 대
		3	이	정 림	인	천 체 고
		3	고	재 경	성	신 여 대
미	들	1	김	현 회	경	회 대
		2	양	인 덕	문	성 여 상
		3	이	진 회	이	화 여 대
		3	×			×
헤	비	1	장	윤 정	명	지 대
		2	정	완 숙	성	신 여 대
		3	백	영 미	인	천 체 고
		3	정	영 숙	성	신 여 대

금5, 은2로 종합우승차지

— 체력보강과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 —

'87 월드컵 태권도 대회

5월 15일~17일, 핀란드



박수복 / '87 월드컵대회 대표선수단코치

■ 한국대표 선수단 명단

- ▲ 단 장 : 임형연 (전남태권도협회 회장)
- ▲ 감 독 : 송봉섭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 ▲ 코 치 : 박수복 (인천전문대학 조교)
- ▲ 핀 금 : 이종선 (한국체대2년)
- ▲ 플라이급 : 전용환 (서울지하철공사)
- ▲ 밴 텀 급 : 지용석 (청주대학4년)
- ▲ 페 더 급 : 장명삼 (실악케이불가)
- ▲ 라이트급 : 박봉권 (한국체대2년)
- ▲ 웰 터 급 : 윤순철 (경희대학2년)
- ▲ 미 들 급 : 연기호 (유도학교4년)
- ▲ 헤 비 급 : 노 신 (경희대학3년)

각 대륙에서 선발된 세계 태권도 강국들의 대제전인 월드컵대회가 작년에 이어 두번째를 맞이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은 임형연(전남협회회장) 단장, 송봉섭(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감독, 박수복(인천전문대학) 조교 코치와 국가대표 선수 8명 등 11명의 대표 선수단이 파견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선수권대회 1위인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선발된 자유중국, 일본, 중동권의 요르단, 팬암선수권대회에서 선발된 미국, 콜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유럽선수권에서 선발된 핀란드, 서독, 스페인, 이태리, 덴마크, 오스트리아와 제7회 세계선수권대회 2위국인 아이보리코스트, 아프리카 선수권대회에서 선발된 이집트, 자이레 등 총 16개국이 출전하였다.

한국대표선수단은 5월 8일 국기원에서 결단식을 갖고 대회 출전에 앞서 일주일 동안 합숙훈련을 실시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11일 출국, 경기가 개최되는 핀란드 헬싱키로 떠났다.

대회 하루전인 14일 오후에는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대진 추첨이 있었는데 첫날에는 밴텀급(지용석), 페더급(장명삼), 뿔새날은 핀급(이종선), 라이트급(박봉권), 미들급(연기호), 마지막날은 플라이급(전용환), 웰터급(윤순철), 헤비급(노신)순으로 경기 일정이 정해졌다.

5월 15일 첫날 경기에는 밴텀급과 페더급에 출전한 지용석 선수와 장명삼 선수가 무리없이 체제를 통과하

고 대회에 출전했다.

밴텀급의 지용석 선수는 부전승으로 2차전에 올라 덴마크의 닐센(Ole K. Nielsen) 선수를 맞아 앞차기, 받아차기 등으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전에 올랐다. 준결승전에서 지용석 선수는 '86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홍종만 선수를 이긴바 있는 요르단의 라바비디(Tareq Lababidi) 선수를 맞아 월등한 기량으로 제압, 결승전에 올라 대만의 핑중천(Ping-Jung Chen) 선수를 우세한 경기로 누르고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페더급의 장명삼 선수는 부전승으로 2차전에 올라 독일의 클라우스(Berkenbaum, Klaus) 선수를 맞아 1회전에 우세 판정을 받았으나 2회전에 얼굴공격을 당하며 점수를 빼앗겨 고전, 3회전에 가까스로 돌려차기 득점을 올려 힘겹게 판정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준결승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려는 듯 장선수는 스페인의 루이스(Torner Luis) 선수를 돌려차기 등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결승전에 올라가 주축국인 핀랜드의 라티라이넨(Timo Ratilainen) 선수를 맞아 얼굴차기 등 노련한 기술발차기를 발휘하며 승리를 거두어 중주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틀째 경기에는 핀급의 이종선, 라이트급의 박봉권, 미들급의 연기호 선수가 출전했다.

이종선 선수와 박봉권 선수는 체중감량으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기에 출전해 대표단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두 선수 다 1차전은 부전승으로 준준결승전에 올라갔다.

이종선 선수는 이어 준결승전에서 이탈리아의 다리오(Hanca Dario) 선수를 일방적으로 누르고 결승전에 올라 요르단의 자야우스(Ferass Al-Jayyausi) 선수를 맞아 회축 등 다양한 기술발차기를 발휘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라이트급의 박봉권 선수는 이집트의 엘레마리(Farage Elemary) 선수를 맞아 득점을 주고 받는 막상막하의 경기로 힘겹게 준결승전에 진출, 미국의 베이커(Gregory Baker) 선수를 판정으로 누르고 결승전에 올랐다. 박선수는 독일의 조지프(Streift Georg) 선수와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였는데 3회전에 원발돌려차기를 연속으로 강타하며 득점을 올린 박선수가 승리를 굳히고 네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미들급의 연기호 선수는 1차전에서 오스트리아의 에



리히(Zaller Erich) 선수를 월등한 기술발차기 등으로 몸통 및 얼굴을 강타하며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전에 올라 홈그라운드인 잇집을 안고 패기만만하게 출전한 핀랜드의 카일라(Jari Kaila) 선수를 맞아 1회 20초만에 원발뒤돌려차기로 K.O.승을 거두며 핀랜드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에 췌기를 박았다. 이어 신장이 좋고 체력이 우세한 독일의 마틴(Bernhofer, Martin) 선수를 맞아 초반에 밀리는 듯 했으나 차차 공격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결승전에 진출해 미국의 페레즈(Herbert Perez) 선수와 한판 승부를 펼쳤다. 연기호 선수는 1회전에 페레즈 선수의 원발앞차기에 득점을 허용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선전분투했으나 아깝게 은메달에 그치고 말았다.

마지막 날 경기에는 플라이급의 전용환, 웰터급의 윤순철, 헤비급의 노신 선수가 필승을 차지하며 대회에 출전했다.

플라이급의 전용환 선수는 1차전에서 우세한 기량을 자랑하는 대만의 칭산왕(Ching-Shan Wang) 선수를 맞아 신중한 플레이를 펼치다 선제공격을 빼앗겨 우세를 내주었으나 2, 3회전에 돌려차기로 얼굴공격과 몸통공격으로 반격을 퍼부으며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경기로 전 선수는 허벅지 부상과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당한 가운데 준결승전에 올라 미국의 창(Joseph Chang) 선수를 맞아 투혼을 불사하며 승리로 이끌고 결승전에 올랐다. 그러나 덴마크의 사림(Jsoef Salim) 선수에게 판정패 당하고 은메달에 그치자 관중들은 전 선수의 선전에 아타카운듯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다.

웰터급의 윤순철 선수는 실격승과 기권승 등으로 가

결계 준결승전에 올라 우수한 기량으로 독일의 로베르트(Beckenbauer, Robert) 선수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 오스트리아의 헬무트(Kock Helmuth) 선수를 1회 1분 20초만에 앞차기 연타를 적중시키며 K.O승을 거두어 중주국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헤비급의 노신 선수는 1차전에서 자이레 선수를 누르고 2차전에 진출했으나 덴마크의 소렌센(Tonny Sorensen) 선수에게 신장과 체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탈락, 중량급에 대한 체력보강 및 기술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5, 은2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나 중량급에 대한 외국선수들의 도전 뿐만 아니라 경량급에 대해서도 막강한 실력으로 도전해오고 있어 부단한 체력보강과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중주국의 면모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각국 선수들의 경기력이 날로 향상된데다가 체력이 좋아 중주국의 위력에 눌려 소극적 경기를 펼치던 예년에 비해 우리 선수들의 공격을 긴 리치로 막아내거나 받아차기로 역습해 오는 등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며 적극적인 공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각국 선수들이 뒷차기나 앞차기 등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을 뿐더러 고난도 기술발휘를 경기에서 시도하며 국내대회에서 득점을 위주로 공격하던 한국 선수들을 위협해 국제대회의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은 이에 당황, 역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제대회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태권도 기술을 이용한 공격으로 밀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경기에서부터 차등 득점제 실시로 선수들이 득점을 위한 공격에서 벗어나 기술과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체력향상 및 경기전략의 다양성을 개발하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 메 달 집 계

국	명	금	은	동
한	국	5	2	
미	국	2		1
덴	마	1	2	
서	독		1	2
이	집		1	2
요	르		1	1
핀	랜		1	1

■ 입상자 명단

● 핀 금

- 1위. 이 종 선 (한국)
- 2위. Ferass Al-Jayyausi (Jordan)
- 3위. Ari Nevolainen (Finland)

● 플라이급

- 1위. Josef Balim (Denmark)
- 2위. 전 웅 환 (한국)
- 3위. Francisco Carvallo (Ecuador)

● 밴 텀 급

- 1위. 지 용 석 (한국)
- 2위. Ping Jung Chen (C. Taipei)
- 3위. Marchione Raffaele (Italy)
- 3위. Tareq Lababidi (Jordan)

● 페 더 급

- 1위. 장 명 삼 (한국)
- 2위. Timo Ratilainen (Finland)
- 3위. Torner Luis (Spain)
- 3위. Thomas Filyo (Denmark)

● 라이트급

- 1위. 박 봉 권 (한국)
- 2위. Streift Georg (W-Germany)
- 3위. Gregory Baker (U.S.A)
- 3위. Thye (Netherland)

● 웰 터 급

- 1위. 윤 순 철 (한국)
- 2위. Rock Helmuth (Austria)
- 3위. Beckenbauer Robert (W-Germany)
- 3위. Ashraf Abouelnour (Egypt)

● 미 들 급

- 1위. Herbert Perei (U.S.A)
- 2위. 연 기 호 (한국)
- 3위. Amr Khairi (Egypt)
- 3위. Bennhofer Martin (W-Germany)

● 헤 비 급

- 1위. Timmy Kim (U.S.A)
- 2위. Moustafa Elabrake (Egypt)
- 3위. Meyer (Netherland)
- 3위. Tonny Sorensen (Denmark)



국내 단일종목으로는 최대규모 출전

'87년도 전국춘계종별 선수권대회

3월 16일~21일, 국기원

홍 보 실

총 1천 4백 50명 출전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국기원에서 개최된 춘계종별선수권대회에는 총 1천4백50명이 출전, 국내 단일종목으로는 최대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가 펼쳐졌다.

이같이 많은 선수들의 출전으로 말미암아 경기장은 A.B.C 세코트를 사용하는 가운데 매일 2백50여 게임을 치루며 6일간 열전을 거듭했다.

경기에 있어서는 중등부가 11체급, 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는 각각 8체급으로 각 체급별 토너먼트식 개인전으로 중등부는 1분 30초 3회전, 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는 2분 3회전으로 치루어졌다.

이번 대회는 특히 전 선수들이 국내 경기로서는 처음으로 머리보호대를 착용하고 경기를 치루었다.

한편 여성심판원 3명이 등장하여 정확한 심판은 물론 이겨니와 부드러운 분위기를 돋구었고 신인들의 경기력에 있어서는 실력차이가 두드러져 K.O, T.K.O등이 속출했다. 경기운영에 있어서는 득점을 위한 기술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이 태권도 관계자들의 중평이었다.

중등부 경기

중등부 경기에는 전국에서 400여명이 출전, 11체급의 참피언을 노리며 대회 3일째인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전을 벌였다.

핀급 경기에는 총 32명이 출전했는데 이상철(재송중) 선수는 강근배(남주중) 선수를 맞아 K.O승을 거두며 2차전에 올랐고 김현식(강원중) 선수는 서상우(한성중) 선수를 맞아 2회 57초만에 R.S.C승을 거두고 8강전에 진출했다.

문성대(경주중) 선수는 최경량급 선수답지 않게 파괴력을 과시하며 핀급 챔피언이 되었다.

페더급 경기에서는 한일수(동대문중) 선수가 홍종수(청주남중) 선수를 맞아 K.O승으로 누르고 16강전에 올랐으며 박영삼(제일중) 선수도 양재철(북서울중) 선수를 3회전에 앞발 들어찍기로 K.O승을 거두며 16강전에 올랐으나 두 선수다 8강전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다. 8강 전에는 서민관(부천동중), 민경환(청주남중), 장용준(일직중), 심주희(충북사대부중), 서배홍(남주중), 박성수(동아중), 이원준(원주중), 유정삼(천호중) 선수가 올랐는데 서민관 선수가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라이트 웰터급 경기에서는 고병국(남주중) 선수가 양성우(성사중) 선수를 맞아 1회 30초만에 오른발 내려찍기로 안면을 강타하여 K.O승을 거두며 2차전에 진출했으나 3차전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웰터급 경기에서 박기채(대원중) 선수는 1차전에서 방원준(풍생중) 선수를 일방적 공격으로 몰아붙이며 8강전에 오르기도 했다.



선후배와 제자가 나란히 지도자로 대회에 출전했다.
(좌로부터 김재호, 김세혁, 장명삼코치)

미들급 경기에서 남운호(청주중) 선수는 마명호(선덕중) 선수를 맞아 1회 10초만에 앞돌려차기로 K.O.승을 거두어 관중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고등부 경기

고등부 핀급 경기에는 총 197명이 출전하여 체급별 경기 중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핀급 2차전 경기에서는 이안호(부산체고) 선수가 전무근(광영고) 선수를 2회 40초만에 앞돌려차기로 K.O.승을 거두고 3차전에 올랐으나 강명수(송도고) 선수에게 패했다.

플라이급 경기에서는 148명이 출전한 가운데 열전을 벌였는데 남태운(부평고등기술고) 선수가 이희준(용산공고) 선수를 맞아 1회 55초만에 받들어 내려차기로 T.K.O.승을 거두었다. 또한 배재일(성동고) 선수가 정의석(한광고) 선수를 2회에 T.K.O.승을 거두는 등 플라이급은 열전의 도가니를 이루었다.

밴텀급 경기에서는 김성춘(인덕공고) 선수가 최진영(한성고) 선수에게 1회 11초경에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하여 심한 부상을 당하자 최선수에게 판정패가 선언되기도 했다.

페더급 경기에서도 K.O., T.K.O.가 속출하는 격전을 벌였는데 유성훈(선인고) 선수가 유민(안양예고) 선수를 1회 59초만에 뒷차기로 복부를 강타하여 통쾌한 K.O.승을 올리며 16강에 올랐고, 중등부시절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던 민태남(동성고) 선수도 조정호(단대부고) 선수를 뒤돌려차기로 안면을 강타, 2회 36초만에 K.O.승을 올리며 16강에 돌입했다.

라이트급이상 중량급 경기에서는 경량급에서처럼 K.O., T.K.O.등이 나오진 않았으나 다양한 기술을 보

여주어 기술면에서 많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대학부·일반부 경기

대학부 경기에는 총 40명이 출전하여 가장 저조한 참가 수준을 보여 중고등부나 일반부의 열전에 비해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페더급 경기에서 김정수(인천전문대) 선수는 최민규(인천전문대) 선수를 맞아 2회 1분만에 R.S.C.승을 거두고 2차전에 진출하여 무난히 4강까지 올랐으나 박준영(인천전문대) 선수에게 패해 3위에 머물렀다.

한편 일반부 경기에는 총 145명이 출전하여 노련한 경기운영 및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었다.

일반부 페더급 경기에서 신현석(선우체) 선수는 유태화(인하체) 선수를 맞아 1회 1분15초만에 뒤돌려차기로 안면을 강타하여 다운시키고 2회에 들어와 1회 25초만에 얼굴 뒤돌려차기로 K.O.승을 거두며 8강에 올라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박진석(성동고), 이현석(동성고) 선수 고교 1년생으로 패권차지

이번대회에서 유망주로 기대를 모은 선수로는 고등부 라이트급 우승자인 박진석(성동고) 선수와 웰터급 우승자인 이현석(동성고) 선수로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며



유망주로 기대를 모은 이현석(좌), 박진석(우) 선수.

선전을 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이번 대회 우승 뿐만 아니라 앞으로 꾸준한 수련을 통하여 체력을 다지고 기술을 보강한다면 국가대표급 선수로 성장하리라는 기대를 모았다.

박진석 선수는 85년도와 86년도에 중고연맹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이현석 선수도 86년도 춘계대회 2위, 추계대회 1위를 차지한 경력이 있는 저력있는 선수들이다. 이 두 선수는 이번 대회를 대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계훈련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경기에서는 코

치 선생님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 우승의 비결이라며 배우는 자세를 견지했다.

여성심판원 등장

그동안 태권도 경기에서의 심판원은 거의 남자의 독무대였으나 지난해 4월 심판강습을 받고 실기와 필기를 합격한 서춘희(30세), 박정옥(27세), 양인옥(25세)씨 등 3명이 심판보수교육을 마치고 87년도 공식대회로서는 처음으로 심판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태권도 심판은 공인 4단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성심판 3명 모두 4단으로 국가대표급 선수로 활약한 바 있다.

서춘희 심판은 자녀를 둔 주부이자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첫날 심판을 볼 때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스스로 당황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다」며 「공정한 심판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정옥씨는 「선수 때보다 태권도를 보는 눈이 좋아졌다. 남자 심판들보다 싸인 모션이 적고 목소리도 작은 어려움이 있으나 태권도 경기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심어주는 잊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양인옥 심판은 77년 은광여고 1학년 재학시에 취미로 태권도를 시작한 것이 인연이 되어 경희대 체육학과를 졸업한 전문 태권도인으로 「운동선수로서 결실을 맺기 위해 심판활동을 결심했다」며 심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했다.

체중조절 문제의 심각성 드러내

이번 대회를 통해 볼 때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는 선수들의 체중조절문제의 심각성을 들 수 있다.

즉 이번 대회 출전선수 1,450명 중 체제실격자를 보면 181명으로 전체의 12%를 넘고 있다.

이는 선수들이 자신의 체력관리라는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지도자의 과학적인 선수 육성 방법의 필요성이 표출된 사례라고 본다. 최근 경기력 향상 추세로 볼 때 기량이 평균화된 상태에서는 적절한 체중관리를 바탕으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날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때 이는 기술연마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한편 체제불참으로 실격처리된 선수의 문제는 대표자 회의시 지도자가 불참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미스 등 대회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는 경우도 있



기 때문에 각종 대회시 책임있는 지도자의 대표자회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참가선수들을 보면 고등부가 865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대학부가 40명으로 가장 적어 대조적인 현상을 빚었다.

참가선수 현황으로 본 앞으로의 대책

중·고등학생이 대거 경기에 출전하는 현상은 다분히 상급학교 진학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학생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고등 학생은 대학 진학을 위해 각종 경기에서 상위입상전적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각종 경기대회에 계속 출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대학입학을 한 태권도 선수들이 태권도경기 대회 출전에 저조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첫째, 고등학교 태권도수련생보다는 그 수에 있어 대학 진학자가 훨씬 적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전적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태권도 수련을 계속하는 경우는 그만큼 소수정예가 된다는데 그 첫째 이유가 있겠으나 특기자 진학을 하지 않은 태권도학과나 각 대학의 태권도부 등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학생들이 경기출전에 극히 소극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졸업 후의 진로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대회출전으로 명성을 얻고 실업팀입단등 태권도 수련생들의 사회진출이 용이하다면 이에 대한 수련은 계속될 터인데 이에 대한 진로가 거의 불확실하다는 현실은 자연히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좋은 전적을 보유해야겠다는 유인(誘因)을 그만큼 줄여둘게 만든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실업팀 창단 등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게 급선무일 것이다.

중등부 입상자

체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1 위	문 성 대	경 수	중
	2 위	박 종 천	서 원	중
	3 위	김 현 식	강 원	중
	3 위	김 병 석	남 주	중
플라이	1 위	김 병 열	풍 생	중
	2 위	이 욱	청 주	중
	3 위	정 상 수	함 양	중
	3 위	전 재 식	부 천 동	중
밴텀	1 위	복 상 섭	북	중
	2 위	정 주 철	예 산	중
	3 위	이 광 주	도 계	중
	3 위	김 태 균	성 남 동	중
페더	1 위	서 민 관	부 천 동	중
	2 위	이 원 준	원 주	중
	3 위	장 용 준	일 직	중
	3 위	서 배 홍	남 주	중
라이트	1 위	이 호 섭	영 남	중
	2 위	한 상 범	원 주	중
	3 위	유 규 태	예 산	중
	3 위	김 준 규	당 곡	중
라이트웰터	1 위	김 승 일	미 덕	중
	2 위	권 혁 훈	남 주	중
	3 위	이 일 신	동 대 문	중
	3 위	신 보 현	청 주	중
터	1 위	원 성 식	원 주	중
	2 위	이 신 철	부 천 동	중
	3 위	윤 석 민	배 재	중
	3 위	김 성 훈	당 곡	중
라이트미들	1 위	손 효 봉	대 현	중
	2 위	정 진 태	해 동	중
	3 위	김 영 석	경 일	중
	3 위	권 오 열	일 직	중
미들	1 위	강 재 구	경 일	중
	2 위	김 공 배	해 동	중
	3 위	이 철 우	고 한	중
	3 위	정 현 우	당 곡	중
라이트헤비	1 위	임 영 호	삼 성	중
	2 위	진 용 호	옥 천	중
	3 위	김 송 남	영 남	중
	3 위	문 효 섭	선 덕	중

헤비	1 위	이 영 석	원 주	중
	2 위	김 현 주	제 천	중
	3 위	원 의 선	경 수	중
	3 위	김 종 우	밀 성	중

고등부 입상자

체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1 위	윤 회 준	신 탄 진	고
	2 위	최 기 동	풍 생	고
	3 위	박 진	성 동	고
	3 위	박 재 완	부 산 체	고
플라이	1 위	김 양 식	완 산	고
	2 위	신 민 철	신 탄 진	고
	3 위	김 재 완	풍 생	고
	3 위	박 병 익	리 라 공	고
밴텀	1 위	조 준 원	동 성	고
	2 위	장 동 균	남 주	고
	3 위	김 성 춘	인 덕 공	고
	3 위	김 관 석	향 도 실	고
페더	1 위	김 병 갑	성 동	고
	2 위	박 세 진	서 울 체	고
	3 위	김 한 진	경 상 공	고
	3 위	김 병 곤	대 전 체	고
라이트	1 위	박 진 석	성 동	고
	2 위	장 주 동	성 동 상	고
	3 위	백 승 범	서 울 체	고
	3 위	정 충 렬	경 남 체	고
웰터	1 위	이. 현 석	동 성	고
	2 위	지 장 호	풍 생	고
	3 위	이 원 호	한 성	고
	3 위	김 태 호	예 산	고
미들	1 위	송 병 철	동 성	고
	2 위	최 훈 종	광 성	고
	3 위	이 종 섭	서 울 체	고
	3 위	김 동 기	익 산	중
헤비	1 위	박 중 현	경 남 체	고
	2 위	이 호 근	경 남 체	고
	3 위	홍 윤 기	리 라 공	고
	3 위	김 주 연	예 산	고



대학부 우승자들



일반부 우승자들

대학부 입상자

체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1 위	안	도 환	인천 전문대	
	2 위	김	기 석	"	
	3 위	한	승 훈	"	
금	3 위	이	재 현	"	
플라이급	1 위	고	지 형	"	
	2 위	이	한 준	"	
	3 위	정	병 철	"	
밴텀	3 위	권	병 기	"	
팀	1 위	박	준 영	"	
	2 위	나	길 수	유도대	
	3 위	김	정 수	인천 전문대	
페더급	3 위	천	어 수	"	
	1 위	이	해 연	유도대	
	2 위	염	덕 주	"	
더급	3 위	변	내 호	인천 전문대	
	3 위	정	훈	"	
라이트급	1 위	차	광 채	유도대	
	2 위	윤	성 식	인천 체대	
	3 위	배	하 원	인천 전문대	
급	3 위	한	상 회	"	

일반부 입상자

체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1 위	원	인 호	원주 효성체	
	2 위	함	식	함평	
	3 위	강	성 관	인하체육관	
금	3 위	전	수 옥	영광 "	
플라이급	1 위	황	의 호	한국 "	
	2 위	오	진 근	한국 O, B	
	3 위	황	기 동	인하체육관	
밴텀	3 위	이	장 훈	광성 "	
팀	1 위	송	명 철	청학 "	
	2 위	박	준 규	송실 O, B	
	3 위	정	연 서	수민	
페더급	3 위	이	상 일	효성	
	1 위	김	병 철	청학	
	2 위	이	종 천	여주 종합	
더급	3 위	박	태 준	가야	
	3 위	신	현 석	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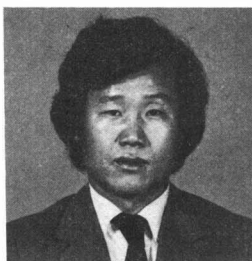
체급	등 위	성	명	소	속
라이트급	1 위	현	상 섭	항만 O, B	
	2 위	박	규 용	포천 군지부	
	3 위	박	용 석	인하체육관	
웰터급	3 위	김	정 목	청우 "	
터급	1 위	이	성 수	우주 "	
	2 위	김	익 상	참피온 "	
	3 위	조	준 석	청우 "	
미들급	3 위	김	상 두	중앙 "	
헤비급	1 위	이	홍 배	금마 "	
	2 위	장	양 수	신광 "	
	3 위	최	경 찬	거제 "	
비급	3 위	안	효 상	한만 O, B	
	1 위	최	창 선	올림픽 체육관	
	2 위	엄	성 환	중앙 "	
급	3 위	성	봉 준	참피온 "	
	3 위	안	종 철	창용 "	



전국체전에 여자부 경기채택으로 국내 여성 태권도 활성화 도모

1987년도 전국 여자개인 선수권대회

4 월 21일~22일, 국기원



김기용 /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분과 부위원장

여성태권도의 활성화 방안을
보다 근본적인 방향에서
생각해 볼 때 전국체전에
여자태권도 종목 채택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1. 대회개요

여자 태권도 경기의 국제화 추세에 대비하고 국내 여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1986년에 창설, 제2회째를 맞이한 전국 여자 태권도 개인 선수권 대회가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중·고 대학생 및 일반부 구별없이 체급별 토너먼트 개인전으로 치루어진 이번 대회에는 2백 28명의 선수가 출전, 지난 대회의 1백 45명 출전보다 83명이 더 늘어난 57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대회에는 R.S.C승과 기권승이 속출해 실력차가 두드러짐을 볼 수 있었다.

대회 첫날 2차전까지 벌어진 핀급 경기는 1차전 경기에서 구효원(남인천여중) 선수와 양은정(청산여상) 선수가 각각 R.S.C승을 거두었고, 김태연(혜성여상) 선수가 방미영(배성여상) 선수를 오른발 돌려차기로 다운을 뺏으며 2차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핀급 우승을 차지한 원선진(수성여중) 선수는 뛰어난 순발력과 다양한 기량, 과감한 공격으로 매 경기마다 다량득점을 올리며 패권을 차지해 이번 대회에 가장 기대를 모은 유망주로 떠 올랐다.

플라이급 1차전 경기에서 김성숙(인천체고) 선수는 김정자(구의중) 선수를 1회 30초만에 앞돌려 차기로, 윤 희(인천체고) 선수는 이세라(양덕여중) 선수를 1회 30초만에 앞돌려 차기로 K.O승을 거두며 2차전에 진출했다.

또한 박금주(철산여중) 선수는 1회전에 득점을 빼앗기며 열세에 몰린 김은주(문산여중고) 선수가 2회 1분 만에 기권을 해 기권승을 거두었다. 강인숙(청산여상) 선수는 1회 종료후 이윤선(역삼중) 선수에게 R.S.C 승, 추난률(청산여상) 선수는 이선주(배성여상) 선수에게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판정승을 거두고 각각 2차전에 올랐다.

2차전경기에서 김성숙(인천체고) 선수는 최희정(천안동여중) 선수를 1회 1분 57초만에 R.S.C 승을 거두며 8강에 진출하기도 했다.

한편 결승전 경기에서 이영(경희대) 선수는 안희정(유도학교) 선수를 맞아 1회전에 득점을 빼앗으며 기선을 잡은 뒤 시종 우세한 경기로 플라이급 패권을 차지했다.

밴텀급 경기에서 국가대표 박선영(경희대) 선수는 이은정(덕원여중) 선수를 2회 35초만에 앞돌려차기로 안면을 강타하여 T.K.O 승을 올리며 저력을 과시했다. 또한 모미라(성신여대) 선수는 김수현(부천동여중) 선수를 1회 30초만에 K.O로 누르고 8강에 올랐다.

준결승전에서는 박선영(경희대) 선수와 박현숙(고양여중고) 선수가 각각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올라 1회전에 박선영 선수가 1득점을 선취한 뒤 2회전에 박현숙 선수가 1득점을 올려 동점을 이룬 가운데 3회전에 밴텀급 패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장면에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각기 1득점씩을 올리는 막상막하의 경기로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박선영 선수가 우세판정을 받으며 패권을 차지했다.

페더급 경기에는 총 35명이 출전했는데 이중 불참 및 체제로 10명이 실경됨에 따라 선수들의 정신상태 및 체중관리에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페더급 1차전 경기에서 정은옥(인천체고) 선수는 같은 학교 후배인 유은숙 선수를 맞아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다 2회 종료후 R.S.C 승을 거두었다.

또한 2차전에서곽선미(청산여상) 선수는 오선주(천안여고) 선수에게 3회 52초만에 R.S.C 승으로 8강에 진출했다. 그러나 8강전에서 곽선미 선수는 김소영(성신여대) 선수에게 1회 40초만에 R.S.C 승을 내주며 탈락했다.

결승전 경기에는 김소영(성신여대) 선수와 진혜윤(문산여중) 선수가 한판 승부를 놓고 열전을 벌였는데 우세한 경기운영과 다양한 공격으로 득점을 올린 김소영 선수가 페더급 우승을 차지했다.



직접 뛰는 선수보다 더 애타게 작전을 지시하는 코치(윤치영 선생) 표정.

라이트급 1차전 경기에서는 남정동(청산여상) 선수가 김경숙(양백여상) 선수를 2회 45초만에, 김유숙(성신여대) 선수는 이현화(청산여상) 선수를 1회 1분 50초만에 각각 R.S.C 승으로 누르고 2차전에 진출했다. 한편 이은영(경희대) 선수는 정현주(청산여상) 선수에게 1회 1분 57초만에 기권승을 거두었다.

라이트급 결승전에는 남정동(청산여상) 선수와 이은영(경희대) 선수가 대전을 펼쳤는데 일방적인 공격으로 몰아붙인 이은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

웰터급 경기에는 무명의 오현주(이화여대) 선수가 국가대표인 김지숙(경희대) 선수를 맞아 판정승으로 누르고 2차전에 진출해 기대를 모았다.

한편 8강전에서도 오현주 선수는 정은혜(배영여고) 선수에게 R.S.C 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해 고재경(성신여대)을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오현주 선수는 이정림(인천체고) 선수를 맞아 1, 2회전에 일방적인 공격을 펼치다 3회전에 원발 앞돌려차기로 이정림의 안면을 강타하여 카운터까지 물고가는 등 선전을 펼치며 웰터급 패권을 차지하였다.

미들급 경기에서도 김미화(인천체고) 선수는 김윤정(보영여중고) 선수를 3회 50초만에 R.S.C 승으로 누르고 8강에 올랐다.

결승전 경기에서는 김현희(경희대) 선수가 양인덕(문성여상) 선수를 일반적인 공격으로 몰아 붙이며 계속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거두었다.

헤비급 준결승전에서 정완숙(성신여대) 선수는 정선웅(보영여중고) 선수를 1회 20초만에 K.O 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고현정(청산여상) 선수와 맞붙었다. 고현정 선수는 1회 52초만에 기권, 정완숙 선수는 헤비급 패권을 차지했다.

2. 여성태권도 활성화 방안

전국체전에 여자부경기채택 시급

이번 대회는 작년의 145명 출전에 비해 57%가 증가한 228명이 출전했는데 이를 체급별 및 참가선수 구성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체급별 현황

체 급	중 량	1986	1987	작년대비증가율
핀 급	43kg까지	22	33	+ 50 %
플라이급	43kg초과 47kg까지	218	32	+ 78 %
벤 텀 급	47kg초과 51kg까지	29	45	+ 55 %
페 더 급	51kg초과 55kg까지	25	35	+ 40 %
라이트급	55kg초과 60kg까지	21	32	+ 52 %
웰 터 급	60kg초과 65kg까지	15	23	+ 53 %
미 들 급	65kg초과 70kg까지	9	15	+ 67 %
헤 비 급	70kg초과	9	13	+ 117 %
계		145	228	+ 57 %

참가선수 구성비율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부
점유율	49	151	20	8
	21.5	66.2	8.8	3.5

또한 이번 대회 출전선수를 시도별로 나누어 보면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나 충남, 대구, 전북, 경남, 충북, 강원도, 제주도 등의 순으로 각 시도별 유망주들이 출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여성 태권도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활성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많은 국내외 태권도 대회를 통해 여성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왔고 88서울 올림픽에서 남자부와 함께 시범종목으로 출전하는 등 여성태권도는 남성 전유물의 시대를 떠나 여성의 투기종목으로서 활성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86년도의 국내외 여자대회 개최현황을 보면 국내대회 7차례에 881명, 국제대회 2회에 75명 등 9차례의 대회에 956명이 참가했다.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여자 태권도는 88서울올림픽의 시범종목으로 남자선수와 나란히 출전할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7일부

’86년도 국내외 여자대회 개최현황

순번	대 회 명	일 시	장 소	참 가 선 수	비고
1	'86년도 여자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2.24	문 화 체육관	134	국내 대회
2	'86년도 전국여자개인 선수권대회	5.22-23	국기원	145	"
3	제 13회 중·고연맹 회장기 생탈대회	4.14-18	"	213	"
4	제 13회 전국대학 태권도대회	4.25-26	"	26	"
5	제 22회 협회장기생탈 중·고 개인대회	7.21-26	"	227	"
6	제 9회 대학연맹 회장기 생탈전	8. 8- 9	"	28	"
7	제 10회 연대총장기 생탈전	10.6- 8	연세대	108	"
8	제 7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4.18-20	호 주 다아윈	7개국 47	국제 대회
9	제 1회 세계대학 선수권대회	11.28-30	미 국 버클리	5개국 28	"
계	9 회			956명	"

터 11일까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경기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제1회 여자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자부 경기는 85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선보인 이래 이번 제1회 여자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해 여성 태권도는 바야흐로 세계 여성의 투기 종목으로 활성화되리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여성태권도의 국제화 추세에 대비하고 여자태권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창설된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는 올해로 2회째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태권도의 활성화 방안을 보다 근본적인 방향에서 생각해 볼 때 전국체전에 여자 태권도 종목 채택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태권도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세계선수권대회는 물론 아시아선수권대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여성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경기가 치루어지는데 반해 국내의 전국체전에 여자부 경기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한편 본 협회에서는 '87년도 정기대의원총회시에 「전국체전 여자부 경기 채택으로 국내여성태권도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에서의 여자부 경기에 대비하자」는 안이 채택되어 관계 기관과 협의를 모색하고 있다.

② 여성태권도 지도자에 의한 여성태권도 발전기대
이번 대회를 통해 볼 때 여성 심판 및 코치의 등장은 여성태권도 발전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이 태권도인들의 진단이다.

전국가대표선수로 활약했던 임신자와 전오순이 각각 문성여상과 부천동여중 코치로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그동안 여성태권도인의 지도와 수련을 남자태권도인들이 수련시켜 왔는데 비해 여성태권도인에 의한 후배양성은 신체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으리라는 것과 아울러 여성태권도인 스스로가 여성태권도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여성 태권도 발전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하리라는 것이 예상된다.

또한 여성 심판원의 등장도 여성 태권도인의 부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성 태권도인들의 태권도 3급 지도자교육, 2급 경기지도자교육, 심판교육 등에 참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성 태권도인들이 여성 태권도의 발전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태권도인들의 모

임인 「태권남자회」를 창설해 단합된 힘을 모으고 구심점을 찾는 일환으로 회보인 「태권남자」를 발간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태권도의 국제화추세 및 여성태권도인의 태권도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여성태권도의 활성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입 상 자 명 단

체급	등위	성명	소속
핀	1위	원 선 진	수 성 여 중
	2위	이 화 진	청 산 여 상
	3위	송 갑 남	고 양 여 중 고
급	3위	양 은 정	청 산 여 상
플	1위	이 영	경 회 대
	2위	안 회 정	유 도 대
	3위	추 난 룰	청 산 여 상
라	3위	조 인 경	고 양 여 중 고
밴	1위	박 선 영	경 회 대
	2위	박 현 숙	고 양 여 중 고
	3위	박 연 실	성 신 여 대
금	3위	박 정 희	부 천 동 여 중
페	1위	김 소 영	성 신 여 대
	2위	진 혜 윤	문 산 여 중
	3위	정 은 옥	인 천 체 고
더	3위	최 현 미	천 안 동 여 중
라	1위	이 은 영	경 회 대
	2위	남 정 동	청 산 여 상
	3위	박 진 경	인 천 체 고
트	3위	이 현 화	청 산 여 상
웰	1위	오 현 주	이 화 여 대
	2위	이 정 립	인 천 체 고
	3위	김 경 미	문 성 여 상
터	3위	고 재 경	성 신 여 대
금	1위	김 현 희	경 회 대
	2위	양 인 덕	문 성 여 상
	3위	김 미 화	인 천 체 고
미	3위	이 진 희	이 화 여 대
들	1위	정 완 숙	성 신 여 대
	2위	고 현 정	청 산 여 상
	3위	정 선 영	보 영 여 중
금	3위	백 미 라	인 천 체 고



1987년도 전국 여자개인 선수권대회 출전선수 228명 중 가장 나이 어린 13살의 수상여중 1학년인 원선진양은 149.5cm의 키에 40kg의 몸무게로 핀급에 출전해 1회전부터 결승까지 6번의 경기를 치루며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언니들을 큰 점수차로 이기고 핀급 정상에 올랐다.

원선진양은 특히 앞돌려차기, 찌기, 뒷차기 등 다양한 기술을 득점으로 연결시켜 게임당 평균 4득점을 올린 득점왕(?)이기도 했다.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예리한 판단력, 상대의 허점을 이용하여 끌어들이는 감각은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련함이라고 주위의 칭찬을 받았다.

6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다는 원선진양은 8년의 수련을 쌓아오는 동안 국민학교 4학년 때 태권왕 겨루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6학년 때인 지난해 6월 잠실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어린이 태권왕겨루기 대회에서는 남자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우승을 하기로 했다.

태권도의 정상을 차지한 원선진양은 공부도 잘해 국민학교때 전교 3등으로 졸업했고 중학교에서는 반에서 1,2등을 다투는 우등생이기도 하다.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은 '남들 될 때 나는 한다'는 각오로 평소에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원선진양의 생활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교과목 중에서는 「지리」과목이 특히 좋다고 하는데 이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고 많은 지역마다의 특색 등 다양한 것을 배우게 되어 무척 흥미가 있다는 것이다.

운동시합 때는 수업을 빠져야 하는데 어떻게 진도를 따라가느냐는 물음에 원선진양은 시험마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의 노트필기를 참고하고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고3, 중3에 다니는 언니들에게 물어보면 언니들이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특히 "운동 때문에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다부진 말 한마디에서 오늘의 원선진이가 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일면을 엿보게 한다.

보통 하루 일과는 학교수업 후 체육관에 가서 2시간의 태권도 수련을 빠짐없이 하고 집에 돌아와 8시 30분 경부터 보통 1시까지 4시간 가량 공부를 한다고 들려주었다.

하루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원양은 하루가 너무 짧다고 한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겠는가고 물으니가 "아마 살이 조금은 쪼려했지요"라고 말한다.

원선진양은 이번 대회에서 핀급 우승을 차지한데 대해 아버님과 최국환, 김흥기코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시합 때 늘 아버지가 동행하며 코치 겸 트레이너로 원양을 지도해 왔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경기 첫날에 아버지가 코치석에 앉아 원양의 경기를 지도하기도 했다. 아버지 원병태(49세)씨는 6.25사변직후 3년 동안 태권도 수련을 한 바 있는 태권도인으로 누구보다도 원양과 호흡이 잘 맞는 스승과 제자 사이이다.

한편 국민학교 6학년때 성남에서 수원으로 이사는 원양 지도해온 매원체육관의 김흥기 사범은 원양의 자질을 계속 살려 국가대표선수로 클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한다.

태권도 외에 농구를 좋아한다는 원양은 골박스에 10번 정도 공을 던지면 몇개정도 넣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하나도 넣지 못할 거예요"라고 수줍어 하면서 농구시합을 구경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귀엽고 초롱한 눈망울, 눈이 커서 겁이 많다는 원양은 앞으로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며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운동을 핑계로 공부를 등한히 하지 말 것과 공부만 하는 학생들에게는 태권도나 그밖의 여러 취미 운동을 해서 건강한 학생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소년체전에 국민학교부 정식종목되어 발전의 기틀다져야

제8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5월 16일~17일, 국기원



이 성 우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연맹 심판이사
서울 성일국민학교 교사

서영준 회장은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정의의 수호자, 질서의 수법자,
전통계승의 후계자로
성장해 주길 당부했다.

장차 이나라의 기둥이 될 전국의 어린이들이 평소에 닦아온 태권도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인 제8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가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남쪽끝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국민학교에서 강원도 원주 우산국민학교에 이르기까지 지방 24개교와 서울 27개교 등 51개교에서 총 611명의 어린이가 출전하였다.

대회 첫날에는 겨루기 체급별 예선전이 펼쳐졌고 대회 이틀째에는 각 학년별 품새대회가 겨루기 체급별 예선전을 마치고 오후 2시 10분부터 KBS 제2텔레비전의 실황중계하에 개최식이 시작되었다.

국교연맹의 서영준회장은 대회를 통해 전국의 어린이들이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정의의 수호자, 질서의 수법자, 전통계승의 후계자로 성장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은 황춘성 전무이사 가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태권도의 정신은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줄 것과, 태권도 지도자와 학부모는 어린이들이 씩씩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서울 한강국민학교의 김천규 어린이의 대표선서에 이어 미동국민학교 시범단 어린이들의 연무시범과 국가대표 정승환 선수와 유명식 선수의 시범경기는 관중과 시청자들에게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주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대회 첫날인 5월 16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실시된 각체급 계승실시에서는 58명의 어린이가 실격을 당했으며 핀급 예선전 경기를 시작으로 라이트급 16강전까지의 경기가 실시되었다.

대회 이틀째인 17일에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학년별 품새대회가 실시되었고 이어 웰터급 16강전부터 겨루기시합을 펼쳤다.

개회식에 이어 펼쳐진 각체급별 결승전은 예선과 준결승전을 치루고 올라온 어린이들이 각체급 챔피언을 차지하기 위해 열전을 펼쳤다.

●핀급 결승전경기에는 국정현(성남)과 이상우(청주북대) 어린이가 올라와 국정현이 우세한 경기와 공격으로 득점을 올려 승리를 장식했다.

●플라이급 경기에는 지진성(서울길동)과 양현호(서울광희) 어린이가 결승전에 올라 1회전에 각각 1득점씩을 올리며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으나 계속된 경기에서 우세하게 물고가며 득점을 올린 양현호가 승리를 거두었다.

●밴텀급 경기에는 이광원(서귀중앙)과 김성태(성남제2) 어린이가 결승전에 올라와 1회전에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으나 2회전에 김성태가 들어찍기로 이광원의 얼굴을 강타하며 득점을 올려 승리로 이끌었다.

●페더급 경기에서는 이상현(풍납)과 안명균(성남중앙) 어린이가 패권을 놓고 겨루었는데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친 이상현이 우세승을 거두었다.

●라이트급 결승전에서는 강명구(경기용인)와 나호동(경기용인) 어린이가 올라와 우세한 경기와 득점을 올린 나호동이 라이트급 챔피언이 되었다.

●웰터급 결승전에서는 임종혁(경기서릉)과 진준수(광희) 어린이가 대전을 벌였는데 임종혁이 1회전에 돌려차기, 2회전에 들어찍기로 득점을 올리며 웰터급 우승을 차지했다.

●미들급 결승전에는 유용열(경기서릉)과 김대일(길동) 어린이가 올라와 내려 찌기와 돌려차기 등 다양한 기술로 득점을 올린 유용열이 승리를 거두었다.

●헤비급 결승전에서는 최성주(서울개포)와 이동완(경기문산) 어린이가 올라와 대결했는데 최성주가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2회전에 이동완의 돌려차기에 맞아 득점을 빼앗겨 아깝게 지고 말았다.

이번 대회는 8회 대회이전의 태권왕겨루기대회가 행사위주의 경기였는데 반해 내실있는 태권도 경기를 치



성황리에 대회를 마친 국민학교연맹의 운영위원장들.

루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보겠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기량면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하였다고 본다. 전년도에는 선수들이 대부분 6학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년도 출전선수들이 대부분 졸업해 이번에 출전한 선수단은 대부분 학년초에 출전한 선수단은 대부분 학년초에 새롭게 구성되어 충분한 연습기간 없이 출전했기 때문이라고 일선 사법들은 분석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체력이 날로 향상되는데 비해 체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 태권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꾸준히 체력을 연마하고 태권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민학교에서 태권도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하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권도가 전국소년 체전에 정식종목으로 들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태권도를 수련할 정책적인 배려가 앞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학교 시절에 기초체력을 다지고 중등부, 고등부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함양해 중주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태권도인이 폭넓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겨루기부문단체성적

1위 : 서울 광희국민학교

2위 : 경기 서릉국민학교

3위 : 경기 용인국민학교

감투상 : 성남국민학교

장려상 : 청주북대 · 제주서귀중앙국민학교

충북덕산 · 진주상평국민학교

응원상 : 서울 개포국민학교

품새부문단체성적

1위 : 서울 쌍문국민학교

2위 : 서울 미동국민학교

3위 : 서울 불광국민학교

장려상 : 서울신석 · 인천 동암국민학교

겨루기부문개인상

최우수상 : 양현호(서울광희국민학교)

인기상 : 유웅열(경기서릉국민학교)

미기상 : 나호동(경기용인국민학교)



입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서영준 회장.

● 겨루기 체급별 입상자 명단

체 급 \ 순 위	1 위		2 위		3 위	
	성 명	학 교 명	성 명	학 교 명	성 명	학 교 명
핀 급	국 정 현	성 남	이 상 우	청주북대	강 명 성	한 강
					강 일 구	경기용인
플 라 이 급	양 현 호	광 희	지 진 성	길 동	이 규 일	쌍 문
					박 건 성	서귀중앙
밴 텀 급	김 성 태	성남제 2	이 광 원	서귀중앙	오 현 영	청주북대
					김 형 주	경기용인
페 더 급	이 상 현	풍 남	안 태 영	성남제 2	장 혁 수	마 포
					장 동 훈	청주북대
라 이 트 급	나 호 동	경기용인	강 명 구	경기용인	김 형 석	광 회
					조 진 호	옥 수
웰 터 급	임 중 혁	경기서릉	진 준 수	광 희	김 주 홍	경기검단
					김 정 택	성기인 석
미 들 급	유 웅 열	경기서릉	김 대 일	길 동	이 세 영	원주우산
					김 운 관	인천동암
헤 비 급	이 동 완	경기문산	최 성 주	개 포	고 맹 진	성남상원
					조 정 식	경기용인

● 품새 부문 입상자 명단

입상 학년	금 상	은 상	동 상
1 학 년	박 기 춘(서룡)	설 민 수(개포) 손 호 형(쌍문)	박 종 화(쌍문) 윤 회 준(개포) 황 상 훈(광희)
2 학 년	박 창 호(쌍문)	박 정 진(동암) 김 영 란(한강)	강 성 주(쌍문) 설 재 훈(개원) 노 태 완(보광)
3 학 년	이 국 성(쌍문)	한 상 욱(불광) 김 군 홍(신석)	신 회 중(동암) 조 일 구(한강) 이 종 걸(미동)
4 학 년	이 창 석(불광)	심 재 우(쌍문) 남 상 범(미동)	김 의 룡(신석) 임 상 민(개포) 김 재 오(중동)
5 학 년	진 병 선(미동)	박 상 훈(불광) 강 성 권(미동)	최 진 권(진주봉곡) 하 성 민(미동)
6 학 년	최 만 용(쌍문)	김 평 일(미동) 김 종 용(쌍문)	임 성 기(불광) 박 영 식(신우) 이 국 일(쌍문)

선의의 경쟁 펼친

강명구·나호동 / 경기용인국민학교

라이트급 결승전에 오른 강명구와 나호동 어린이는 용인국민학교 같은 반에 다니는 절친한 친구 사이.

1학년 때 학교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강명구와 나호동은 각각 3품을 따냈으며 김두희 사범으로부터 오전에 1시간, 오후에 3시간씩 대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태권도를 지도받았다고 한다.

이번 대회에서 나호동이 라이트급 태권왕이 되었으나 평소 실력은 막상막하라고 한다. 공부도 1,2등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우등생이고 나호동은 반장, 강명구는 전교어린이회장으로 학교일도 함께 하는 선의의 경쟁자이다.

1학년 품새부문 1위

박기춘 / 경기서룡국민학교

박기춘어린이는 1학년 품새대회에서 정확한 태권도 동작으로 1위를 차지하여 박수를 많이 받았다.

유치원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해 지금 1품인 박기춘어린이는 아버지의 권유로 태권도를 시작했다고 하며 아버지의 성함을 묻자 “박자, 천자, 덕자입니다”라고 도박 도박 말하며 태권도 어린이의 예의 범절을 보여 주어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용인중학교 체육주임이며 배구감독인 박천석씨의 장남인 박기춘 어린이는 앞으로 과학자가 되겠다고 했다.

중고연맹창립이래 최대규모자랑 태권도의 중추적 역할과시

제14회 한국 중·고태권도연맹회장기 쟁탈대회

4.27~5.2, 국기원



윤태곤 / 중고연맹 경기분과위원장
전동중교사

제14회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 쟁탈대회가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국기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고등부 745명, 남자중등부 294명, 여자고등부 198명, 여자중등부 70명 등 총 1,307명이 출전하였으며 부별 참가학교 현황을 보면 남고부 56개교, 남중부 24개교, 여고부 26개교, 여중부 23개교로 총 129개 학교가 참가해 중고연맹이 창립한 이래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태권도의 중추적 역할을 과시하였다.

대회 첫날 오후 2시에 시작된 개회식에서 황호순 중

고연맹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선수들이 세계태권도를 주도해 나갈 내일의 주인공됨을 인식하고 정정당당히 힘과 기량을 겨루어 그 어느 대회보다도 모범적인 대회가 되도록 당부했다. 또한 본 대회 우승자와 우수자 중에서 최종선발전을 통해 해외 원정대표 선수를 선발해 해외친선 원정경기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은 엄운규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5명의 고등학생이 출전하여 국가대표 1, 2, 3진에 고루 입상하는 패거리를 올렸음을 상기시키며 출전 선수들이 기량을 갈고 닦아 '88서울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국가대표선수로 성장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식에서 황호순 중고연맹 회장은 노상석 초대 전무이사과 현 김인수 전무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고 김운용 대한태권도 협회장은 조현길, 박주호 중고연맹 실행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경기에 앞서 개막식 행사에는 은광여고생들의 태권도 탈춤과 성암여상의 고적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대회 첫날은 남녀중고등부의 285명이 경기에 참가해 1차 예선전을 펼쳤다. 남자고등부의 경우 핀급에 151



남자 고등부 우승자들

명, 플라이급에 128명, 밴텀급에 147명, 페더급에 117명 등이 참가해 가장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대회 이틀째 경기에서는 남자 고등부 플라이급에 출전한 김현철(풍생고) 선수가 김상식(기장공고) 선수를 1회 54초만에 뒤돌려차기로 몸통을 공격하여 R.S.C승으로 누르고 2차예선전에 올랐다. 또한 조정현(풍생고) 선수도 배강식(위례상고) 선수를 3회 1분10초만에 얼굴공격으로 R.S.C승을 거두고 2차전에 올라가는 등 남자 고등부 경기에서는 플라이급 경기가 위력을 과시했다.

한편 여고부 페더급 8강전에서는 정은옥(인천체고) 선수가 송혜경(청산여상) 선수에게 2회 1분만에 R.S.C승을 거두고 4강전에 오르며 유력한 우승후보로 각광을 받기도 했다.

대회 3일째 경기는 입상권 진입을 놓고 남중부와 남고부 경기가 더욱 더 치열하게 펼쳐졌다.

중등부의 L.헤비급경기에서는 김형봉(쌍문중)선수가 조용대(공릉중) 선수를 1회43초만에 앞돌려차기로 턱을 공격하며 K.O승을 거두고 입상권에 진입했고 고등부 경기에서는 페더급에서 K.O승과 R.S.C승이 속출하는 가운데 열전을 펼쳤다.

이제비(풍생고) 선수는 2회 1분23초만에 몸통앞돌려차기로 권도영(환일고) 선수를 K.O시켰고, 이상규(환일고) 선수는 김용홍(성공회공) 선수를 맞아 3회 38초만에 R.S.C승을 거두었다. 또한 이재화(함도실고) 선수는 조대홍(군산중앙고) 선수를 오른발 앞돌려차기로 다운시키며 R.S.C승을 거두었다.

한편 박종철(완산고) 선수는 예선1차전에서 김규필(성일고) 선수에게 1회 50초만에 얼굴돌려차기를 강타

시키고 R.S.C승을 거두고 2차전에 오르며 계속해 다양한 기량과 정확한 공격으로 득점을 올리며 승승장구해 '떠오르는 별'로 각광을 받았다.

대회 4일째 경기는 남자고등부 페더급 3차예선전(32강전) 경기를 시작으로 헤비급 8강전경기까지 펼쳐졌다.

헤비급 1차 예선전에서 이성호(오성고) 선수는 심민수(강동고) 선수를 맞아 돌려차기를 강타시키며 1회 40초만에 K.O승을 거두고 2차전에 올라 김진우(경상공고) 선수를 계속 물리치고 8강전에 올랐으나 김봉근(부산체고) 선수에게 판정패 당하여 아깝게 탈락했다.

대회 마지막날 경기는 남녀중고등부에서 예선전을 통과하고 막강한 실력을 과시하며 올라온 선수들이 체급별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팽팽한 대결을 펼쳤다.



여자 고등부 우승자들

남자중등부 경기 중 미들급 결승전에서 정래옥(한영중) 선수와 김호(동성중) 선수는 1,2회전에 득점이 없는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으나 3회전에 김호선수가 뺏다 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림으로써 미들급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헤비급 결승전에서는 원의선(경수중) 선수가 모진석(풍생중) 선수를 강력한 앞발들어찍기 등을 구사하며 득점을 얻어 승리를 거두었다.

남자고등부 웰터급 결승전에서는 진정우(부산체고) 선수가 김재호(전남체고) 선수를 맞아 앞발들어차기와 뒤돌려차기 등 다양한 기술과 체력을 이용하여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여고부라이트급 결승전에서는 같은 인천체고 동료인 박진경 선수와 안경숙 선수가 대전을 펼쳐 1회전

에 공격다운 공격과 수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점을 당하기도 하는 가운데 안경숙 선수가 승리했다.

웰터급 결승전에서는 박혜영(인천체고)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기권함으로써 이진아(청산여상) 선수가 가볍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 고등부 단체우승 2연패를 자랑하던 동성고등학교는 성동고등학교에 우승기를 넘겨주고 준우승에 머물러 3연패의 꿈이 좌절되었다.

한편 여고부 단체우승은 인천체고가 차지, 전년도에 이어 연속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남중부 우승자

■ 입상자명단

● 남중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핀급	1	국정훈	풍생중
	2	문성대	경수중
	3	이광철	한영중
	3	소병관	동성중
플라이급	1	진광섭	풍생중
	2	김창균	한영중
	3	김건일	동성중
	3	홍성철	선덕중
밴텀급	1	조재성	한영중
	2	정현호	풍생중
	3	맹영석	한영중
	3	한일수	동대문중
페더급	1	김현용	배명중
	2	박경화	구월중
	3	정종서	경수중
	3	최용훈	동성중
라이트급	1	이동수	한영중
	2	양병권	동성중
	3	김민수	동성중
	3	한만수	동대문중

라이트 웰터급	1	강용석	동성중
	2	이영훈	한영중
	3	이기영	풍생중
	3	김용환	동성중
웰터급	1	한주섭	한영중
	2	서승민	구월중
	3	이신영	풍생중
	3	김효경	동성중
라이트 미들급	1	김길훈	영북중
	2	이봉춘	한성중
	3	최영남	구월중
	3	최원영	문산중
미들급	1	김호	동성중
	2	정래욱	한영중
	3	신용현	신흥중
	3	김석길	선덕중
라이트 헤비급	1	송충영	구월중
	2	황혁모	풍생중
	3	김현봉	쌍문중
	3	안금호	구월중
헤비급	1	원익선	경수중
	2	모진석	풍생중
	3	박경석	공릉중
	3		

●여중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밴 텀 급	1	정 현 아	창 덕 여 중
	2	김 보 영	천 안 동 여 중
	3	서 연 화	천 안 동 여 중
	3		
페 더 급	1	원 선 진	수 성 여 중
	2	윤 지 은	인 화 여 중
	3	원 성 연	천 안 동 여 중
	3	최 순 향	천 안 동 여 중
라이트급	1	구 호 원	남 인 천 여 중
	2	박 은 주	역 삼 중
	3	최 희 정	천 안 동 여 중
	3	박 경 숙	서귀중앙여중
라 이 트 웰 터 급	1	김 은 숙	천 안 동 여 중
	2	김 경 애	상 인 천 여 중
	3	박 정 미	창 덕 여 중
	3	김 현 미	역 삼 중
웰 터 급	1	권 혁 실	상 인 천 여 중
	2	박 정 희	부 천 동 여 중
	3	이 경 숙	북 인 천 여 중
	3	김 지 향	미 성 중
라 이 트 미 들 급	1	진 혜 윤	문 산 여 중
	2	전 회 경	부 천 동 여 중
	3	박 선 희	송 의 여 중
	3	조 인 영	역 삼 중
미 들 급	1	이 선 희	상 인 천 여 중
	2	이 은 주	북 인 천 여 중
	3	강 혜 연	구 월 중
	3	박 경 희	문 산 여 중
해 비 급	1	전 순 재	북 인 천 여 중
	2	최 지 영	상 인 천 여 중
	3	이 상 희	상 인 천 여 중
	3		

●남고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강 윤 석	풍 생 고
	2	권 태 호	동 성 고
	3	윤 철	전 북 체 고
	3	정 동 현	서 울 체 고
플라이급	1	권 혁 선	신 탄 진 고
	2	조 영 남	동 성 고
	3	이 기 현	함 도 실 고
	3	권 영 수	성 동 고
밴 텀 급	1	강 창 모	동 성 고
	2	임 승 찬	성 동 고
	3	김 기 선	예 산 고
	3	조 준 원	동 성 고
페 더 급	1	김 병 갑	성 동 고
	2	이 종 은	성 동 고
	3	김 한 진	경 상 공 고
	3	이 제 범	풍 생 고
라이트급	1	장 혁	서 울 체 고
	2	박 진 석	성 동 고
	3	정 호 영	경 상 공 고
	3	박 병 선	전 남 체 고
웰 터 급	1	진 정 우	부 산 체 고
	2	김 재 호	전 남 체 고
	3	이 원 호	한 성 고
	3	임 진 남	함 도 실 고
미 들 급	1	공 두 환	성 동 고
	2	공 한 섭	경 상 공 고
	3	도 한 진	함 도 실 고
	3	이 상 근	송 실 고
해 비 급	1	박 희 석	성 동 고
	2	배 영 태	전 북 체 고
	3	김 병 기	송 곡 고
	3	김 봉 근	부 산 체 고

● 여고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김 민 정	천 안 여 고
	2	장 이 숙	청산여자상업학교
	3	이 희 진	청산여자상업학교
	3	이 유 정	문 산 여 중 고
플라이급	1	강 경 숙	청산여자상업학교
	2	장 복 순	문 산 여 중 고
	3	추 난 룰	청산여자상업학교
	3	강 민 정	경 남 체 고
밴 텀 급	1	박 현 숙	고 양 여 중 고
	2	신 숙	청산여자상업학교
	3	정 유 경	청산여자상업학교
	3	김 미 숙	문 성 여 상
페 더 급	1	정 은 옥	인 천 체 고
	2	이 현 화	청산여자상업학교
	3	김 경 숙	문 산 여 중 고
	3	박 현 순	영 북 중 고
라이트급	1	안 경 숙	인 천 체 고
	2	박 진 경	인 천 체 고
	3	노 경 미	문 산 여 중 고
	3	남 정 동	청산여자상업학교
웰 터 급	1	박 애 란	인 천 체 고
	2	박 혜 영	인 천 체 고
	3	송 민 준	익 산 중 고
	3	장 철	청산여자상업학교
미 틀 급	1	양 인 덕	문 성 여 상
	2	방 경 애	청산여자상업학교
	3	박 정 미	인 천 체 고
	3	김 미 화	인 천 체 고
헤 비 급	1	이 성 미	문 성 여 상
	2	김 지 연	배 성 여 상
	3	고 현 정	청산여자상업학교
	3	김 기 욱	청산여자상업학교



여중부 우승자.

■ 단 체 상

남고부

- 우 승: 성동고등학교
- 준우승: 동성고등학교
- 3 위: 풍생고등학교
- 감투상: 서울체육고등학교
- 최우수선수상: 김병갑 (성동고등학교)

여고부

- 우 승: 인천체육고등학교
- 준우승: 문산여자종합고등학교
- 3 위: 청산여자상업학교
- 감투상: 고양여자종합고등학교
- 최우수선수상: 박진경 (인천체육고등학교)

남중부

- 우 승: 한영중학교
- 준우승: 풍생중학교
- 3 위: 동성중학교
- 감투상: 구월중학교
- 최우수선수상: 한주섭 (한영중학교)

여중부

- 우 승: 상인천여자중학교
- 준우승: 천안동여자중학교
- 3 위: 북인천여자중학교
- 감투상: 문산여자중학교
- 최우수선수상: 권혁실 (상인천여자중학교)

기량과 체력에서 항상보인 박진감 넘친 경기펼쳐

제14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5.30~31, 국기원



최인범 / 대학태권도연맹
전무이사

오천년 역사의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자라난
태권도가 한국의 영토를 벗어나
세계인의 사랑받는 무도로서
성장

한국 대학 태권도 연맹에서는 1987년 5월 30일 부터 31일 까지 국기원에서 제14회 전국 대학 태권도 개인 선수권대회를 실시하였다.

대회사에서 김한주 회장은 우리나라 오천년 역사의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자라난 태권도가 한국의 영토를 벗어나 세계인의 사랑받는 무도로서 세계인의 스포츠로 성장한 지금 '88올림픽을 앞두고 기성 세대가 대학인들에게 거는 기대를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대학 선수로서의 등용문이요, 학교의 명예를 짊어진 격전지 이기도 한 본대회에는 23개교에서 256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남자부 A조, B조, 여자부로 나누었고 A조는 각종 전국규모의 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로, B 조는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로 구분하여 토너먼트식 개인전으로 진행되었다.

첫날 경기는 A조 128번, B조 15번, 여자부는 5번까지 실시하였는데 경기번호 70번의 플라이급 2회전 경기에서 김철호(한국체대) 선수와 김준태(경희대) 선수의 경기는 두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막상막하의 경기를 하였으나 김준태 선수의 특점승으로 판정되어 관중들의 시선을 모았다. 경기번호 121번의 플라이급 이창석(청주대) 선수와 이진우(홍익대, 전국구대표) 선수의 경기에서는 1,2회전에서 이창석 선수가 우세한 경기를 펼쳤고, 3회전에서는 팽팽한 대결을 펼치던 중 이진우 선수의 앞발내려찍기가 이창석 선수의 얼굴에 적중되어 이진우 선수의 승리를 예견했으나 3회전 종료를 20초 앞두고 이창석 선수의 원발돌려차기가 성공하여



김한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기성세대가 대학인들에게 거는 기대를 깊이 인식, 최선을 다해줄것을 당부했다.

이창석 선수의 승리로 결정났다. 이경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로서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다.

또한 경기번호 20번 밴텀급의 이병용(명지대) 선수는 체력의 우세를 이용하여 전 국가대표인 함준(한국체대) 선수를 판정으로 눌러 이기는 이변을 낳았다.

이른제 경기중 A조 결승전인 플라이급의 김준태(경희대) 선수와 이창석(청주대) 선수의 경기에서는 이선수가 체력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김선수의 득점승으로 판정되어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저력을 과시하였다.

페더급 결승전에서 김병철(한국체대) 선수와 이용일(홍익대) 선수의 경기는 결승전답게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으나 김선수의 득점승으로 판정되었다.

여대부 페더급 결승전에서는 모미라(성신여대) 선수가 최형우(상명여대) 선수를 남자 선수들과 다름없는 내러찌기와 돌려차기 등의 깨끗한 발차기와 다양한 득점력으로 우승하였다.

금번 대회의 최우수선수상에는 A조 페더급 우승자인 김병철(한국체대) 선수가 차지하였다.

A조 경기에서는 12명의 세계 실격자가 발생하여 대학 선수들의 체중조절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경기마다 박진감이 넘치고 스타일이 있었으며 기량면이나 체력적인 면으로도 많은 향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도 기쁜일이라 할 수 있겠다.

최우수 선수상 김병철 (한국체대) 선수

■ 입상자 명단

▲ 남자 A조

체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1 위	오 대 환	계명대학교
	2 위	김 태 완	한국체육대학
	3 위	임 창 섭	경기대학교
급	3 위	박 진 영	동아대학교
플라이	1 위	김 준 태	경희대학교
	2 위	이 창 석	청주대학교
	3 위	이 종 현	경희대학교
밴텀	3 위	봉 인 섭	경기대학교
	1 위	김 영 준	동아대학교
	2 위	정 홍 주	성균관대학교
급	3 위	이 정 호	경기대학교
	3 위	오 영 주	한국체육대학
페더	1 위	김 병 철	한국체육대학
	2 위	이 용 일	홍익대학교
	3 위	신 용 호	대한유도대학
급	3 위	김 상 래	청주대학교
라이트	1 위	이 광 로	한국체육대학
	2 위	손 창 략	명지대학교
	3 위	김 종 열	대한유도대학
급	3 위	김 용 수	동아대학교
웰터	1 위	박 용 웅	경희대학교
	2 위	박 만 성	한국체육대학
	3 위	오 정 수	동아대학교
급	3 위	이 세 도	명지대학교
미들	1 위	이 화 상	동아대학교
	2 위	박 은 석	대한유도대학
	3 위	김 진 욱	계명대학교
급	3 위	남 명 회	한국체육대학
헤비	1 위	김 현 일	대한유도대학
	2 위	김 동 욱	한국체육대학
	3 위	이 성 우	동의대학교
급	3 위	여 준 기	명지대학교



남자선수들 못지않은 기량과
다양한 기술발휘로 박진감 넘친
경기를 펼친 여자부경기.

▲ 남자 B조

체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1 위	한 상 원	대한유도대학
	2 위	최 병 환	"
	3 위	김 원 태	인천전문대학
급	3 위	최 학 민	"
플라	1 위	장 재 훈	대한유도대학
	2 위	최 현 열	"
	3 위	홍 용 식	"
이	3 위	안 의 환	세 종 대 학
밴	1 위	성 인 호	경 회 대 학 교
	2 위	윤 장 원	인천전문대학
	3 위	박 재 호	대한유도대학
급	3 위	홍 석 균	인천전문대학
페	1 위	정 근 표	경 회 대 학 교
	2 위	황 선 호	인천전문대학
	3 위	강 복 민	목 포 대 학
더	3 위	홍 순 근	"
라	1 위	김 정 남	인 하 대 학 교
	2 위	유 병 호	세 종 대 학
	3 위	박 승 식	목 포 대 학
트	3 위	박 관 호	인천전문대학
웰	1 위	진 정 호	충 남 대 학 교
	2 위	신 현 성	인천전문대학
	3 위	박 정 배	세 종 대 학
터	3 위	김 동 한	대한유도대학
미	1 위	김 재 욱	동 아 대 학 교
	2 위	김 성 현	목 포 대 학
	3 위	원 장 연	인천전문대학
들	3 위	박 점 서	대한유도대학

▲ 여 자 부

체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1 위		
	2 위		
	3 위		
급	3 위		
플라	1 위	이 영	경 회 대 학 교
	2 위	안 회 정	대한유도대학
	3 위	이 은 정	인천전문대학
이	3 위	도 재 선	성신여자대학교
밴	1 위	박 선 영	경 회 대 학 교
	2 위	박 연 실	성신여자대학교
	3 위	오 현 진	상명여자대학교
급	3 위		
페	1 위	모 미 라	성신여자대학교
	2 위	최 형 우	상명여자대학교
	3 위	이 영 희	대한유도대학
더	3 위		
라	1 위	김 유 숙	성신여자대학교
	2 위	석 소 정	대한유도대학
	3 위	김 은 숙	인천전문대학
트	3 위	육 경 란	상명여자대학교
웰	1 위	오 현 주	이화여자대학교
	2 위	고 재 경	성신여자대학교
	3 위	나 진 아	인천전문대학
터	3 위	김 지 숙	경 회 대 학 교
미	1 위	김 현 희	경 회 대 학 교
	2 위	손 지 희	성신여자대학교
	3 위	이 진 희	이화여자대학교
들	3 위	최 지 숙	인천전문대학

“다같이

봄을 맞이하면서 각종 대회로 협회는 활기를 찾았고, 국기원은 선수들의 기합소리와 응원으로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신인선수들의 등용문인 춘계 종별개인 선수권대회를 필두로 국가대표선수 1,2차 선발전, 여자개인선수권대회, 여자국가대표선발전, 중고연맹대회, 국교연맹의 태권왕겨루기대회, 전국대학태권도대회 등 각종 대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선발전에서 2진으로 선발된 대표팀은 5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한 '87년도 월드컵대회에 출전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하였으며, 1진과 여자대표팀은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앞두고 각자 체력보강 및 기술훈련 등으로 경기력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태권도경기가 국내외에서 활기를 띠을수록 우리는 중주국으로서의 태권도 경기의 권위를 높이고 발전의 기틀을 이루기위한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기점에 있다고 본다.

경기장에서 열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그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고 있다.

경기 자체가 투기종목으로서 경기내용으로 승패를 가름하여야 하므로, 승패의 가름에 있어서 선수 자신이나 심판이나 코치, 관객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판정으로 승패가 가름되면 아무 탈이 없겠으나, 문제는 지나친 승부욕에 치우친 나머지 자기쪽으로만 이로운 방향으로 판단하는 코치의 「我田引水」격의 편견에서 이의가 제기되기도 하고, 심판의 실수에 의한 오판이나 주심의 경기운영등이 관객과 코치의 견해와 차이가 심할 때 문제거리로 지적되기도 한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태권도 경기의 건전한 발전과 활기찬 경기장 풍토



한규인 / 홍보실장

생각해 봅시다”

를 조성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해답은 경기장내의 문제부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각종 훈련을 통하여 값진 땀을 흘려왔고, 수련과정에서의 뼈를 깎는 자기극복을 체험하였다고 본다. 선수들은 그 댓가로 경기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정당한 관정으로 승패의 결실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얻어야 한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으로 경기에 임한 선수들은 투혼을 불사하며 맡겨진 기량을 펼치고 심판의 판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훌륭한 선수 뒤에는 참다운 지도자가 있다. 바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훈련의 내용에서부터 체력관리, 기술훈련등을 과학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철저한 사명감과 덕성이 신망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수들의 가슴에 와 닿을때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것이다.

지도자는 시합에 이겼을 때 칭찬해 주고 졌을 때는 다음 대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격려해 주어 태권도 수련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이고, 선수들의 장래의 진로를 열어주어 지도자로서의 철저한 사명 의식을 선수들에게 보여줄 때 선수들은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들이다.

물론 이의를 제기하는 「어필」의 원인 제공은 심판원의 판정에서 시작된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객관성을 잃은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된 코치의 오판에서 발생 할 수 있고, 심판원의 오판이나 정실에 치우친 의도적(?)

인 판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때 지도자는 심한 「어필」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경기판정에 대한 이의를 소청위원회에 제기하여 공정한 심의를 받음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청 위원회에서는 배심의 분류착오나 채점표의 의문점을 확인하여 시비를 가릴수 있으나 있어서는 아니될 의도적(?)이거나 정실(?)에 치우친 묵계된 심판의 불공정한 양심까지의 심사할 수 없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판원의 엄정중립의 마음 가짐하에서 코치, 선수, 관중은 물론 판정을 내리는 심판원 자신까지도 객관적인 공감대를 이룰수 있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명정대한 마음은 심판원의 자격요건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배심은 법정의 재판장의 입장에서, 심판원은 법정의 판사의 입장에서 한치의 양심에 꺼리낌없는 판정을 내리는 것이 심판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는 길이며 선수들에게는 정당한 「플레이」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내려 줌으로서, 건전한 경기풍토 조성은 물론 태권도 발전의 저력을 쌓아가는 원동력이 됨을 심판과 코치는 명심하여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고도의 산업사회가 심화될수록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도덕심은 더욱더 내리막길을 하고, 교육적 환경은 어렵게만 되어가 사도(師道)가 땅에 떨어졌다는 개탄의 소리가 높다.

이러한 현실속에 태권도인들만이라도 예시예종(禮始禮終)의 태권도 정신을 살려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축하는데 전인차 역할을 다하여 태권도가 국가로서의 진가를 발휘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도의 등불을 지켜주는 스승(코치, 심판)이 경기장에 우뚝 서 있을때 경기장의 질서는 바로 잡히고, 태권도는 내일의 밝은 이점표가 마련 될 것이다.

국교태권도 발전의 전환점 신임 집행부 구성

한국국민학교연맹

1. 이사총회

국민학교 연맹은 4월 8일 총 18명의 이사 중에 신임 서영준 회장을 비롯한 16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교연맹 사무실에서 이사총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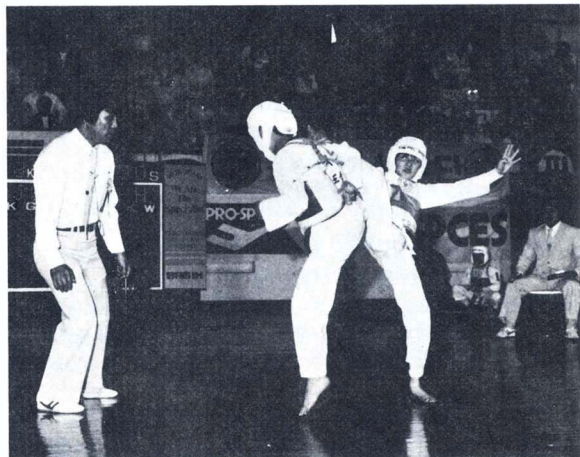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는 198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에 대한 승인과 1987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이 확정되었다.

국민학교연맹의 1986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5월 30일과 6월 1일 이틀간에 걸쳐 국기원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품새대회와 겨루기대회를 펼친 제7회 태권왕겨루기대회 둘째, 8월 7일과 8일 인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7회 체육부장관기대회. 셋째, 11월 2일과 3일 국기원에서 개최된 제12회 연맹회장기 겸 개인선수권대회를 들 수 있다.

한편 국민학교연맹은 1987년도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데 힘쓰기로 했다.

2. 신임 집행부 구성

국민학교연맹은 신임회장에 서영준 동양화학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신임임원단을 구성했다.



매년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해 개최되는 태권왕 겨루기대회에 출전한 어린이들은 닦아온 기량을 맘껏 펼쳐 내일의 주인공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1987년도 사업계획

순	기 간	사 업 명	비 고
1	5. 16 ~ 5. 17	제 8 회 태권왕 겨루기 대회	국기원
2	7. 11(토) ~ 7. 12(일)	제 8 회 체육부장관기 대회	"
3	8. 16 ~ 8. 17	임원 수련회	미 정
4	10. 17(토) 10. 18(일)	제 13 회 연맹회장기 겸 개인선수권 대회	국기원
5	12. 31	장학사업	

태권도 경기인 출신, 국교연맹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디딤돌 역할할터

3. 신입 서영준 회장

국민학교연맹의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서영준회장은 태권도 경기인 출신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기도 했었다. 현재 주식회사 동양화성 대표이사과 동양화학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기업인인 서회장은 「약13년만에 다시 태권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며 「아직 상황을 잘 모르는 가운데 각종 대회를 치루게 되어 걱정이 앞서긴 하지만 회장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이상 태권도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앞으로의 국교연맹 운영방

향에 대해서는 국교연맹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차기 회장은 돈있는 사람이 우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가꾸어주며 태권도 발전에 소명감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들의 태권도수련은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극기훈련을 통해 인내심을 키우는 무도정신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어린이 태권도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준 회장



이재곤 부회장



김종영 부회장



백무열 이사



임홍수 이사



전판선 이사



임대택 이사



남상덕 이사



노달선 이사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비고
회 장	서영준	동양화학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임
부회장	이재곤	(주) 스탠다드 대표이사	"
	지동원	서울 난우국민학교 교사	유임
	김종영	오성출판사 대표이사	신임
전무이사	주상일	서울 정목국민학교 교사	유임
총무이사	한구상	서울 삼양국민학교 교사	"
이 사	백무열	서릉상사(주) 대표이사	신임
	최진익	서울 대왕국민학교 교사	유임
	이성우	서울 성일국민학교 교사	신임
	전판선	광희국민학교 사범	"
	임대택	강서국민학교 사범	"
	정찬진	서울 개포국민학교 사범	유임
	이규형	서울 미동국민학교 사범	"
	남상덕	부양국민학교 사범	신임
감 사	노달선	보광국민학교 사범	"
	박석천	충효유치원 원장	"
	박성열	동아일보 기자	유임
	김용서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부회장	유임

한국중고태권도연맹

이사총회

중고연맹은 지난 1986년 12월 23일 연맹 사무실에서 재적이사 17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1986년도의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가 승인되었고 198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1986년도의 주요사업을 보면

첫째, 제13회 한국중고 태권도연맹회장기 대회를 실시하였는데 총 95개교에서 1천 72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성고, 인천체고, 동성중, 상원여중이 각각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둘째, 제22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쟁탈전 겸 제13회 개인선수권대회가 총 116개교에서 1천2백68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셋째,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4개국 해외 친선경기를 실시하였다.

한편 중고태권도연맹은 1987년도의 사업계획으로 두 차례의 국내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하였고 국제대회로는 매년 실시되는 해외친선경기를 차후에 계획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국내대회를 보면

첫째, 제14회 한국중고태권도연맹 회장기 쟁탈대회를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국기원에서 남녀 중고등부를 11체급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둘째, 제23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겸 제14회 개인선수권대회를 8



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기원에서 개최한다.

한편 중고연맹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있는 국제대회로는 동남아시아 순회 친선경기를 들 수 있다.

매년 해외친선경기를 통해 세계에 중주국 태권도의 얼을 심고 기상을 펼쳐온 중고연맹은 '88년 1월경에 한달간 예정으로 동남아시아 순회 친선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임원명단

직	위	성명	현직	업
회장		황호순	동삼건설 (주)	대표이사
부회장		손근수	사회체육센터	
		곽광훈	세광건설 (주)	대표이사
		이규성	사업	
전무이사		김인수	동성고등학교	교사
일반이사		이선구	영진실업	대표
		최태연	제일상사	대표
		김형문	영일섬유	대표
		정한길	서능건설 (주)	대표이사
실행이사		이현갑	대성고등학교	교사
		김찬희	대성중학교	"
		윤태곤	건동중학교	"
		김부영	고려중학교	"
		조헌길	한성고등학교	"
		박종식	동성중학교	"
		정해주	은광여고	"
		최재혁	배명중학교	"
		이충구	성암여상	"
		최권열	문영여중	"
		박주호	동대문상고	"
감사		이택명	서울시경사범	
		전재규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부의장

해외 친선경기 통해 종주국의 일심어



“미래의
주역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가장 값진
투자”

◇ 황호순 중고연맹회장

중고연맹의 사령탑 황호순 회장은 지난 '84년 1월에 회장에 취임한 이래 임기 4년째를 맞고 있다.

동삼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바쁜 와중에도 지난 '86년도만 해도 호주 다윈에서 개최된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선수단 단장으로 참가해 종합우승을 거두었고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4개국 해외 친선경기에 한국 중고연맹대표선수단을 이끌고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과 중고연맹주최의 각종 대회를 추진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

중고연맹회장이 쟁탈전만 해도 보통 5, 6백명이 출전하던 예년에 비해 날로 출전선수가 늘어나면서 중고 태권도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 국기원

에서 개최된 제14회 중고태권도연맹 회장기쟁탈대회만 해도 1천3백7명이 출전해 대규모 대회를 자랑했다.

이렇게 중고연맹이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하기까지는 황호순 회장을 비롯한 중고연맹 집행부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재정의 어려움을 감수한 회장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황회장은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국내대회 두차례 개최와 아시아지역 순회 시범경기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히며 중고태권도 연맹에서의 모든 일들이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준다는 보람을 갖게 한다면 금지와 자부심을 갖는다고 했다.

한편 중고연맹 주최의 각종 대회가 전국대회 규모로 각 체급별 우승자에게는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고태권도가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데 비해 여자 태권도는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여자태권도 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88서울을 립픽 시범 경기 등 각종 여자대회를 대비한 경기력향상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전국체전에 여자부 종목이 시급히 채택되어 전국적인 여성 태권도 활성화로 선수층을 폭넓게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은 많고 책임은 무겁지만 무엇보다 순수하고 밝게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 어느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값진 투자”라며 “더욱 더 중고연맹이 발전하도록 힘쓰겠다”는 황회장의 앞날에 건투를 빌어본다.

체육부장관기 신설계획 추진 한국대학 태권도연맹



지난해 미국에서 개최된
제 1 회 세계대학선수권 대회에 출전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남녀대학 대표선수단.



김 한 주 회장



김 노 언 부회장



박 흥 식 이사

1. 이사총회

대학연맹은 지난 1월 13일 오후 6시 시내 다리원에서 1987년도 이사 총회를 개최하여 1986년도의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에 대한 승인과 198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이날 총회에는 총 20명의 이사 중 김한주 회장을 비롯하여 노희덕 박충일 부회장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대학연맹은 1986년도의 사업보고를 통해 국내대회 개최로 첫째, 제13회 전국 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가 1986년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총 24개교에서 29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둘째, 제9회 연맹회장기쟁탈전 및 제2회 국제대학 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 선발전을 8월 8일과 9일 총 22개교에서 234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국제대회로는 제1회 세계대학생 선수권대회가 11월 29일과 30일 미국의 버클리대학 체육관에서 개최되어 남자부 경기에는 2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등을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여자부 경기에는 5개국이 참가하여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1987년도의 사업계획으로는 첫째, 제14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를 5월 30일과 31일 국기원에서 개최한다.

둘째, 제10회 회장기쟁탈 전국대학대학 태권도대회를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다.

그밖에 태권도 논문집 및 뉴스레타를 발간할 계획을 확정하였다.

대학연맹은 5월과 12월 두차례 뉴스레타를 발간할 예정으로 뉴스레타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데 각 대학태권도부의 소식이나, 태권도를 기기로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관련자료(연혁, 내용, 사진) 및 선수들의 특별한 소식을 연맹으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2. 체육부장관기대회 신설 계획 추진

대학연맹은 지난 4월 14일 실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학 태권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대학연맹 주최 대회 추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이날 실행이사회에서는 1987년도의 사업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나 체육부장관기 대회를

신설하여 대학태권도 대회의 활성화를 꾀하자는 안이 나와 국내대학 태권도의 활성화 방안과 세계대학 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한 경기력향상에 주력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에 대한 안건을 대한태권도협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대학연맹에 등록한 학교는 총 54개 대학으로 앞으로 각

대학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꾀하자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3. 신입 임원 선임

대학연맹은 이사회회의시에 신입 부회장에 김노언 용마건설(주) 대표이사, 실행이사에 정만순 청주대학교 교수, 이사에 박홍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그밖에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현 직 업
회 장	김 한 주	경 기 대 학 교 총 장
부 회 장	김 노 언	용 마 건 설 (주) 대표이사
	노 희 덕	서 울 대 학 교 교 수
	박 충 일	신 흥 인 쇄 (주) 대표이사
전무이사	최 인 범	경 기 대 학 교 교 수
실행이사	박 동 기	동 국 대 학 교 과 장
	이 규 석	대 한 유 도 대 학 교 수
	이 승 국	한 국 체 육 대 학 교 "
	윤 병 열	홍 익 대 학 교 "
	조 근 중	한 양 대 학 교 "
	정 찬 모	단 국 대 학 교 "
	최 영 렬	경 회 대 학 교 "
	정 만 순	청 주 대 학 교 "
이 사	고 홍 환	연 세 대 학 교 "
	김 계 홍	동양공업전문대학 "
	김 주 훈	조 선 대 학 교 "
	박 기 원	도서출판 삼신사 대 표
	박 홍 식	성신여자대학교 교 수
	임 미 자	이화여자대학교 "
	정 순 철	세 종 대 학 교 "
	정 행 도	명 지 대 학 교 "
	최 상 배	홍익공업전문대학 "
감 사	권 경 욱	대한태권도 협회
	신 광 균	기술심의회 의 장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제6기 태권도 지도자 2급 연수과정

체육부 장관상 고기관 사범 수상

제6기 태권도 지도자 2급 연수과정교육이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에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17일동안에 걸쳐 시행되었다.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에 대한 각종 이론 및 태권도 실기 교육이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총 137명이 수료하였다.

수료식에서는 고기관사범이 체육부장관상, 임재수사범이 대한체육회장상, 노용조, 김군수, 현상환, 유상철사범이 표창장을 받았다. 그밖에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경재, 한기광, 유기석, 박치순, 김영권, 김태욱, 좌민경, 김영승, 김광수, 오동택, 권태홍, 김원규, 김춘기, 서석원, 서인원, 고억만, 박필순, 오배균, 김보익, 명재승, 이상호, 장세순, 임재수, 김용수, 박계홍, 이시영, 윤물로, 박종부, 고기관, 신동룡, 김군수, 김선일, 홍성권, 이성철, 강도선, 유상철, 서경구, 김봉도, 배상수, 이범구, 김영민, 허영, 유효열, 이인재, 우규상, 박의순, 이병민, 노용조, 장이식, 김종화, 문병무, 최충순, 김성철, 강경래, 봉병선, 권오진, 최상철, 김형수, 배형한, 유서춘, 김생중, 남궁명옥, 이효섭, 김지화, 김종권, 홍재훈, 정진영, 정홍섭, 채홍국, 추해광,

배지영, 구홍식, 이진철, 엄상철, 노현우, 최덕규, 김병태, 송영돈, 이원대, 강현태, 정태진, 현상환, 강승길, 손용대, 광정래, 탁수덕, 김종호, 이규수, 박종만, 이정위, 안영걸, 한승만, 최영, 박현수, 김충열, 황정길, 조성담, 박수전, 최상윤, 양명복, 이희선, 이현태, 최오만, 이덕주, 서인오, 윤승한, 최종달, 김현진, 박경한, 이필호, 황동길, 권영욱, 박상호, 김기운, 김영환, 이종갑, 김양진, 김영덕, 김수곤, 신훈, 이재덕, 주영권, 정이곤, 정용택, 장희인, 배준우, 박동렬, 명규준, 윤석중, 최용길, 서봉석, 전오순, 남궁윤석, 신동용, 양종윤, 박노필, 이종호.



정상을 달리는 사람들

— 1987년도 국가대표선수 프로필 —



임성욱 ■ 선수들의 기량은 백지 한장 차이
핀 금 '88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목표

임성욱 선수는 1986년도에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서 핀급 2위를 차지하여 아시안게임 출전티켓을 놓친 바 있다. 당시 경북체고 3학년생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임선수는 한국체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종선 선수에게 1위를 빼앗긴 것이다. 그러나 국가대표 2진으로 미국에서 개최된 1986년도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1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국가대표선수 1진에 선발된 임선수는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라며 기쁨을 표하면서 도 전년도 석패의 안타까움이 되살아 나는 듯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았다.

운동선수답지 않게 착하고 순하게 생긴 임선수는 각 선수들의 기술, 기량의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상술했던 그 차이는 백지한장 차이라며 계속적인 노력과 기술개발만이 앞으로의 승패를 가름해 줄 것이라고 했다.

앞날 땀다 돌려차기가 주특기인 임선수는 특히 1차대표 선발전 준결승 때 윤희준 선수와의 경기에서 주특기가 주효했다고 한다.

대회 때는 머리, 손톱, 발톱 등은 절대 깎지 않는다던 임선수는 그동안 깎지못해 덩수룩한 머리를 금적이

며 시원하게 머리부터 깎겠다고 한다.

현재 계명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임선수는 계속 현재 중을 유지하고 기량을 갈고 닦아 '88올림픽 시범 경기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창모 ■ 고교선수로 유일하게
플라이급 국가대표 1진에 선발된 유망주

파이팅넘친 경기운영은 물론 신인선수답지 않게 다양한 기술로 노련한 선배들의 기를 꺾으며 저돌적으로 물고 들어가 플라이급 1위를 차지한 강창모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신예.

고등학생으로 유일하게 국가대표 정상에 올라선 강선수는 지난 86년도에 우수선수 선발대회에 2위로 선출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여 국가대표선수 1차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종선발전에 출전, 플라이급 패권을 차지하자 기쁘다는 말만 할 뿐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던 형을 따라다니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여 한영중학교에 태권도 특기자로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태권도 선수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한다.

돌려차기가 주특기라는 강선수는 김세혁 선생님의 지도대로 따랐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앞으로의 할 일이라며 겸손해했다.

동성고의 김인수 체육주임은 강선수를 「착실하고 차분한 성격에 교우관계도 좋다」며 칭찬한 뒤 「공부도 잘한다」고 덧붙혔다.

특히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동성고에서 4명의 선수가 출전, 태권도 명문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는데 선수들은 오전 수업 1시간전에 체력훈련, 수업후 2시간 반동안 기술훈련을 받는다고 하며 너무 무리한 운동시간은 오히려 선수들에게 역효과를 내기 쉽다고 한다.

동성고에서는 대회를 앞두고 비디오 상영 등으로 상대선수들의 기술분석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해 왔다고 하는데 특히 학교에서는 태권도를 교기로하여 전교생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태권도 교기학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시합을 앞두고 체중조절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합 때마다 체체실력자가 많은 것은 꾸준히 체계관리를 하지 않음에서 오는 문제라고 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할 때부터 우승하리라는 자신이 있었다며 기량이 좋고 까다로운 상대인 지용석 선수와의 대전이 어려웠다고 한다.

뒷차기, 앞발 빠졌다 차기, 360도 회전 앞돌려차기 등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유선수는 앞으로 대학원을 진학하여 계속 공부해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유명식 선수는 취미라고까진 말할 수 없지만 아버지를 따라 가끔 낚시를 다니는 것이 즐거운 일중의 하나라고 한다.



유명식 4년간 국가대표1,2진
밴 텀 급 꾸준한 체력관리 중요해

밴텀급 정상에 올라선 유명식 선수는 1984년도 국가대표 2위, 85년도 국가대표 1위, 86년도 국가대표 2위를 차지한 바 있는 실력파이다.

지난 해에 2진으로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진 못했지만 1986년도 월드컵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몸이 허약해 태권도 수련을 시작했다는 유선수는 대광중, 성동상고를 거쳐 학교체대에 재학 중이다.

선수들의 기술평준화로 승패를 가리기 힘든 요즈음은



정승환 태권도 선수로
페 더 급 순탄한 길 걷는 행운아

실업팀으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팀이 서울 지하철 공사 팀이다. 지하철공사팀은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3명이 참가하여 페더급의 정승환을 비롯 웰터급에 정국현 선수가 패권을 차지했고 플라이급에 전용환 선수가 대표선수 2진에 선발된 것이다.

한편 정국현 선수와는 전남 무안군 출신의 동향인이며 전남체고, 한국체대를 졸업, 지하철공사에 입사하기까지의 경로가 똑같은 1년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정승환 선수는 지난 2월 한체대를 졸업한 뒤 실업팀에 입사한 후 이번 대회에 출전하여 국가대표선수가 되어 남다른 감회에 젖었다.

지난 1986년도에는 국가대표 3위로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1위, 대통령기 쟁탈전 1위, 제67회 전국 체육대회 1위 등을 차지하며 계속 기술을 축적하여 체

력관리를 해오며 이번 대회에는 필히 국가대표 1위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출전했다.

주로 아침에 자전거를 타며 순발력을 보강하는 등 체력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페더급에 출전한 선수들은 그동안 계속 경기를 치루워왔던 터라 서로 장단점을 잘 아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루어 어려움이 없었으나 첫 경기를 치룬 윤정욱 선수와의 대전은 윤선수가 고등학교생으로 패기를 앞세운 저돌적인 공격은 물론, 신인이었기 때문에 상대를 잘 몰라서 예상외로 고전하였다고 털어 놓았다.

정선수는 뒤후리기가 주특기라며 경기에서 지고 있을 때 특히 뒤후리기로 결정타를 놓는다고 귀뜸한다.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 체육사회학을 전공하며 지도자의 길을 걸겠다고 한다.



양대승 3년의 각고끝에
라이트급 영원한 맞수 제치고 영광

다른 체급에서 국가대표에 선발되기 위해 열전을 치루며 패권을 차지한데 비해 라이트급의 양대승 선수는 쉽게(?) 국가대표선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이트급에 출전했던 5명의 선수 중 상무의 김찬구 선수를 제외한 4명의 선수가 한체대 선후배 사이로 비록 부실한 경기운영으로 비판을 받긴 했으나 양대승 선수는 늘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태권도 수련을 해왔으며 「한체대 선배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부터 먼저 했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해 지성체육관의 김경찬 사범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수련에 임했다고 한다.

공격적인 스타일로 오른발 받아차기가 주특기인 양대

승 선수는 1981년도에 전국 신인선수권대회 밴텀급 1위, 11, 1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미들급 2연패, 제6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웰터급 1위, 제20회 대통령기대회 라이트급 1위 등 밴텀급부터 웰터급까지를 두루 석권하기도 했다.

지나해에는 한체대 1년 선배인 박봉권 선수에게 밀려 라이트급 2위에 머물렀으나 고교선수로 대표선수 2진으로 선발되어 1986년도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라이트급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10대의 유망주이다.



정국현 재기한 태권도 스타
웰 터 급 조로(老老)하는 선수들에 쏘기

정국현 선수는 제5회, 6회, 7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3연패를 자랑하는 태권도계의 스타이다. 그러나 지난 86년도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박봉권 선수에게 완패를 내주고 탈락했을 때 세인들은 「이빨빠진 호랑이」라는 등 태권도 일인자의 생명이 끝이 난 것처럼 이야기들을 했었다. 그래서 이번 87년도 재기전은 과연 정국현 선수가 국가대표로 복귀할 것이냐로 대회이전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아야 했다.

정국현 선수는 노련한 경기운영과 다양한 공격으로 어느 선수보다도 많은 득점을 올리며 화려한 복귀를 했다.

“오랜 선수 생활을 정리한다는 생각에서 한게임 한게임 성실하게 임하였다”는 정선수는 실업팀인 지하철공사에 입사한 후 선수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뼈를 깎는 체력훈련과 기술훈련을 해왔으며 87년도를 명예롭게 선수생활을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정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 대부분이 득점위

주의 경기만을 펼치는 것 같으며 아쉬움을 표하고 아무리 승패가 선수들에게 중요하진 않지만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여 관중에게도 호응을 얻는 태권도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앞차기공격이 주특점 구실을 해주었다는 정선수는 이번 대회를 대비해 자신의 주특기인 회전 앞돌려차기와 들어오는 상대선수의 앞차기 등을 중점훈련했다고 한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정선수는 학업을 마친 후 학교 체육의 지도자가 되어 후학을 지도하는데 모든 정력을 쏟고 싶다고 한다.

시합 때는 저돌적인 공격형이라 「펄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이번 대회에는 공격이 쉽지 않아 득점을 별로 내지 못했다며 안타까와 하기도 했다.

조선대 대학원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계행 선수는 계속 공부해 지도자의 길을 걷겠다고 한다.



고영철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헤비급 태권도 지도자가 꿈

고영철 선수는 1미터 87센티의 좋은 체격으로 노신, 이정진, 임재역 선수 등을 이기고 3승 1패의 전적을 올리며 헤비급 왕자가 되었다. 고선수가 기록한 1패는 강승우 선수와의 경기에서 1회전에 강선수가 1득점을 올리며 기선을 잡은 것을 2회전에 고선수가 우세하게 밀어 붙이고 3회에도 계속 우세하게 물고 갔으나 득점과 연결시키지 못해 안타깝게 1패를 기록한 것이다.

고영철 선수는 헤비급 왕좌를 탈환하게 되어 기쁘지만 강승우 선수에게 설욕전을 장식하고 싶었는데 득점에 밀려 패했다며 무척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고영철 선수는 1981년도 전국 신인선수권대회에서 1위한 것을 시발로 84년도에 헤비급 대표선수가 되었고 제6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던 고선수가 86년도의 침체에서 벗어나 대표 선수로 복귀하기 위해 유도학교 후배들과 꾸준히 연습해 오다가 이번에 국가대표로 복귀한 것은 노력에 대한 당연한 댓가라고 할 수 있다.

돌려차기, 내려찍기 등이 주특기인 고선수는 동국대 대학원 체육학과에 재학 중이며 유도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능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이계행 '86 국가대표 선수중
미들급 유일하게 국가대표로 복귀

지난해 국가대표선수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중 유일하게 국가대표선수 1위로 선발된 이계행 선수는 85년, 86년, 87년 3년째 계속 국가대표 선수자리를 지키고 있는 태권도계의 거봉이다.

연기호 선수와 첫 경기를 치를 때 경기가 풀리지 않아 힘들었다는 이계행 선수는 조선대 후배들과 함께 겨울방학동안 체력훈련을 하였다고 한다.

학다리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전국체전에 참가한 이 선수는 특히 63회, 64회, 65회, 66회 대회에서 4연패를 차지하여 각광을 받으며 꾸준히 태권도의 기술을 향상시켜 왔는데 앞으로도 88올림픽을 대비해 수련을 쌓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다.

뒷차기가 주특기인 이선수는 선수들의 기량이 평준화 되어 실력의 차이를 가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계속 노력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고 했다.

'87 월드컵대표 선수단 좌담회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1987년도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세계에 태권도 중주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하며 개선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대표단은
종합우승의 영광으로 기쁨에 들떴다기 보다는 한국을
위협해오는 세계태권도 강국의 현주소를 자각하며 내일의 태권도
발전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돌이켜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홍 보 실



참석자명단

- ▲ **단장:** 임형연 (전 남태권도협회 회장)
- ▲ **감독:** 송봉섭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 ▲ **코치:** 박수복 (인천전문대학 조교)
- ▲ **선수:** 이종선 (핀급 · 한국체대2년)
 전용환 (플라이급 · 서울지하철공사)
 지용석 (밴텀급 · 청주대학4년)
 장명삼 (페더급 · 설악케이블카)
 박봉권 (라이트급 · 한국체대2년)
 윤순철 (웰터급 · 경희대학2년)
 연기호 (미들급 · 유도학교4년)
 노 신 (헤비급 · 경희대학3년)
- ▲ **사회:** 한규인 (대한태권도협회 홍보실장)

▲ **사회:** 지난 해에 이어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선수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핀란드 헬싱키에서 거행된 월드컵 대회에는 세계의 태권도 강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쌓아온 기량으로 중주국 한국을 위협했다고 하는데 단장님께서 대회에 참가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
임형연

▲ **임형연(단장):** 이번 월드컵대회를 통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태권도 수련생 및 유럽 교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킨데 대해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력이 좋은 외국 선수들이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며 중주국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체력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태권도 발전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얻은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송봉섭(감독):** 국제대회에 한국 선수들이 참가하면 무조건 우리는 중주국이나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 향상된 체력을 바탕으로 경기기술의 다양화를 실현시키지 않고는 국제대회에서의 우위를 더이상 보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덴마크의 경우 비디오폭 전 경기를 촬영하고 있었으며 의무진이 파견되어 선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나다.

국제무대에서 중주국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을 자만하지 말고 각국 선수들의 경기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독—
송봉섭

▲ **사회:** 각국의 경기력을 분석해 주시지요.

▲ **박수복(코치):** 1978년도에 제가 국가대표선수로 프레이트제임에 출전하여 외국선수들과 시합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때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기술향상은 놀라운 정도였습니다. 우세한 신체적 조건을 바탕으로 경기기술까지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어 중량급 뿐만 아니라 경량급에서도 이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코치 —
박수복

▲ **사회:** 플라이급에 출전한 전웅환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에 그쳤는데 이번 대회를 어떻게 치루었습니까?



전웅환 선수

▲ 저는 1982년도에 개최된 제5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래 처음으로 이번 월드컵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주위의 기대(특히 소속팀인 지하철공사)가 큰데다가 외국 선수들의 기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전하게 되어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

다. 첫 경기에서 대만 선수를 이겼으나 허벅지 부상을 당하고 인대가 늘어나 2차전 경기부터는 고전을 해야 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경기에 고전한 것도 있지만 상대 선수들의 기술이 좋아 어렵게 게임을 풀어나가야 했던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 **사회:** 결승전 경기를 마치고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 **전웅환 선수:** 최선을 다해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관점에서 이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덴마크 선수의 손이 올라가자 앞이 캄캄했습니다.

▲ **박수복(코치):** 이번 대회를 통해 볼 때 국내대회와는 득점 방식이 달랐습니다. 즉 선수가 기술을 발휘해 정확히 상대선수에게 적중시켰을 때 득점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외국에서는 신체적 조건이 좋아 그런지 공격을 적중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선

수를 공격해 몸이 휘청한다든가 크게 충격을 받을 경우에만 득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다양한 기술로 공격을 해도 득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할 때 이러한 사실을 선수들이 미리 알고 가지 않고서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 **사회:** 박봉권 선수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 **박봉권 선수:** 저는 체중이 늘어나 이를 감당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갑작스런 체중 감량으로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경기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1차전을 부전승으로 2차전에 올라 이집트 선수를 맞았는데 상대선수가 예상외로 강력이라 고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기부터는 정신을 바짝 가다듬고 신중을 기울여 게임에 임했습니다. 외국 선수들과는 그들의 기술이 향상되어 실력면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지만 경기흐름을 막는 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운영만 노력하게 한다면 더이상 우리나라 선수들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 봅니다.

▲ **송몽섭(감독):** 선수들이 체중조절은 기본적으로 알아서 해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선수가 체중조절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체급별로 하루에 예산부터 결승까지 보통 서너끼기를 뛰어야 하는데 체중을 조절하라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 체력을 갖춘 외국선수들과 경기를 치를 때는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이종선 선수

▲ 저도 이번 대회에서 체중조절에 실패해 고전을 했습니다. 체중을 감량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코치 선생님도 함께 저희들과 사우나탕에 들어가 고생하시며 체중을 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사용한 체제저울은 수치가 일정치 않아 핀급

의 경우 5개국 선수만 통과하고 11개국 선수들이 무더기로 체중이 오버 되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힘을 했지만 시험실시 전까지 체중을 조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식 저울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사회:** 지용석 선수는 밴텀급 우승으로 첫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는데 그때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용석 선수

의 생각만으로 별 걱정없이 나갔는데 세계 각국들이 한 자리에 모이자 실력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장이 마루바닥이 아니라 고무매트로 되어 있어 마루에서 운동을 하다가 쿿션이 있어 고도의 기술 발휘는 더욱 더 어려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장명삼 선수** :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합숙훈련으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1주일 동안 합숙훈련이 있었지만 너무 짧았고 합숙훈련 후 집에 들렀다 공항에 모여 출국하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헤이해지는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대회 개최지에 대한 환경이나 기후조건 또는 경기장 상황 등도 미리 알아서 이에 대처해야 할 줄로 봅니다. 고무매트의 사용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해 기술을 제대로 발휘해 볼 수 없었고 우선 생소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을 안아야 했던 것입니다.

▲ **사회** : 지난 해 추계종별 선수권대회에서 미들급 우승을 차지하며 혜성처럼 나타난 연기호 선수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은메달에 머물러 중량급에 대한 벽이 얼마나 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기호 선수

▲ 저는 국제대회에 처녀 출전인 데다가 학교(유도학교)에서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필승을 각오하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체력의 열세는 별로 느끼지 못했으나 결승전에서 1회전에 미국 선수에게 몸통을 맞고 실점한 것이 패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박수복(코치)** : 연기호 선수가 은메달에 머물긴 했으나 경기 측면에선 가장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예선전에서는 주최국인 핀란드 선수를 맞아 뒤돌려차

기로 1회 20초만에 K.O승을 거두고 중주국의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 **사회** : 최중량급에 출전한 노신 선수는 중량급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노 신 선수

▲ 저는 국제대회에 처녀출전 이긴 했으나 국가대표1위인 고영철 선수보다 신체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에게 신장과 힘에서 그렇게 밀리려 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합에 임하자 월등한 외국의 신장과 힘에 밀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기술 측면에서 볼 때 공격을 시도하면 긴 리치로 밀어 내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국내시합에서는 후리기나 기술발차기 등 한방으로 승부를 내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중량급 선수들이 경량급 못 지 않는 순발력과 다양한 기술발화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태권도에서 국내선수들이 득점 위주의 경기를 지양하고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득점차등제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선수들의 경우 득점보다는 다양한 공격력으로 진시효과를 노려 판정에 유리한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 **사회** : 선수단 여러분들께서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대회 때와는 다른 측면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핀란드 관중들의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 **박수복(코치)** : 국내 대회 경기장에는 보통 선수들이 나와 같은 팀 동료를 응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핀란드에는 애 어린 가릴 것 없이 경기장에 나와 고도의 기술이 발휘될 때에는 아낌없는 환호와 찬사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선수들은 관중들의 호응을 의식하고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고 있어 경기스타일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 **사회** : 월드컵대회 출전의외에 친선 경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 **박수복(코치)** : 대회를 마친 후 우리 대표단은 벨기에로 향했습니다. 명승 유적지를 관광한 뒤 오후에 벨기에 협회 사범과 도장의 수련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순철 선수

태권도 친선경기를 가졌을
니다. 기본 동작보다는 태권
도 경기에서의 기술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것
을 시합을 통해서 보여 주
었습니다. 특히 윤순철 선
수는 비록 언어장벽이 가로
놓여 있었 했지만 지도방법
이 매우 좋았습니다.

▲ **장명삼 선수** : 벨기에 사람들은 태권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량에 있어서는 너무 차이가 났지만 열
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일 정도로 진지한 분
위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술동작 위주와 예의 등을 보이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유럽인들에게 태권도의 우수성을 가르치고 그들이 우리
의 무도를 배우고자 애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
민국이 새삼스럽게 자랑스러워짐을 느꼈습니다. 다만
유능한 지도자들이 더욱 더 많이 진출해 한국의 태권도
를 세계속에 뿌리내리고 발전시켰으면하는 바램입니
다.

▲ **사회** : 대회가 열린 핀란드를 비롯해 벨지움, 프랑
스를 경유해서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승유적지를 둘러보았을 것 같은데 직접보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군요.



박봉권 선수

▲ 벨지움에 가서 부루셀광장
을 둘러 보았는데 건축양식
이 특이해 눈길을 끌었고
그 곳 사람들 모두가 대단
히 친절했습니다. 꼭 만화
영화의 전설 속에 빠져 든
기분이었습니다. 파리는
더더욱 광장해 이런 기회
를 맞볼 수 있었던 행운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전문을 넓히고 자신을 되돌아
보기 위해서는 여행이 가장 좋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
번 유럽여행은 경이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 **장명삼 선수** : 파리의 노트담 사원은 웅장함과 더불어
조각들의 찬란함이 어울려 매력에 넘쳐 흠뻑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부는 보지 못하고 기념사진만 찍
고 왔으나 가히 상상이 갈 정도였습니다. 파리의 도시

자체가 예술인 듯 싶었습니다.

헬싱키는 국민성이 매우 온순하고 친절했고 부루셀이
나 벨지움은 약간 거친듯 했습니다. 이번 대회기간 동
안 유럽의 풍물을 돌아보면서 부루움과 경이로움이 앞
섰지만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유산과
근면한 국민성, 생동하는 거리의 사람들 모두가 외국인
들의 눈에 부루움과 경이로움으로 비춰지리라 생각합니
다.

▲ **사회** : 기억에 남을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일이 있
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장명삼 선수

▲ 핀란드 주재 대사 공보관
데에 저녁 초대를 받아 갔
는데 선수단이 도착하니까
방명록을 내주며 싸인을 하
라고 하였습니다. 단장님
께서 먼저 싸인을 하시자
감독님께서 선수들에게 바
쁘네 싸인은 무슨 싸인"이
라고 하셔서 저희들은 싸

인은 생각하고 김치와 불고기 등 진수성찬으로 차리신
한국음식을 배가 부르도록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
후부터 감독님의 말투를 재미있게 흉내낸 "싸인은 무슨
싸인"이 대회기간 중 종중나와 웃었습니다.(일동 웃음)

▲ **사회** : 1987년도 월드컵대회에 참가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후 이렇게 선수단 여러분께서 한자리에
마주 앉아 월드컵대회 출전에 따른 경기와 그밖의 여
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앞으로 있을 차기 국제
대회를 대비해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보
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뜻깊은 시간을 마
련해 주신데 대해 단장님 이하 선수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개의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농친 3개체급은 더욱 더
소중한 교훈으로 남으리라 봅니다. 이제 우리 태권도인
들은 '86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유도의 중주국인 일본이
한국에 대패하고 돌아간 사실을 살아있는 교훈으로 되
새겨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태권도 중주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단
히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중으로부터 갈채와 성원받는 경기장 분위기 확립필요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월 22일~24일, 울산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표어 아래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포항, 대구 등지에서 제16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분산 개최되었다.

이번 소년체전에는 전국에서 임원 및 선수 1만2천9백28명이라는 대규모 선수단이 참가하여 26개 종목에 걸쳐 펼쳐진 각종 경기에서 각 시도를 대표하여 평소에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과 두터운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일정을 보냈다.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경남 울산 현대중공업 체육관에서 펼쳐진 태권도 경기에는 중학교부 11체급의 경기가 펼쳐져 각 시도협회의 임원들과 선수들은 필승의 각오로 대회를 치루었다.

태권도 중학교부경기 체급과 중량

체급 : 정식 (9체급), 시범 (2체급)

체	급	체	중	비	고
핀	급	31kg까지	정식	시	범
플 라 이	급	34kg까지		중	목
벤	급	38kg까지		중	식
페 더	급	42kg까지			
라 이 트	급	46kg까지			
라이트웰터	급	50kg까지			
웰 터	급	54kg까지			
라이트미들	급	58kg까지			
미 들	급	63kg까지			
라이트헤비	급	68kg까지	시범	중	목
헤 비	급	68kg이상			

대표자회의

태권도 경기대회에 앞서 5월 21일 오후 4시에 14개 시도지부의 임원이 배석한 가운데 김용휘 사무국장의 사회로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본회의 황춘성 전무이사는 소년체전이 분산개최실시됨에 따라 '86년도에 이어 계속해 경남협회에서 수고하게 되었음을 치하한뒤, 현재 실시하고 있는 11체급 경기 중 9체급만 정식종목이나 차기 소년체전에서는 전체급이 정식종목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소년체전의 국고부 태권도경기 채택문제와 전국체전에 여자부 경기 채택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88년도부터는 각 시도협회의 자체 선수등록을 대한태권도 협회에 병행 등록하여 선수 통계 확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현시점에서의 태권도의 개괄적인 발전상황을 설명하며,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권영욱 기술심의회회장의 경기장 질서에 대한 당부가 있는 후 김영삼 경기위원장, 안영택 심판위원장 등의 태권도 경기에 관한 소관 업무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한편 황춘성 전무이사는 새로 출범해 소년체전에 처음 출전한 광주직할시협회를 소개하며 선전을 당부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표자 회의를 마친뒤 경남협회 울산지회가 코리아나 호텔에서 마련한 환영 만찬 회에 참석했다.

체급별 경기

소년체전 태권도 경기는 핀급에 출전한 충남의 김수



진승태 선수가
핀급 우승을 차지
하자 기뻐하는
강상원 전복 부지사.

경 선수와 전복의 진승태 선수의 대전으로 막을 올렸다.

울산현대중공업체육관의 300여명에 달하는 넓은 경기장에서 핀급의 두 선수의 대전은 왜소한 느낌마저 주었으나 특히 전복 진승태 선수의 빠른 공격은 양증스러운 움을 더해 박수를 받으며 승리를 장식했다. 진선수는 이어 경남의 정상수, 전남의 김성열 선수를 차례로 이겨 결승전에 진출했고 서울의 박만석, 부산의 이성로 선수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온 충북의 전병철 선수와 핀급 챔피언 자리를 겨루게 되었다.

최경량급으로 빠른 순발력을 자랑하며 올라온 두 선수의 결승전에서 진승태 선수가 2회 중반에 앞머리차기를 성공시키는 등 나무랄데 없는 훌륭한 경기를 펼치는 한편 충북의 전병철 선수는 긴 리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결국 전복의 진승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진 승 태
(핀급 1위·전복)



윤 호 상
(플라이급 1위·경남)

◎ 플라이급 경기는 경기도 이병렬선수와 충남의 전상범선수가 첫 경기를 치루었는데 2회전부터 이병렬 선수가 얼굴이 창백해지는 가운데 계속 「클린치」 작전으로 나왔고 3회전에서도 계속 경기를 포기한 듯 소극적인

방어만을 펼친채 경기종료후에는 주저없이 일어서질 못하였다. 이에 대해 김용서 기술심의회 부의장은 지나친 체중감량에 기인된 증상이라고 진단, 청소년기에 지나친 감량은 건강을 해친다며 평소에 꾸준한 수련으로 체중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플라이급 결승전에는 경남의 윤호상선수와 서울의 최성철 선수가 올라왔는데 윤호상선수가 정확한 돌려차기를 계속 성공시키며 득점을 얻어 승리를 안았다.

핀급과 플라이급에 대한 시범경기가 끝나고 정식경기가 시작된 밴텀급경기에는 전남의 김양택 선수와 대구의 이대우 선수의 대결로 예선전이 시작된 가운데 김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

경남의 장현술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강직 서울의 손유영 선수를 맞아 1회종료를 앞두고 뒤돌려차기로 얼굴 공격을 성공시키고 2회초에도 몸통공격 등으로 공략한 뒤 3회전에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밀어붙이며 승리를 거두어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오르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 충남의 복병 정주철 선수에게 아깝게 패하고 2위에 머물렀다. 이와 반대로 충남은 전체점수에 가산되는 첫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는 개가를 올렸다.



정 주 철
(밴텀급 1위·충남)



강 재 원
(페더급 1위·전남)

◎ 페더급 예선경기는 광주 강대길 선수와 경북의 장두경 선수의 대결로 시작되었는데 이 경기에는 전 국가대표 코치로 화려한 전적을 자랑했던 박현중, 윤종욱 코치가 각각 광주와 경북팀의 코치로 등장해 장의대결을 실감케 하는 가운데 앞돌려차기와 뒤돌려차기 등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장두경선수의 공격을 노력하게 받아치며 역공세를 취한 광주의 강대길 선수가 승리를 안았다. 신생팀 광주는 이어 경남의 박영삼 선수를 누르고

4강에 진출했으나 서울의 김민경 선수에게 패해 메달의 꿈이 무산되었다.

한편 경승전에는 서울의 김민경선수와 전남의 강재원 선수가 올라왔는데 선제공격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은 강재원선수가 승리했다.

충남의 유규택 선수와 전남의 박형식 선수의 경기로 막을 올린 라이트급 경기에서는 박형식선수가 판정승을 거두고 2차전에 올라 경남의 조삼용 선수를 맞아 1회 중반에 낭심을 차서 경고를 받고 이에 분전, 맹공을 퍼붓기 시작해 뒷차기 공격 등으로 다운을 뺏으며 승리했고 계속해서 서울의 박진영 선수를 누르고 결승전에 올랐다.

한편 제주의 강운만 선수는 결승전에 올라 전남의 박형식 선수를 밀어치기 등으로 공략하며 밀리고 미는 혼전을 치루며 우승의 향방을 가름하기 어려운 접전끝에 제주에 금메달을 안겨주는 수훈을 세웠다.

◎ 라이트웰터급 경기는 충남의 박일용선수와 서울의 신성수 선수와의 불꽃튀는 공방전으로 시작되었다. 2회전에 박선수의 오른발돌려치기가 신성수의 얼굴을 강타하여 다운을 뺏었고 3회전에 신성수 선수는 2회전의 열세를 만회코자 맹공을 퍼부었으나 경기종료후 박일용선수의 판정승이 선언되자 서울팀은 강한 어필을 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낳기도 했다.



강 운 만

(라이트급 1위·제주)



지 환

(L. 웰터급 1위·전남)

한편 경남의 서현석 선수는 제주의 권혁훈 선수, 전북의 강진욱 선수를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왔고 전남의 지 환 선수는 상대선수의 공격의 헛점을 찌르며 결승까지 진출, 두 선수가 라이트 웰터급 금메달을 놓고 한판 승부를 가리게 되었다. 지 환 선수는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선제공격과 다양한 기술로 서현석 선수를 누르고

승리했다.

◎ 웰터급 경기는 전남의 김수상 선수가 월등한 체력을 바탕으로 경북의 김재현 선수에게 첫계임을 승리로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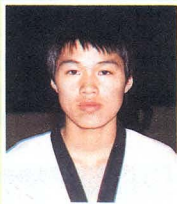
경남대표로 나온 박기재 선수는 라이트급의 서현석 선수의 패배를 설욕하려는 듯 맹공을 퍼부우며 결승까지 올랐다. 그러나 부산의 정진태 선수와의 결승전 경기에서 1회전에 들어찍기를 성공하여 주도권을 잡은듯했으나 2,3회전에 몸통공격 등을 퍼붓는 정진태 선수에게 역전패당했다.

◎ 라이트 미들급경기에는 체력이 좋은 충남의 서재남 선수가 예선전에서 대구의 엄석영선수를 우세승으로 누르고 계속해서 경남의 손효봉, 전남의 김승만 선수를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또한 서울의 김정호 선수는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저돌적인 공격을 퍼부우며 결승전에 올라와 서재남 선수와 혼전을 펼치며 승부를 가리기 힘들었는데 3회전 종료직전에 서재남 선수의 공격을 받아치는 멋진 한방으로 승리를 안았다.



정 진 태

(웰터급 1위·부산)



김 정 호

(L. 미들급 1위·서울)

◎ 미들급 경기에서는 충북의 남윤호 선수와 서울의 이윤기 선수의 경기가 끝나고 이윤기 선수에게 판정승이 선언되자 충북 관중석에서의 야유와 동시에 충북 선수단협회 인원들의 강한 어필로 경기진행식에서는 경기를 중단하고 장례 질서를 바로 잡았다고 이 자리에서 충북협회의 김윤환 부회장이 공개사과를 한 뒤 경기가 속행되었다.

한편 전남의 김동기 선수는 결승전에서 대구의 강재구 선수를 앞돌려치기 등으로 연속 강타를 퍼부우며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강재구

(미들급 1위·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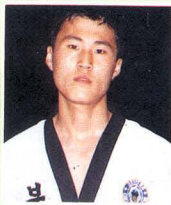


김혁원

(L. 헤비급 1위·서울)

◎ 라이트헤비급 경기에서는 충남의 김부기 선수가 착실한 경기운영으로 결승까지 진출해 기대를 모았다. 또한 서울의 김혁원 선수도 준결승전에서 인천의 송충영 선수를 맞아 주고받는 공방전 끝에 3회전에 뒤돌아차기로 공격해 들어오는 송선수를 받아차기로 역습하며 결승에 진출해 귀추가 주목되었다.

결승전경기에서 김혁원 선수는 1회전에 돌려차기 성공 등 다양한 공격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다량득점으로 일방적 승리를 거두었다.



임영호

(헤비급 1위·부산)

◎ 헤비급 경기는 서울의 강병채 선수와 경북 신흥기 선수의 대전은 1회초반부터 들어찍기와 돌려차기 등 다양한 공격으로 여유있는 판정승을 거둔 강병채 선수에게 기대를 모으게 했으나 강선수는 좋은 기술을 끝까지 살리지 못하고 2차전에서 경남의 김종우 선수에게 패해 탈락했다.

또한 인천의 배성진 선수도 월등한 체력을 바탕으로 충남의 전상현 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승리를 안아 신인

강자로 기대를 모았으나 2차전에서 충북의 김현주 선수의 들어찍기, 원발돌려차기 등의 기량에 밀리며 고배를 들었다.

한편 8강전 경기중 경남의 김종우 선수와 서울 강병채 선수의 대전과 전남 김종부 선수와 부산 임영호 선수의 경기를 마치고 각각 김종우 선수와 임영호 선수에게 판정승이 선언된 자 이에 대한 심한 어필로 경기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불상사가 나와 공정한 경기관람태도가 촉구되었다.

부산의 임영호 선수는 결승전에서 광주의 김형태 선수를 맞아 얼굴몸통 공격을 계속 퍼부으며 헤비급 왕좌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기를 마치고

태권도경기가 울산에서 개최되어 울산 시내의 중학생들이 각시도 선수단을 응원하며 성원을 보내 경기장 분위기를 활기 있게 돋구워준데 비해 경기 내적인 측면에서는 한 차례의 K.O승도 나오지 않는 소극적 플레이로 극적인 흥미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는 선수들이 다양한 기술발휘보다는 득점 위주의 공격만을 펼친 결과라고 보여진다. 승패에 구애됨없이 정정당당히 싸워 관중으로 하여금 스포츠 정신과 탁월한 분위기 확립을 위해서는 선수들이 우선 꾸준한 체력단련과 기술 개발, 극기훈련을 통한 정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승부욕에만 급급해 선수의 학부모들이나 지도자가 심판 판정에 불복, 강한 어필로 경기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례가 있었는데 차후 대회부터는 이를 지양하고 공정한 태도로 경기를 관람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심판원의 판정에 복종하는 정신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16회를 거듭해온 소년체전은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와 소질있는 우수 신인의 조기발굴로 경기력 향상을 꾀했고 출전선수들은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출전해 각 시도 지역 체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더욱 더 공고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경기장 분위기를 흐리는 부모들의 태도가 일선에서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량과도 합수관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지도자의 행동에 따를 수 있는 부형이 되도록 코치나 감독의 위치도 한번쯤 돌아보아야 하겠으며 이러한 불균형이 일소되도록 부형들도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다.



● 단체성적

1 위	서울
2 위	전남
3 위	경남

● 입상자 명단

체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시도명
핀급	1	진승태	완산중학	전북
	2	전병철	청주중학	충북
	3	김성열	여수중학	전남
	3	진광섭	풍생중학	경기
플라이급	1	윤호상	기장중학	경남
	2	최성철	동성중학	서울
	3	최재훈	경일중학	대구
	3	조성덕	후평중학	강원
밴텀급	1	정주철	예산중학	충남
	2	장현술	마산서중학	경남
	3	손유영	한영중학	서울
	3	김병욱	성남동중학	경기
페더급	1	강재원	여수중학	전남
	2	김인경	한영중학	서울
	3	강대길	전남체육중학	광주
라이트급	3	양원철	구월중학	인천
	1	강운만	남주중학	제주
	2	박형식	여수중학	전남
	3	박진영	한영중학	서울
	3	정훈	완산중학	전북

L.웰터급	1	지환	여수중학	전남
	2	서현석	중앙중학	경남
	3	강진욱	전주동중학	전북
웰터급	3	박한우	북성중학	광주
	1	정진태	해동중학	부산
	2	박기채	대현중학	경남
	3	정광채	한영중학	서울
L.미들급	3	이신철	부천동중학	경기
	1	김정호	동성중학	서울
	2	서재남	대신중학	충남
	3	김승만	삼광중학	전남
미들급	3	유용조	부평중학	인천
	1	강재구	경일중학	대구
	2	김동기	수북중학	전남
	3	이주연	강화중학	경기
L.헤비급	3	이윤기	경수중학	서울
	1	김혁원	서울체육중학	서울
	2	김부기	백제중학	충남
	3	김송남	영남중학	부산
헤비급	3	송충영	구월중학	인천
	1	임영호	삼성중학	부산
	2	김형태	전남체육중학	광주
	3	김종우	밀성중학	경남
	3	배성진	구월중학	인천

청 소 년



정찬성 / 대한태권도협회
편집분과 위원장

청소년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다수의 집단으로 객관적인 수치나 관념으로 취급될 수 없는 사회적 지도성과 의무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사회 구성에서의 수적인 비중을 넘어 교육적·문화적·정책적·사회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주역이며 지도적 위치에 있는 성인들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목표를 향해 육성시켜 나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사회의 모든 관심과 보호 속에서 성장되어 가는 미완성된 인간으로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은 객관적 시간상에 비추어 볼때 미래사회를 영속시켜 갈 전도의 존재로서 우리 현실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중있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언제부터인가 매스컴을 통하여 심각성을 띄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문제를 성장기에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또한 그 비중이 적다고 해서 등한시해도 된단 말인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 건강하게 성장 발육해야 할 청소년들이 지금 무언가 크나큰 몸살과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 확실할진대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들을 보호권 밖의 세대차이로 돌려버려 도의식하고 대화를 외면해서 되겠는가?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에서 과감히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합시다. 물론 전국각지에서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지금도 「도복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태권도 지도자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러한 호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전문기관과 학자들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오늘날 청소년 문제의 특징은 첫째,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긴

다.

둘째, 타인에게 도움을 받고도 고마움을 모른다.

셋째, 자기만 알고 남을 이해할 줄 모른다.

넷째,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기성세대를 무시한다는 항목으로 압축된다. 이밖의 구체적인 열거는 생략하고... 그러면 오늘날 청소년들의 방황과 비행의 과증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보면, 핵 가족화 되면서 부모들은 경제기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자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과거의 자녀 위주의 생활중심 가정에서 점차로 기성부모들의 자신을 실존적 생활태도가 증대하여 자기들의 생활을 즐기려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청소년기가 심리적 이유기(心理的 離乳期)라는 발달특성이 있다면 부모 스스로도 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분리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어리고 사탕스런 과보호적인 사고에서 품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데에서 오는 가치관의 갈등이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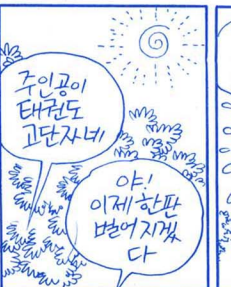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에는 주로 빈곤과 가정의 파탄, 결손가정, 실업 등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상대적인 빈곤에 대한 욕구 불만이 특색이고, 산업구조의 변화와 물질 만능의 가치관, 독일의 저명한 학자인 「하이데거」의 말처럼 근대 인간의 고향 상실 즉 같은 점, 닮은 점을 찾을 수 없는 나만을 아는 이기적이 사회가 되므로 더욱더 이탈행동이 생기고 남파의 이질화는 특수 의식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무관심 방임이 문제가정을 만들고 부모부재, 상대적빈곤, 기능적 결손가정 등도 비행의 원인이 된다면 비행은 청소년이 일으키지만 비행을 조성하는자는 “나를 돌려싼너”라는 등식 속에서 맹모의 「三遷之教」를 생각케 한다.

태권가족



이 향원





금메달



글 · 송재찬
그림 · 이철희



가·죽·이·함·께·읽·는·동·화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고 있습니다. 경준이네 아빠가 실어다 놓은 모래 더미 위에서 노는 아이들의 옷은 어느새 시꺼멓게 되었습니다. 모래는 경준이네 집을 고칠 때 쓸 모래입니다.

모래더미 위에서 노는 아이들은 모두 부지런한 운전사입니다. 장난감 트럭에도 포크레인 위에도 모래가 실려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택시로도 모래를 실어나릅니다. 개미처럼 줄을 지어서 모래를 먼 곳까지 운반합니다.

“빵 빠빵.....”

“부 부웅.”

아이들이 막 신나게 차소리를 낼 때였습니다. 골목 저쪽에서 하얀 바지를 입은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명수입니다.

“얘들아 이 금메달 봐라, 우리 누나가 피아노 대회에 나가 1등상 받은 거야.”

명수는 금메달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야 멋지다.”

모래 장난을 하던 아이들은 모두 손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명수 주위에 모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명수 금메달로 올림픽 놀이 하자.”

건호가 눈을 반짝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1등한 사람의 목에는 금메달을 걸어주자.”

“재미있겠다.”

“빨리하자.”

아이들은 모두 한 마디씩하며 금메달을 만져보려하였습니다.

“만지지 마, 1등한 사람의 목에만 걸어줄거야.”

“좋아. 내가 1등할거야.”

이렇게 해서 골목 안은 갑자기 올림픽 경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출발 선이야. 1등한 사람은 우리 나라. 2등 3등은 미국 일본 그리고 꼴등은 나쁜 나라 하자.”



가·족·이·함·께·읽·는·동·화

금메달의 주인 명수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난 1등 못해. 형아들 때문에.”

경준이 동생 가람이가 입을 실룩거리며 명수 눈치를 살폈습니다.

“가람인 하지 마. 올림픽은 형아들만 하는거야.”

명수가 가람이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나도 할거야.”

가람이는 끝내 출발선에 섰습니다. 진호, 경준이, 종대, 선택이, 아람이, 초롱이, 가람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섰습니다.

“저기, 우리 집 대문을 손으로 땅 때리고 오기다. 준비……땅!”

명수의 출발 신호에 아이들은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진호 잘한다. 뛰어라!”

진호 할머니가 2층에서 내려다 보다가 소리쳤습니다.

“형. 빨리 뛰어!”

진호 동생 진철이도 2층에서 소리쳤습니다.

“송진호 1등, 김종대 2등, 박초롱 3등. 자 모두 시상대 위로 올라가. 금메달을 걸어준다.”

아이들은 명수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모래더미 위로 올라갔습니다.

“1등 우리 나라 송진호 선수!”

명수가 금메달을 진호 목에 걸어주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손뼉을 쳤습니다. 아람이는 5등을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진호가 1등을 했기 때문에 더 크게 손뼉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진호 할머니가 2층에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어느새 할아버지까지 나오셔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진호 동생도 차렷자세로 애국가를 부릅니다. 애국가는 힘차고 아름답게 계속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몸을 바로 세우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족·이·함·께·읽·는·동·화

애국가가 끝나고 아이들은 다시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건호는 그만 해 1등 했으니까.”

명수가 말하자 아이들은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건호는 그만 해.”

하고 소리쳤습니다.

“준비 망!”

명수가 다시 출발 신호를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힘차게 뛰어 나갔습니다.

이번엔 경준이가 1등입니다. 경준이 목에 금메달이 걸리고 다시 2층에 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준이 동생 가람이가 집으로 달려 가더니 빨래하는 엄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엄마, 형이 금메달을 받았어.”

경준이 엄마는 금메달을 목에 건 아들을 보았습니다. 입이 함박꽃처럼 벌어졌습니다. 건호네 식구들을 따라 목이 터져라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경준이까지 쉬게 하고 다시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준이 엄마는 다시 빨래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해가 지도록 올림픽 놀이를 하였습니다.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은 아이는 가람이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람이가 달려라, 빨리 서.”

명수가 이렇게 말했다를 때였습니다.

“명수야 밥 먹어라.”

하며 명수 엄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건호야, 금메달 땀으니까 밥 먹자.”

건호 엄마도 대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예, 엄마!”

명수와 건호가 뛰어가 버리자 아이들도 모두 흩어지며 집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으앙! 나는 왜 금메달 안 걸어줘.”

출발선에 혼자 서있던 가람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람아, 가자. 가서 저녁 먹자.”

가람이 형, 경준이가 잡아 끌었지만 가람이는 몸을 흔들며 싫다고 하였습니다.

“마음대로 해. 난 갈거야.”

경준이는 팩 토라져서 집으로 가 버렸습니다.

가람이는 혼자 골목에서 훌쩍거리며 웅니다. 빗방울이 하나 둘 골목에 떨어집니다. 어둠이 조금씩 골목길로 몰려옵니다.

그 때 골목 저 끝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람아 왜 우니? 왜 혼자 있어? 어두워 지는데. 가서 밥 먹자.”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가람이 아빠였습니다.

“아빠! 금메달!”

가람이는 아빠 다리에 매달리더니 더 슬프게 웅니다.

“왜 그래 가람아, 누가 때렸어?”

가람이는 울면서 모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빠가 빙그레 웃더니

“그랬어? 울지 마. 조금만 기다려.”

하시곤 집으로 달려가더니 명수보다 더 큰 메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빠가 오토바이 대회에서 받아온 금메달입니다.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가람이를 위해 꺼내온 것입니다.

“자, 준비. 힘껏 뛰어라. 준비. 땅!”

아빠가 가람이 등을 밀며 소리쳤습니다. 가람이는 힘차게 뛰었습니다. 어느새 굽어진 빗속을 힘차게 뛰었습니다.

“일등 이 가람!”

아빠는 가람이를 모래더미 위에 세우고 금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가람이는 목에 금메달을 걸고 진호네 이층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던 진호네 식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있습니다.

가·죽·이·함·께·읽·는·동·화

“애국가가 나와야 하는데. 건호네 식구는 모두 저녁을 먹나 봐.”

가람이가 안타깝게 이층을 올라다 보는데 가람이 아빠는 이제 그만 자고 가람이 손을 잡아 끄니다.

가람이가 아빠 손을 뿌리치더니 두 손을 착붙이고 차려 자세로 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비가 크게 쏟아졌지만 가람이의 자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크게 쏟아질수록 가람이 소리는 더 크게 골목을 메웠습니다. 때아닌 애국가 소리에 골목안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대문을 열고 내다 보았습니다.

가람이와 가람이 아빠가 비를 맞으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안 사람들은 애국가의 끝을 함께 불렀습니다. 우산을 내리고 비를 맞으며 불렀습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 송 재 찬

작가약력

- 1950년 제주 출생
- 197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 한국동화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수상
- 「작은 그림책」, 「먼 나라 이야기 섬」, 「애국가 다바코」, 「돌마당에 뜨는 해」 등의 작품집이 있음
- 서울 화랑국민학교 근무



자동차 판매왕

이 문 희

(대우자동차 인사담당 제조관리부)

“대우그룹 태권도 실업팀 창단의 꿈”

한 때는 태권도 국가대표급선수로 활동하던 이문희씨가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으로 자동차 판매왕이 되어 화제의 인물로 등장했다.

대우자동차 인사담당 제조관리부에 근무하는 이문희씨는 지난 해 1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4개월동안 대우의 1만5천여 대식구가 참가한 자동차판매 캠페인에서 르망 45대를 비롯, 7월초에 판매 실시될 미니 버스 바베트 주문 30대 계약 등 모두 75대의 계약고를 올려 차량판매 실적 중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기

록해 르망 한대를 상품으로 받았고 5개국 해외여행 포상휴가도 즐기게 되었다.

이문희씨는 이 같은 신기록에 대해 태권도를 수련하며 알게된 선후배, 학교 동문선배, 대한태권도협회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후원 속에서 자동차 판매실적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대한태권도협회 국제분과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문희씨는 대우자동차 내에 12명의 사원이 아마추어팀을 결성해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

다고 소개하며 대우그룹내에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지난해에 창단된 지하철 공사팀 등 몇되지 않는 태권도 실업팀에 대우그룹에서 실업팀을 창단하게되면 태권도의 발전과 실업팀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점치며 또한 자동차 판매에도 놀랄만큼 큰 판매고를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이라고 회담에 차있다.

眞理의 샘

* 석 가 *

자기를 등불로 삼고,

진리(眞理)를 등불로 삼아라.

자기를 의지처(依支處)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석가(釋迦)는 죽음을 앞에 놓고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말했다.

이것이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 나오는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 자귀의(自歸依), 법귀의(法歸依)의 가르침이다.

석가의 애제자(愛弟子) 아난(阿難)은 노경(老境)에 도달한 석가에게 물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좋습니까?」 그때 석가가 아난에게 대답한 말이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느냐.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야 한다. 내가 등불로 삼는 것은 돈이 아니요, 지위가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타인이 아니요, 진정한 자기 자신이다.」

내가 나의 주인(主人)이요. 내가 나의 등불이다. 우리는 또 진리를 등불로 삼고 살아야 한다. 진리가 나의 등불이다. 이것이 한문으로 자등명, 법등명이다. 등명(燈明)은 등불이다. 법은 불교의 진리를 말한다. 자등명(自燈明)—즉 내가 나의 등불이요. 법등명(法燈明)—즉 진리가 나의 등불이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고, 또 진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내가 나의 의지처(依支處)요, 진리가 나의 의지처이

다.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진리를 의지하여라. 이것이 자귀의(自歸依), 법귀의(法歸依)이다. 귀의(歸依)는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등불이요, 진리가 나의 등불이다. 내가 나의 의지처요 진리가 나의 의지처라는 이 유명한 명제(命題)는 불교의 자력주의(自力主義)의 인생관(人生觀)을 잘 나타낸다.

석가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게으르지 말고 노력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등불이 될 수 있을 자기와 진리, 의지 할 수 있는 자기와 진리를 확립하려면 인간으로서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석가모니(釋迦牟尼) BC 624~544(불기 2531년) 불교의 개조, 석가모니, 석존(釋尊), 부처님이라고도 한다.

석가는 민족의 명칭이고 모니는 성자의 의미로 석가모니나 함은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 본래의 성은 고타마(Gotama: 瞿曇), 이름은 시다르타(Siddhartha: 悉達多)이며, 후에 깨달음을 얻어 부다(Buddha: 佛陀)라 불리게 되었다. 또한 진리의 체현자라는 의미의 여래(如來: Tathagata), 존칭으로서의 세존(世尊)등으로 부른다.



정 춘 모 교장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증산국민학교 운동장에는 4, 5, 6학년 전 학생이 운동장으로 달려 나온다. 이어 나동식 사범(증산체육관 관장)의 구령소리에 맞춰 도복 대신 흰색 체육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힘찬 기합소리와 함께 태권도 품새를 익힌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태권도부 학생들이지만 태권도 지도를 해왔는데 올해부터 4, 5, 6학년 전원에게 확대 실시하게 된 것으로 주 1시간씩 태권도 수련을 통해 건강한 체력을 단련하고 있다.

증산국민학교는 「건강한 몸으로 바르게 자라며 열심히 배우자」는 교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임을 강조하고 있다.

증산국민학교의 정춘모 교장은 자신도 직접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며 태권도 수련으로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체력을 단련시키고 있음은 물론 국기 태권도의 인식을 높이고 협동심과 질서인식을 높여준다

건강한 몸으로 바르게

증산국민학교

태권도 수련으로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체력을 단련시키고 국기태권도의 인식을 높이며 협동심과 질서인식을 배운다.



고 했다.

태권도를 지도하는 나동식 사범은 학생들에게 태권도의 기초 품새 지도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다며, 전 학생을 유단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했다.

정춘모 교장은 「나관장이 현신적으로 태권도를 지도해 주고 있다」며 노고를 치하한 뒤 일반인들도 태권도의 품새 정도는 사회체육의 일환으로 익히고 이를 단전호흡과도 연결시키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을 것이라며 태권도가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의 체육 활동이 소년체

전 등 각종 대회에 치우쳐 선수양성에 집중되고 있다며 학교체육 교육과 스포츠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교육을 일반화하여 기초체력을 육성하는 가운데 기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자연스런 체육교육이 저변확대되어야 하고 또한 독일의 사회 체육처럼 학교나 각지역별 클럽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이 골고루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가운데 취미활동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래서 증산국민학교에서는 4, 5,

자라며 열심히 배우자



학교만 보내면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가정은
인간의 성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도덕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인식중요.

6학년에게 태권도를 수련시키는 대신 2,3학년생들은 수영과 유도, 농구 등을 각기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이 택한 체육활동을 통해 기초체력을 튼튼히 함으로써 이들 중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는 학생들 중에 훗날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가 배출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같은 학교체육의 실천외에도 지난해에는 학부형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방침을 세우는 한편 학교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

여 「증산교육백서」 학부모님들에게 통보하고 올해의 목표를 「예절바르고, 스스로 공부하는, 건강한 어린이를 기른다」고 정하고 더 나아가 자율적이며 창의성 인간육성을 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교육실적을 평가하고 어린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학부모님께 알려줌으로써 학교와 가정이 공동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학교만 보내면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 진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가정은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보다 인간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도덕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인식하에 학교에서는 주 1회씩 학



나 동 식 사범

부도 교육계도를 실시해 자녀교육의 중요성과 지도방법 등에 대한 계도에 힘쓰고 있다. 계도교육의 주제도 다양해 「언어 발달과 가정환경」에서는 “보다 부드럽게 보다 정감있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할 것과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맙시다」라는 주제하에서는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자란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길 당부했다.

이렇게 학부모계도 교육을 실시해 어린이가 교육에 힘쓰는 것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교육관에 있어서도 교육이 공부를 잘해 좋은 학교에 진학해 출세하는 것이라는 50년대식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각종 분야에서 일하며 정서를 가꾸고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교육이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학교와 가정이 어린이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양중학교

새학교의 전통을 국기심 배양으로 다진다.

핵가족사회에서 부모들의 과잉보호는
정신적인 나약함을 초래하기 쉽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아와.....



백선자 체육주임



김필수 교감



김경일 사범

맑고 푸른 한강과 탁 트인 잠실벌을 바라보는 광양중학교가 개교한 지 1년이 지났다. 1986년 3월 3일 남학생 8학급 여학생 4학급 등 12학급에 총 725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여 「맑고 힘차고 슬기롭게」라는 교훈 아래 새 학교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은 한 뜻을 이루어 학교의 기틀을 잡아왔다.

김기원 교장은 학생제일주의를 원칙으로 교육계획을 실천해왔는데 특히 전교생의 태권도 수련을 통한 극기훈련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태권도 수련은 월요일 아침 애국조회 시간과 금요일 오후 방과후에 실시하는데 조회시간에 태권도를



김기원 교장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근본이 건강이므로
제일 중요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
태권도 수련을 통해 지구력, 인내심을 배양하고
여기에 창의력을 키워준다.

수련시키게 된 동기에 대해 김교장은 핵가족사회에서 부모들의 과잉보호는 정신적인 낙약함을 초래하기 쉽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아왔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근본이 건강이므로 제일 중요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 태권도 수련을 통해 지구력, 극기심, 인내심을 배양하고 여기에 창의력만 키워준다면 건강한 생활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철학을 갖고 태권도 수련에 앞장섰다고 한다.

태권도 수련 후 결석 및 지각생이

현저히 줄어 들었으며 학습활동에 있어서 질서 정연하다고 한다. 특히 조회시간에 이삼십명이 쓰러지던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다행이라며 학생들에게 지구력을 키워주는데도 커다란 몫을 하고 있다고 한다.

태권도를 지도하는 김경일사범은 동네(자양동)에서 일찌기 10여년이 넘게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수련생들을 지도해오고 있어 지도자로서 신망을 받아오며 마을의 발전에도 기여해 왔는데 지난해 광양

중학교가 신설되자 태권도 수련을 지도하며 학생들에게 극기심을 배양시키며 학교의 전통을 심는 기틀을 만들어오고 있어 학교에서는 김사범에게 명예교사로 추대하고 있다.

한편 배선자 체육주임은 남녀공학이라 남녀학생에게 모두 태권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여학생이 태권도를 하여야 하느냐? 는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태권도가 가동성 범위가 넓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한 다며 1학년 질서운동으로 제식훈련을 실시해 보았으나 처음에는 전혀 질서가 잡히지 않았으나 태권도 수련 후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며 체육시간의 적응력 향상은 물론 사생대회나 기타 집단행동시 외부인술 등에 어려움이 없다가 타 학교와 비교해 보아 질서운동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애국조회시 8차선 도로가 인접해 분위기가 산만한데 움직이는 학생없이 정돈된 분위기에서 조회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정신이 학업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은 분명하며 학업면에서도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며 자신 만만해 했다.

태권도 수련 외에도 광양중학교는 심신이 아름답고 건강한 인간 육성을 목표로 교정이나 학교 진입로의 꽃길 가꾸기, 교내야영, 교외 극기수련, 간부 학생수련, 사제동행, 학부모 동행 산행, 학급경영 합창대회 등도 개최하고 있으며 백지상담(白紙相談), 나의 장래설계쓰기, 자화상쓰기,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심성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체력과 정신력 겸비한 지성인 배출 배재대학 태권도부



이 성 근 학장

지금으로부터 102년전인 1885년 8월에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의 신식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이 설립되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우리나라 근세사를 겪어온 배재학당이 1981년 3월부터 배재대학으로 문을

열고 신입생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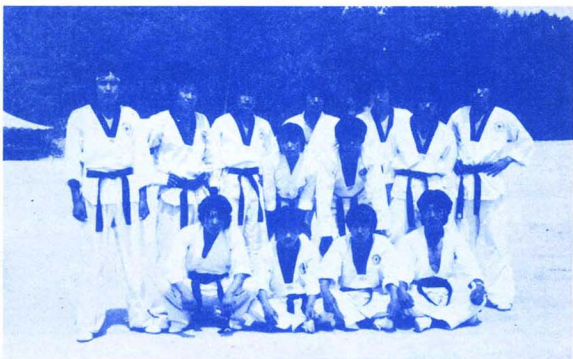
배재학당은 신교육의 발상지로 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비롯하여 서재필 박사, 신흥우 박사, 주시경 선생, 오궁선 박사, 시인인 김소월 등 독립운동가 및 민족의 지도자가 무수히 배출된 곳이다.

배재대학에 태권도부가 창설된 것은 1982년 3월이다.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하여 태권도를 수련하고자 하는 대학인 여러명이 뜻을 모아 태권도부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창단 주요멤버는 제1대 부장인 정근표씨에 의해서였다. 창단되던 그해에 전국체전 충남지

역 1차 선발대회 및 충남태권도협회 회장기대회에 출전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려 신에 배재대학 태권도부의 위력을 과시하여 기존 대학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배재대학은 대회 참가나 성적체치우치기 보다는 체력과 정신력을 조화한 지성인으로서의 대학인이 된다는 목표를 두고 태권도수련에 임하기 때문에 도(道)에 비중을 두고 심신을 수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태권도부에서 젊음을 불사르고 있는 부원은 남학생 39명, 여학생 8명 등 총 47명에 이르고 유단



배재대학 태권도부원들

심신수련회 및 전지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태권도부 제3대 부장으로 태권도부를 맡고 있는 박익규(원예학과 3년)씨는 배재대학 태권도부의 창단 멤버로 군제대 후 복학하여 태권도부를 맡게 되었는데 태권도부 활성화를 위해 한국대학태권도연맹에 등록하였다며 태권도 정신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참신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위한 초심으로 학교의 명예와 긍지를 갖고 태권도 수련과 학문 탐구에 태권도부원 모두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배재대학의 태권도부 발전에 관심을 쏟고 있는 이성근 학장(사회학 박사)은 「학생들이 태권도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체득하고 우리나라의 예절을 몸에 익혀 장차 지덕체가 겸비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계속 태권도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태권도부의 지도교수인 장영환 교수(경영학과)가 학생처장으로서 보직을 맡게 되어 태권도부는

더욱 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태권도부 감독인 이기영 체육교수를 주축으로 한 배재대학 태권도부 학생들의 우렁찬 기합소리, 충남 태권도 협회의 한용석 회장과 이진수 전무이사를 비롯한 충남 각계의 태권도 임원들의 관심이 한데 어우러져 배재대학의 태권도부는 더욱 더 발전할수 있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배재대학 내의 태권도부의 위치는 역시 "태권도인은 달라"라는 평을 들을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내 활동과 인사성 등으로 교수님들의 평이 좋으며, 특히 학생의 대표기구인 총학생회 회장 및 간부들이 태권도 부원들이고보면 교내 활동 및 행사를 리더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씨클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박익규 태권도부 부장은 이 모두가 국기 태권도 정신철학을 이어받아 인내로서 수련하여 형성되는 인격수양의 덕이라며 태권도부의 발전과 배재대학 발전은 빠른 시일내에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 주었다.



박익규 부장

자만도 과반수가 되고 여학생 유단자도 여러명이 있다.

태권도부는 올해를 도약의 해로 정하고 전국 및 충남지역 대학부 각종 대회에 참가함은 물론 교내 각종 시범 및 승단심사 응시, 고아원과 양로원 등에 위문시범, 충남 각 대학과의 친선경기와 세미나 개최,

태권도 교육론〔2〕

양진방 /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교학과장

지난호에서는 태권도지도와 태권도 교육과의 이론적인 차이를 밝히고 도장체제가 지향해야할 방향이 태권도 교육임을 밝혔다. 도장 태권도 지도체제가 태권도 교육으로 한차원 전진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할 일이 태권도 교육의 이념정립임을 제시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이념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1. 태권도교육과 관련교육체제

태권도 교육의 이념정립과 교육이론체계의 확립은 태권도가 사회적으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하여, 또 안으로는 교육의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도장 태권도교육이 우리사회에서 떳떳하고 가치있는 교육활동으로 인정받고 그 격을 높혀 나가기 위해서는 태권도 교육의 이념과 목적, 구체적인 교육목표의 설정,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세분된 이론의 확보, 흥미롭고 매력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올바른 평가방법과 장자들의 고안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것이다.

「태권도 교육론」이란 주제아래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이러한 이론적 과제들은 현재로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난점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더우기 기성 체육이론의 자구를 태권도에 짜맞추는 모자이크식 작업이나, 체육교육론의 기본정신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태권도 교육을 모종의 종교교육이나 초세간적인 정신교육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은 오히려 그 방향을 왜곡시키고 그 내용의 핵을 흐려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 태권도 수련의 효과와 가치를 일방적으로 확대하거나 태권도의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노력들도 태권도를 자칫 고립시키고 협소한 것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태권도 교육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할 때는 태권도 속에서 만이 아니라 태권도 교육과 관련된 주변 교육분야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들과의 비교와 관계 속에서 문제의 핵심을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태권도 교육은 경쟁관계에 있거나 긴장관계를 가진 주변 관련교육분야들이 많이 있다.

가장 넓은 범위로 볼 때는 「교육」이란 주제에서 「학교교육」과, 보다 구체적인 테두리에서는 신체활동을 교육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면에서 「학교체육 교육*」과의 사이에 경쟁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 밖에 「무술」이라는 소재의 성격면에서 태권도 이외의 여타의 무술류들의 교습체제와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이 아닌 과

*체육교육이란 용어는 실제로는 중독용어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대로 쓰기로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체육이란 개념에 대한 개념상이 너무나 다양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외의 사회교육으로서, 특히 예체능이란 성격 면에서 몇 가지 경쟁적 관계를 지닌 분야들이 있다.

이러한 경쟁분야 가운데서 「학교체육 교육」을 제외하고는 교육목표의 면에서나 교육소재의 면에서 경쟁의 심도가 별로 크지 않거나 오히려 상호 보충적인 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어떤 분야는 교육체제와 효과면에서 이미 태권도 교육이 경쟁적 관계를 넘어서서 앞서나가고 있으므로 심각한 고려를 필요치 않는 경우도 있다.

2. 학교체육교육과 태권도교육

태권도 교육이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제적인 면에서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비교연구하여 일면으로는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고 일면으로는 비판하고 경쟁해 나가야 할 분야가 바로 학교체육 교육이다.

오늘날까지 이론적인면에서 태권도는 학교체육의 정규소재로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정도에 머물러 왔다.

그간의 몇몇 태권도 이론지도자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태권도가 학교체육의 한 소재로서 위치를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학교체육 속에서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적인 면에서는 태권도 교육, 특히 사회도장 태권도 교육은 학교체육과의 관계설정이 모호한 채로 발전해가고 있다.

태권도 교육의 정상적인 발전, 그리고 정당한 자기 위치의 확립을 위해서는 학교체육교육과의 이론적인, 실제적인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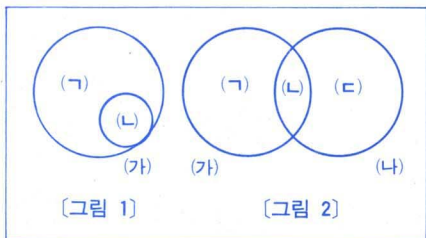
학교체육 교육과 태권도 교육의 관계에 대한 현재의 견해는 다양하다. 태권도 교육이 학교체육 교육의 일부분으로 보는 주장은 태권도를 학교체육의 다양한 교육소재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양자를 동등하게 보는 견해는 이 양자의 교육이념이나 목적이 동일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 교육과 학교체육을 별개의 활동으로 주장하는 측은 양자가 가진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중요시하고 각각이 전제하고 있는 철학을 이질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느 주장도 무리하거나 일면적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체육교육과 태권도 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는 어떤 하나의 기준에 의한 비

교나 한곳에 치우친 시각에서의 평가로서 이루어 질 수 없다.

현재로서 학교체육교육이 태권도를 파악하고 있는 시각은 분명히 일방적임은 틀림없는 듯하다. 학교체육 교육이 전제하고 있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소재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태권도가 하나의 소재로서 선택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체육 교육의 입장에서 태권도는 하나의 소재 이상의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에는 학교체육 교육이 소재로서 흡수하지 못한 성격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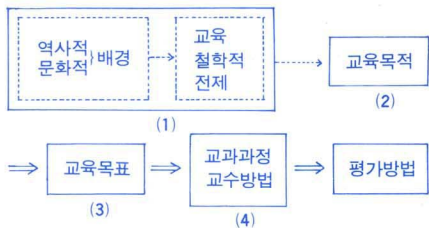
위[그림1]의 (A)를 학교체육 교육을 소재면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할때 (L)은 태권도를 제외한 모든 소재 영역을, (L)은 태권도를 나타낸다. [그림2]에서는 (A)의 내용은 [그림1]의 것과 동일한 것이라면 (A)의 (C)은 학교체육 교육이 포괄하지 못한 태권도의 교육적 성격의 나머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2]의 의미를 보다 강하게 표현하면 현재의 학교체육 교육에서의 태권도는 학교체육 교육이 보다 상위의 이론영역 즉 교육목적, 목표, 그리고 체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 제한되어 태권도의 전체 영역 속에서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는 부분만을 교육소재로서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체육교육론을 반성없이 단순히 태권도 교육론의 골격으로 윤색해 내는 작업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의 체육교육이론의 틀을 따라 태권도 교육의 위치를 찾아보려고 할 경우 태권도 교육은 학교체육의 일부분으로, 또는 교육소재의 하나로 낙착지워질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체육이 현재의 체육 교육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체육이론이 주로 미국에서 발전한 이론의 틀속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체육교육에 관한 「유일한 이론」으로 여겨져야 한다면 학교체육교육과 태권도 교육은 깊은 곳에 서 경쟁적 요소를 날카롭게 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태권도교육과 학교체육교육의 철학적대립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학교체육 교육은 미국체육 이론을 그 바탕으로 하여 구축되어 있다. 교육이론의 구성체계를 간략하게 그려보면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



[표 1]

겠는데, 대부분의 비교연구에서는 (3), (4) 단계의 구체적인 수준의 것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 교육과 학교체육 교육간의 문제는 주로 (1) 수준의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체육교육 이론 내에서도 최근 (1)~(3) 수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속에서 근본적인 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체육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의에서 미국의 체육학자들은 「신체의 교육」, 즉 신체적으로 충실하고 완전한 인간을 길러내는 분야의 교육이라는 좁은 입장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넓은 견해로 나아갔다. 「신체를 통한 교육」이란 철학은 체육이 인간의 몸만을 튼튼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 즉 사람의 성격, 정신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는 자신있는 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를 통한 교육」을 주장하던 체육이론가들이 최근에는 자신감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신체를 통한 교육을 주장하였던 사람들이 체육교육의 소재로서 스포츠 활동을 가장 중요시 하였는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신과 태도가 무조건 좋아진다고만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데 있다. 또 그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좋아지는 것인지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체육교육은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철학과 스포츠라는 교육소재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 단계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체육철학자의 한 사람인 클레인만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체육교육 이론이 너무 좁은 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동양의 철학적 식견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위 [표1]에서 (1)수준을 반성해 보자는 것이다.

클레인만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된 배경에는 미국에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각종의 동양적인 무술을 관심있게 관찰한 것이 직접적인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보기에는 (1)의 기준에서 미국의 체육교육과 무술의 교육이 커다란 차이, 어쩌면 반대되는 점이 상당히 보였는지 모른다. 이처럼 신체를 통한 교육을 표방하는 체육교육 이론과 태권도 교육간에는 근본적인 철학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이 차이점이 태권도 교육론에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체육교육과 태권도 교육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그림2)의 (c)부분, 즉 현재의 학교체육 교육이 포괄하지 못하는 태권도의 교육적 특성부분이 나타나게 된 근본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태권도 교육론의 확립은 이러한 맥락을 보다 깊이 이해한 다음 [표1]에서 제시된 (1)수준의 분야를 철저히 연구하여 현재의 체육교육 이론의 아류가 아닌 태권도 고유의 교육 이론의 모색이 되도록 그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4. 태권도교육과 체육이론과의 대화

이상의 논의는 주로 태권도 교육이 체육교육이론의 테두리 내에서는 완전하게 파악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태권도 교육론과 체육교육론이 상호배타적인 어떤것들은 아니다. 아직까지 태권도에 대한 교육이론이 골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수준에서 체육교육에 관한 이론은 거의 절대적인 이론적 기반일 수 밖에 없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전제, 무조건적으로 체육

교육론을 태권도에 넣어 씌우거나 눈가림식으로 태권도 교육론화하는 알박함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아직까지 체육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고 전통적인 지식교육 위주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체육교육에 대한 비판은 역효과만 가져올 위험도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들은 체육교육과 태권도 교육이 공통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성질의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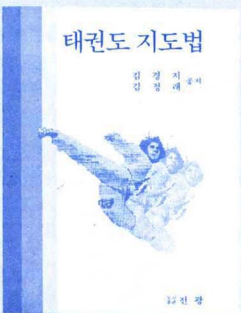
태권도 교육을 이론적으로 정초하고 일선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체육이론의 많은 부분을 태권도는 소화하고 섭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방적인 주고 받음이 아니라 발생과 성장의 역사, 문화적 근원을 달리하는 양자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는 상대적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태권도는 그간 체계적인 이론축적의 과정을 갖지 못했으므로 오랜시간동안 침전 시켜왔던 가치로운 요소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병행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체육이론이 쌓아온 적지않은 이론적 성과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토대위에서 태권도교육이 지닌 교육적 특성을 밝혀 나갈 때 태권도 교육의 가치는 보다 크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태권도의 본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길이 확보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들을 태권도가 주체적으로 진척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체육이론이 아니라 태권도 교육론을 미국체육학계로 부터 수입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지도 모른다. 그네들은 벌써 체육의 한 소재로서 태권도를 비롯한 동양 무술들의 가치를 비상하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다음호에 계속



태권도 지도법

김 경 지 지음

121면 장

신

간

안

내

태권도 지도법

김경지·김정래 지음 · 도서출판 전광

태권도지도법은 지도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원리 및 지도법이 수년간 대학에서 태권도 지도방법을 강의해온 경희대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의 김경지 교수와 공군사관학교의 김정래 교수의 공저에 의해 도서출판 전광에서 발간되었다.

「태권도 지도법」은 일선의 태권

어린이
태권도 교본



어린이 태권도 교본

임흥수 엮음 · 오성출판사

태권도를 배우는 어린이들을 위해 태권도의 역사·예의규범·기본동작·겨루기·심사·경기규정·심판규정·폼새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어린이 교본이 오성출판사(발행인 김중영)에서 발간되었다.

엮음이 임흥수씨는 국기원 공인 7단으로 현재 한국국민학교연맹 감사를 역임하고 있는 성산체육관 관장이다.

태권도 역사

본회에서는 태권도의 다양한 수련층과 독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태권도 교육방법의 일환으로 그동안 국내외 많은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와 고증을 토대로하여 태권도의 이론정립을 위한 기획시리즈를 연재, 지난호에 이어 태권도 역사의 근대와 현대편을 실는다.

— 대한태권도협회 편집분과 위원회 —

3. 근대의 태권도

조선은 초기에 무예를 중시하여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반적인 대중화 경기로 널리 알려져 일반 평민들까지도 수박희(手博戲) 경기를 하게 되었으나 화약과 새로운 무기의 발명으로 군대 조직이 무기화로 정비되면서 태권도와 같은 맨손으로 행하는 무술이 점차 쇠퇴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조선은 유교의 이념을 국시(國是)로 삼고 충 유억불정책(崇儒抑佛政策)에 따라서 무예의 진흥에 많은 타격을 입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이조실록(李朝實錄)에 잘 나타나 있다.

태종 10년 1월에 의흥부에서 군사를 뽑는데 수박희(手博戲)를 시켜 3인을 이긴 사람을 방패군을 시켰다. (太宗實錄卷 19. 10年 1月條)라고 기록되어 있고, 11년 6월에도 기사(騎射)와 보사(步射)에 능한 자를 우선 선발하고 다음에 주보(走步)와 수박을 시켜 3인을 이긴 자를 뽑았으며 나머지는 불합격 시켰다. (前揭書 11年 6月 乙亥條)

무인선발의 한 방법으로 또한 세조(世祖) 3년 9월에 담양의 향리, 관노 등이 나라에서 수박으로 재능을 시험하여 군사를 뽑았다는 소문을 듣고 다투어 수박회를 하려고 모여들었다. (世祖實錄卷 93年 9月條)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참고할 사항은 기록에는 수박희(手博戲) 명칭은 태권이었다는 사실이다.

정조때에 이르러 14년 (서기 1790年)에 무관을 양성하

기 위해 무과를 두어 평소 군사 훈련과 무예 수련을 장려하였으며 이덕무·박제가로 하여금 왕의 명으로 무예서(武藝書)를 저술케 하였으니 이책이 오늘날 전해 내려오고 있는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誌)인 것이다.

이 무예도보통지 제4권에 권법(卷法)이란 이름으로 태권의 폼새와 동작을 실고 있는데 권법이란 명칭은 이책이 명(明)나라 서적인 내가권법·기효신서·우편등을 참고로 하여 쓴점으로 보아서 중국의 당시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예도보통지의 권법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되어 있다.

- ① 탐아세
- ② 요란주세
- ③ 현각허이세
- ④ 순탄주세
- ⑤ 칠성권세
- ⑥ 고사평세
- ⑦ 도삽세
- ⑧ 일삽보세
- ⑨ 요단편세
- ⑩ 복호세
- ⑪ 현각허이세
- ⑫ 하삽세
- ⑬ 당두포세
- ⑭ 기고세
- ⑮ 중사평세
- ⑯ 도삽세

- 17 도기통세
- 18 요단편세
- 19 매복세
- 20 현각허이세
- 21 하삼세
- 22 당두포세
- 23 기고세
- 24 고사평세
- 25 도삼세
- 26 일삼보세
- 27 요단편세
- 28 오화전신세 · 안시측신세 · 과호세
- 29 상희립 · 현각허이세
- 30 구류세 · 안시측신세
- 31 과호세 · 상희립
- 32 현각허이세 · 구류세
- 33 안시측신세 · 과호세 · 상희립
- 34 복호세 · 금나세
- 35 금나세 · 복호세
- 36 포가세
- 37 점주세
- 38 갑, 올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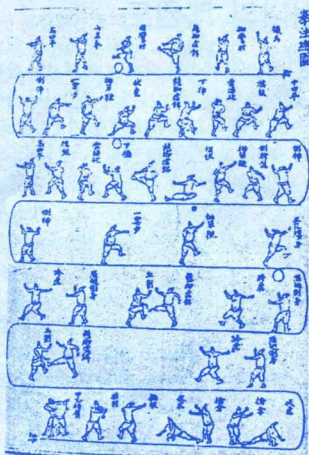
이와같은 동작을 두사람이 행하여 수련하고,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서로 업어서 상대를 메어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현재의 품새나 약속겨루기와 그 유형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오늘날의 태권도 동작과

는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과학화 되어 있지 못하며,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선인(先人)들의 손에 의해서 수박의 자료로서 체계적 기록을 후세에 남겨 놓았다고 하는 사실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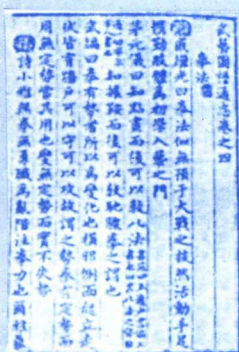
당시 순조 27년 유숙(劉淑)이 그린 대쾌도(大快圖)를 보면 택전을 행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고 해동죽지(海東竹枝) 탁견희조(托肩戲條)에 보면 옛 풍속에



대쾌도 (大快圖)



무예도보통지의 권법 총도



무예도보통지 (武芸譜通誌)

각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로 대하고 서서 차 깨꾸러 뜨린다. 이것을 탁견이라고 하며 그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최하는 다리를 차고 잘하는 자는 어깨를 차며 비각술이 있는 자는 상투를 차서 떨어 뜨린다. (崔永年: 海東竹枝 托肩戲條)라고 하였다.

수벽타조(手癖打條)에는 “마주 앉아서 서로 치는 기술이 있었는데 두손이 왔다갔다 할 때에 만일 한손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곧 타도를 당한다. 이것을 수벽타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수련방법이 손과 발이 나누어져 행 하여 족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권은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개화됨에 따라서 군사적인 목적으로서의 훈련보다는 민속경기로서 서민층으로 스며들게 되었다.

구한말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자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당시의 뜻있는 체육인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국민 운동을 벌이다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완전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시키면서 부터 일본에서는 가라데(空手)를 우리나라에 보급시켜 태권도의 말살을 기도 하였다.

4. 현대의 태권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오랜 역사와 함께 이어 내려온 유희·오락·민속경기 등이 되살아나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 하는데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때에 사도계의 전문가인 이원국, 전상삼, 노병직, 윤병인, 황기제씨 등이 전통무예 진흥과 후진 양성을 위하여 힘쓰게 되었고 특히 송덕기 같은 이는 당시 대통령 생일날에 태권 시범을 보여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1950년대에 들어 6.25동란후 군소 도장들이 전국에 난립하게 되었는데 무려 40여개관이 문을 열고 있었다.

그중에서 청도관(靑濤館)은 이원국(李元國), 지도관(智道館, 研武館)은 田祥變, 무덕관(武德館)은 황기(黃琦), 당시 Y.M.C.A에서 운동을 하였던 창무관(彰武館)은 윤병인(尹炳仁), 송무관(松武館), 노병직(盧秉直) 등은 유희에서 개관(開館)되었고 오도관, 한무관, 정도관, 강덕원, 수무관, 창현관, 문무관, 상무관, 정양관, 국무관, 홍무관, 평무관, 충무관, 정무관, 진

무관, 무학관 등이 난립하였다.

한편 군(軍)을 중심으로 하여 수련을 하여온 최홍희는 육군 소장으로 예편 한후 대사 등의 증책을 맡으며 정부로부터 많은 훈장을 받는등 막중한 국가적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는 조국을 등지고 반국가적 인물이 되고말았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한 태권도 정신이 결여된 사람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려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섰던 우리 무예의 선인들에 비교할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써 후세의 무예인들에게 경악심을 일깨워 준다고 할 것이다.

1955년 들어서 사도계는 명칭을 통일하자고 하는 여론에 따라서 동년(同年) 4월 11일에 유하청, 손덕성, 최홍희, 이형근, 조경구, 정대천, 한창환, 장경록, 홍순호, 고광래, 현종명 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태권」으로 제정 하였다.

그러다가 1959년 9월 3일 명칭제정 위원회는 명칭을 태권도(跆拳道)로 개칭하였다. 이때에 노병직, 윤패병, 황기, 현종명, 이종우, 이남석, 고재천, 이영석, 정창영, 남태희, 배영기, 엄운규, 김순배, 조병시 같은 전문 무예인들이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전문적인 무예교본의 출간 또한 특이할만 하였는데 근대적인 체계를 갖춘 전문 교본은 단기 4282년 4월 4일 당시 무덕관 황기(黃琦) 관장이 발행한 화수도 교본(花手道敎本)이었다.

이 교본은 총 193페이지로 엮여져 있는데 전5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편은 총론(總論)

2편은 정신수련상 구체적 행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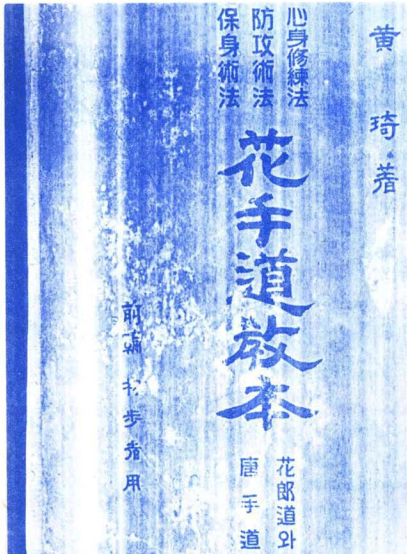
3편은 체육향상상 구체적 행사방법

4편은 원형(原型)

5편은 대련(對鍊)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후 6년이 지난 단기 4288년 2월 20일에 발간된 권법교본(拳法敎本)이라는 책이 당시 육군대령인 최석남(崔嶺南)에 의해서 출간되었다. 화랑도와 권법(花郎道와拳法)이라는 부제(副題)가 붙여져 있는 이 교본은 금강역사상 등의 역사적 유물 사진을 함께 실고 있으며 주로 군인을 수련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교본인데 총 5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장(章) 밑에 절(節)을 넣었으며 절(節) 밑에 항(項)을 넣어 기술하여 현대적인 편집기법에 체계적 접근을 하였다.

그후 황기(黃琦)관장은 계속해서 1958년 7월에 당수



1959년에 발행된 화수도 교본

도 교본을 발간하였으며 1969년에는 영문번역판까지 출간하여 태권도 이론적 체계정립에 공헌하였다.

1960년대 들어 1961년 9월 16일 대한태수도협회가 창립되었으며 1963년 2월 23일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 경기단체로 정식 가입을 승인 받았고 같은해 10월 7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체육대회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1965년 8월 5일 대한태권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본격적인 경기 스포츠로서의 기반을 닦으며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71년 3월 21일에는 그동안 태권도가 국민체력향상을 위한 지대한 공로와 우리의 고유무술이라는 점에서 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국기태권도'라는 휘호를 하사 받으면서 태권도는 명실공히 국기(國技)로서 인정을 받는 스포츠가 되었다.

1972년 11월 30일 태권도의 요람인 중앙도장 국기원을 준공 하였으며, 1973년 1월 10일에 그동안 난립하던 군소 도장을 강덕원, 무덕관, 송무관, 오도관, 정도관, 지도관, 창무관, 정도관 등으로 정비 하였다가, 1976년 5월 10일 각관의 명칭을 폐지하고 1관에서 부터 9관까지로 개칭하였다.

1973년 5월 25일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함과 동시에 같은달 28일 세계태권도연맹이 창립이 되면서 김운용 회장을 총재로 추대하여 세계연맹본부를 한국에 두게 되었다.

1975년에 1회 아시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해 10월 5일에 국제경기연맹 (GAISF)에 가입하게 되어 국제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1976년에 국제군인 체육대회 (CISM)에서도 태권도를 경기종목으로 채택하였으며, 1978년 프레월드게임이 한국에서 열렸으며 1978년 10월 5일에 국내의 9개관으로 있던 중앙본관을 폐쇄하고 대한태권도협회 중심제로 단일화 함으로써 우리 사도제의 오랜 파벌과 관의식을 불식하고 하나로 뭉치는 크나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 5월 20일 비올림픽종목 경기연맹 (NOF)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1회 월드게임 (World Game)을 미국산타클라라에서 개최를 결의함과 동시에 김운용 회장이 집행위원장에 피선되었다. 동년 7월 17일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는 세계태권도연맹 (W. T. F)을 모스코바에서 개최된 제 83차 IOC 정기총회에서 공식승함과 동시에 태권도를 경기종목으로 공식승인함으로써 한국의 태권도는 완전히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인정받는 무예 스포츠가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지위 향상과 함께 팬 · 애매임 정식 종목, 아프리카 스포츠 최고 평의회 (SCSA)에서의 정식종목 채택, O.C.A총회의 '86아시아게임 정식종목 (8체급) 채택과, 국제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개최 등 실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86아시아 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후 처음 실시된 경기에서 태권도 중주국으로서 유감없는 기량을 발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종합2위를 하는데 전인차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7개의 금메달과 함께 경기운영면에서나 시설 등 모든면에서 저력을 과시 하였다.

이와 같은 기반 속에서 한국의 태권도는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군대와 경찰 뿐만이 아니라 초 · 중·고에서 교기(校技) 또는 특기 운동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등 명실공히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하여 국내 200여만명의 수련생과 50여만명의 유단자를 배출하였으며, 해외에 108개 회원국에 2000여명의 사범을 파견하여 50여만명의 수련생을 지도하고 있어 앞으로 단일 종목으로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태권도 기본 발차기의 역학적 분석

▲연구자 : 성 낙 준(스포츠과학연구소 연구원)

이 승 국(태권도 국가대표 코치)

박 현 중(태권도 국가대표 코치)

주 신 규(태권도 국가대표 코치)

진 중 의(태권도 국가대표 코치)

I. 서 론

한국 고유의 무예에서 시작된 태권도 경기는 '86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으로서 이제 국제적인 스포츠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였으며, 다가오는 '92년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는 주요 국제 대회 의 전체급을 휩쓸어 중주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해 왔지만, 세계각국의 경기 수준도 날로 향상되고 있어 과학적인 연구와 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초기에는 태권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별로 이루어 지지 않아 70년대 말까지 37편에 불과했으나, 80년대에 들어서는 작년말까지 8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역학적 측면의 연구도 20편 가까이 되고 있다.(김석련, 1986)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학적 연구의 대부분이 앞차기와 찍어차기에 관한 것(성낙준, 1984; 황인승, 1985; 장기준, 1985)이었으며 돌려차기나 옆차기, 뒷차기와 같은 다른 발기술에 관한 분석은 태권도 뒤후려차기 기술의 역학적 분석(황인승, 1985), 태권도 차기동작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관한 생체역학적 분석(양동영, 1986)의 두편 뿐이다. 태권도의 발기술은 매우 다양하므로 한 두가지 발기술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실제적인 경기력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본이 되는 발기술은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뒷차기, 뒤후려기, 들어찍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기술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태권도 경기는 주먹기술로서 몸통, 발기술로서 얼굴이나 몸통의 공격부위를 바른 자세로 정확하게 공격하였을 때 1점을 득하게 되어있지만(대한 태권도 협회, 1986), 실제로는 타격의 강도도 득점을 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주먹기술보다는 발기술에 의한 득점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얼굴의 주먹공격이 금지되어 있으며 발차기가 거리와 타격의 강도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발기술을 득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적절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발차기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즉, 발차기의 생명은 빠르고 정확하며 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등의 체력 요인을 바탕으로 한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강도가 그 요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기본 기술에 대해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이라 볼 수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통하여 발차기별 수행 시간과 속도 그리고 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득점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발기술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하는 기준치가 될 수 있으며 응용동작 및 전술의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태권도 발기술을 역학적으로 연구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실험 대상

피험자는 '86아시아인 게임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들로서 2체급마다 1명씩으로 하여 4명으로 하였다. 이들의 신체적인 특징은 표II-1과 같다.

(표 II - 1) 피험자의 신체적 특징

피험자	성 별	신장 (cm)	체중 (kg)	하지장 (cm)
피험자 1	남	164.0	57.4	83
피험자 2	남	172.7	69.5	88
피험자 3	남	180.5	75.2	93
피험자 4	남	187.0	84.7	97

2. 실험 기간 및 장소

고속 비디오 촬영기를 이용하여 8월에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고 실제 촬영은 태능 선수촌에서 자연광을 이용하여 실시 하였다.

3. 실험 장비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다음과 같다.

- (1) 고속 비디오 시스템 (NAC HSV 200)
- (2) 16mm 고속 촬영기 (Photosonic Biomechanics/500) 2대
- (3) 발차기 타켓 및 지지대
- (4) 신호용 불빛 발생기
- (5) 기준척

분석에 사용하는 장비는 다음과 같다.

- (1) 동작분석기 (NAC SPORTIAS 100)
- (2) 필름트레이서 (NAC DF-16C)
- (3) 마이크로 컴퓨터(삼보 20XT)

4. 실험 방법

(1) 각 피험자는 수영복을 착용하고 전관절, 주관절 및 고관절, 슬관절, 비골 외과, 발의 제1지골에 백색 테이프로 +자 표시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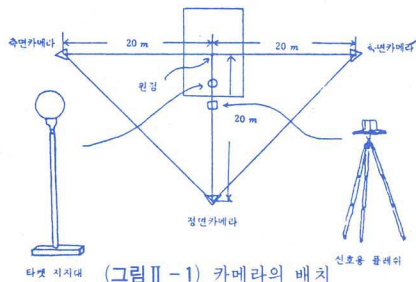
(2) 카메라와 피험자의 거리는 정면과 측면 모두 20m로 하였으며 카메라의 높이는 115cm로 하였다. 두 대의 카메라는 발차기를 수행하는 원점과 직각이 되도록 하였으며, 카메라의 속도는 200f/s로 하였다. 카메라 자체에 타이밍펄스 발생기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로 카메라의 속도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3) 카메라는 삼각대로서 수평을 유지하여 고정시켰으며 동작 개시 2초 전에 미리 작동시켰다. 카메라의 싱크 및 동작 개시 신호는 카메라 플래시를 목표 전방에서 터트리 하였다.

(4) 목표와 피험자 간의 거리는 각자의 하지장 길이로 하였으며 몸통은 명치, 얼굴은 코 높이로 하였다.

(5) 발차기의 순서는 돌려차기 중단 및 상단, 옆차기 중단 및 상단 몸돌려차기 중단, 뒷차기 중단, 뒤후리기, 들어찍기 몸돌려차기, 한발나가 뒷차기의 순서로 하였으며, 전체 피험자가 한 기술을 시행한 후에 다음 기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6) 뒷차기와 뒤후리기는 피험자의 좌측과 정면에서 촬영하였다. 카메라의 배치는 (그림 II-1)과 같다.



5. 자료 처리 방법

(1) 발차기별 동작과 차는 발의 궤적

각 발차기 별로 트레이서 화면에서 동작을 트레이싱 하였으며, 차는 발의 궤적은 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순간부터 목표에 접촉할 때 까지의 정면과 측면의 궤적을 동작 분석기에서 좌표를 구하여 그렸다.

(2) 시간

시간은 반응시간과 동작시간 그리고 이 둘의 합인 수행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발기술 별, 피험자 별의 차이를 2월 변량분석한 후 두 번인에 대한 개별 비교를 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필름의 속도는 카메라에 내장된 타이밍 펄스 발생기의 표시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3) 3차원 좌표의 계산 및 속도

3차원 좌표는 본 연구소에서 개발한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데이터의 스무싱은 커브 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커브 피터에서 생성된 파일을 이용하여 절

대 속도를 구하였다. 속도는 차는 발의 발끝의 절대속도만을 구하였다. 계산에 쓰여진 프로그램은 부록에 첨부하였으며 공간 좌표계는 (그림 II-2)와 같이 정의하였다.

(4) 충격력

매우 짧은 시간(t)동안 작용하는 힘 F(t)의 역적(총격량) P는

$$P = S_0 \cdot F(t) \cdot 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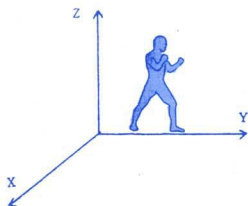
가 된다. 충격은 직접충격이 정확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충격량계는 사람의 손이나 발로써 치거나 차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질량이 일정한 목표물이 충격을 받은 후의 목표물의 운동량을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구하였다. 즉, 시각 t에서의 속도 벡터 V_1 , 시각 t₂에서의 속도 벡터를 V_2 라 할때 역적의 벡터 I는

$$I = mV_2 - mV_1$$

이 되고 정지해 있던 물체에 대해서는

$$I = mV_2$$

가 되므로 목표물의 운동량으로 I 값을 구하였다. 또한 카메라에 잡힌 충격 시간을 구하여 이때 작용한 평균력을 구하였다. 실제로는 목표물과 차는 발이 정확히 중심충돌이 되지 않으므로 그 값이 약간 과소 추정될 수도 있다.



(그림 II-2) 3 차원 좌표계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발차기별 수행 시간

수행시간(performance time)은 응답시간(response time)이라고도 하며, 자극의 제시에서 동작이 완료되는 때까지의 시간 즉 반응시간과 동작시간의 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용 플래시가 카메라에 잡힌 시간부터 피험자의 발이 목표에 맞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발차기의 수행 시간으로 정하였다.

반응시간(reaction time)과 동작시간(movement time)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간에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Botwinick과 Thompson(1966; 6-15), Franks B.D(1973; 125-126)는 전운동시간(pre-motor time)과 근 운동시간(motor time)의 합, Robb M.D.(1972; 86)는 자극의 출현에서 반응의 개시까지의 경과한 시간, Drowatzky J.D.(1981; 109)는 자극이 나타나는 순간과 반응이 시작되는 순간 사이의 시간으로서 반응시간을 정의하고 있다.

본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최초의 반응이 시작되는 것은 팔의 움직임 또는 앞 무릎을 굽히는 동작에서 관찰되었는데 피험자들의 평균반응 시간은 피험자별로 .18, .24, .23, .22초로서 평균 .21초(S.D.=.03)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반응시간은 국소 반응시간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체력 측정시에 측정하는 것은 전신 반응시간이다. 즉, 국소 반응시간 보다는 전신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운동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더 타당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Johnson L.(1985; 23); 원호연(1982; 144); Keller(1942; 146-15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시간을 불빛 신호가 주어진 순간부터 차는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의 시간으로 정하였다.

동작시간(Movement time)에 대해서는 Singer R.N.(1980; 208)은 반응이 시작된 후 특정의 동작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Drowatzky J.D.(1981; 109)는 피험자가 반응을 개시할 때부터 실험에서 요구된 반응을 완료시킬 때까지 계속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작시간을 불빛 신호에 의해 차는 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순간부터 특정 발 기술로서 목표를 타격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으로 정하였다.

Doris I. Miller와 Richard C. Nelson(1976; 39-40)은 "동역학의 분야는 시간적 분석, 키네메틱스, 키네틱스의 세 단계로 구분되며, 시간적 분석은 운동 기술 분석의 역학적 기초로서 운동 요소들의 시간적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 첫 단계가 된다. 거의 모든 스포츠 기술들은 운동수행과 연관되었을 때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작은 요소들로 세분될 수 있으며, 시간적 분석은 선생이나 코치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학적인 분석은 앞차기와 들어찍기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발기술 전반에 대한 시간적 분석은 실제 현장에서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발기술을 역학적 측면에서 더 깊이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표Ⅲ-1부터 Ⅲ-9까지에 각 발차기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었으며, 그림Ⅲ-1부터 Ⅲ-9까지에 각 발차기 별로 차는 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순간부터 목표 타격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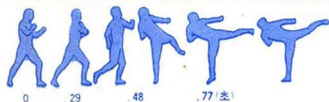
(표Ⅲ-1) 몸통 돌려차기의 수행시간(초)

피험자	앞발 움직임	차는 발 떨어짐	타격
1	.255	.413	.592
2	.321	.500	.704
3	—	.474	.668
4	—	.428	.617
평 균	.288	.454	.645



(표Ⅲ-3) 몸통 옆차기의 수행시간(초)

피험자	앞발 움직임	차는 발 떨어짐	타격
1	.204	.383	.648
2	.332	.551	.882
3	.342	.505	.785
4	.281	.495	.785
평 균	.289	.483	.775



(표Ⅲ-5) 몸통 뒷차기의 수행시간(초)

피험자	앞발 움직임	차는 발 떨어짐	타격
1	.235	.469	.683
2	.296	.546	.816
3	.275	.520	.745
4	.270	.546	.780
평 균	.269	.520	.756



지의 전체 동작을 나타내었다.

반응시간 즉, 신호의 제시부터 차는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의 시간은 평균 .484초(S.D. = .054)로서, 다케이사의 전신반응 측정기로 측정된 값이 평균 .295초(S.D. = .033)보다 느리게 나타났다. 이는 전신반응 측정기가 신호의 제시부터 발이 지면에

(표Ⅲ-2) 얼굴 돌려차기의 수행시간(초)

피험자	앞발 움직임	차는 발 떨어짐	타격
1	.291	.398	.612
2	.337	.582	.821
3	.235	.485	.689
4	—	.393	.622
평 균	.287	.464	.686



(표Ⅲ-4) 얼굴 옆차기의 수행시간(초)

피험자	앞발 움직임	차는 발 떨어짐	타격
1	.204	.393	.673
2	.286	.490	.847
3	.342	.520	.816
4	.245	.459	.770
평 균	.269	.465	.778



(표Ⅲ-6) 뒤후리기의 수행시간(초)

피험자	앞발 움직임	차는 발 떨어짐	타격
1	.204	.449	.719
2	.285	.515	.800
3	.255	.510	.801
4	.240	.510	.796
평 균	.246	.496	.779



(표Ⅲ-7) 몸통 몸돌려차기의 수행시간 (초)

피험자	뒷발 떨어짐	차는 발 떨어짐	타격
1	.495	.801	.969
2	.540	.930	1.150
3	.415	.745	.955
4	.520	.908	1.137
평 균	.492	.846	1.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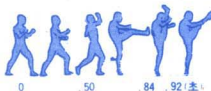
(표Ⅲ-8) 한발 나가 뒷차기의 수행시간 (초)

피험자	뒷 발 떨어짐	뒷발 앞으로 착	차는 발 떨어짐	타 격
1	.449	.683	.745	.969
2	.556	.842	.898	1.102
3	.546	.796	.852	1.046
4	.541	.770	.821	1.071
평 균	.523	.773	.829	1.047



(표Ⅲ-9) 들어 찌기의 수행시간 (초)

피험자	차는 발 떨어짐	최대 신전	타 격
1	.434	.750	.806
2	.551	.938	1.030
3	.520	.852	.928
4	.479	.836	.918
평 균	.496	.844	.921



서 떨어지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이며, 발차기 시 예비동작으로 일어나는 앞발의 움직임은 평균 .273초(S.D.=.028)로서 전신반응 측정기에 의한 측정치와 근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정

의한 전신반응 시간과 전신반응 측정치의 값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실제 발차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극의 출현부터 차는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의 시간 이므로, 이를 반응시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몸돌려차기와 한발 나가 뒷차기는 응용기술로서 두 동작으로 이루어지므로 시간적 비교는 단일 발 기술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발차기별 수행시간과 피험자별 수행시간을 2원 변량 분석한 결과는 두 변인이 모두 1%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Ⅲ-10)

(표Ⅲ-10) 발차기의 수행시간에 대한 2원 변량 분석표

변 량 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비
열간(피험자)	.098	3	.033	28.08**
행간(발차기)	.181	6	.030	25.92**
오 차	.021	18	.001	
전 체	.300	27		

피험자간의 차이를 사후 개별 비교한 결과는 피험자 1, 피험자3,4 그리고 피험자 2의 순으로 빨랐다. 이 결과에서 경량급부터 중량급까지의 선형적인 관계는 없지만 경량급이 중량급보다 빠르다고 볼 수 있으며, 피험자 2는 자기 체급에 비해 발차기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보여주는 것이다.(표Ⅲ-11)

(표Ⅲ-11) 피험자별 수행시간의 개별비교 결과

	피험자 1	피험자 2	피험자 3	피험자 4
피험자 1		.166**	.099**	.079**
피험자 2			.067**	.087**
피험자 3				.020

발차기별 수행시간의 개별비교 결과(표Ⅲ-12)는 몸통 돌려차기, 얼굴 돌려차기, 몸통 뒷차기, 몸통 옆차기, 얼굴 옆차기, 뒤후리기, 들어찌기의 순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몸통 돌려차기의 수행시간은 .645초이며 들어찌기는 .921초로서 제일 빠른발과 느린 발의 차이가 현저하였다. 이 차이는 전신 반응시간과 거의 비슷하며 발의 속도로 볼 때 약5m이상의 거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돌려차기에 비해 찌어차기는 시간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기술이라 볼 수 있다. 정낙희등이 대학선수권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의 게임을 분석한 연구(1985; 109)에 의하면 공격시 득점율이 높은 발 기술은 돌려차기(59.2%), 받아 돌려차기(13.1%)로서 돌려차기 기술에 의한 득점이 72%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다음으로 득점력이 높은 기술은 뒷차기로서 전체 득점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들어찍기(4.5%), 뒤후리기(2.2%)의 순으로 득점력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간적으로 뒤후리기 보다 느린 들어찍기가 더 득점력이 높은 것은 목표에 접근하는 발의 각

시간의 비교에서와 같은 결과로서 피험자 1이 가장 빠르며, 피험자 2는 자신의 체급에 비해 동작이 느렸다. 이 피험자는 발차기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 동작시간의 개별비교 결과는 (표Ⅲ-15)와 같으며 몸통 돌려차기가 .191초로 가장 빠르고, 두번째는 얼굴 돌려차기(.223초)와 뒷차기(.236초), 세번째는 몸통 옆차기(.292초), 얼굴 옆차기(.312초), 뒤후리기(.283초), 끝으로 들어찍기(.425초)의 순이었다. 수행시간과 비교해 볼 때, 뒤후리기의 동작시간이 옆차기와 시간차가 나지 않으며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 것과 뒷차기와 옆

(표Ⅲ-12) 발차기별 수행시간의 개별 비교 결과

	몸 통 돌려차기	얼 굴 돌려차기	몸 통 옆 차 기	얼 굴 옆 차 기	뒷 차 기	뒤후리기	들어찍기
몸 통 돌려차기		.041	.130**	.133**	.111**	.134**	.275**
얼 굴 돌려차기			.089**	.092**	.070**	.093**	.235**
몸 통 옆 차 기				.002 ⁻	.019 ⁻	.004 ⁻	.145**
얼 굴 옆 차 기					.022 ⁻	.001 ⁻	.143**
뒷 차 기						.023 ⁻	.164**
뒤후리기							.142**

** p < .01

도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뒤후리기 기술이 들어찍기 보다 더 득점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뒤후리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체 수행시간에서 각 피험자의 전신 반응시간에 의한 영향을 뺀 순수한 발차기의 시간 즉, 동작시간에 대하여 발 기술별, 피험자별로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역시 두 변인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표Ⅲ-13)

피험자간의 차이를 사후 개별비교한 결과는 (표Ⅲ-14)와 같으며, 피험자 1, 3, 4, 2의 순으로 빨랐다. 수행

굴 돌려차기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이 다르다.

이상의 시간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시합에 (표Ⅲ-13) 발차기 동작 시간에 대한 2원 변량 분석표

변 량 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비
열강(피험자)	.010	3	.003	14.31**	
횡강(발차기)	.141	6	.024	97.47**	
오 차	.004	18	.002		
전 체	.156	27			

** p < .01

(표Ⅲ - 14) 피험자별 동작시간의 개별비교 결과

	피험자 1	피험자 2	피험자 3	피험자 4
피험자 1		.052**	.014 ⁻	.026**
피험자 2			.039**	.027**
피험자 3				.012 ⁻

** p<.01

서 가장 득점력이 높은 발 기술은 몸통과 얼굴 돌려차기이며, 다음으로 뒷차기, 뒤후리기, 옆차기, 들어찍기의 순으로 득점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 발차기의 수행시간은 준비자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실험으로 고속 비디오 장치를 이용하여 전 체급의 선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돌려차기의 경우 자유자세는 .626초, 하퇴와 대퇴 각도를 135°로 구부린 자세는 .571초, 가법게 뛰는 자세(스텝밟기)는 .627초, 발 바꾸어 차기는 .897초로 나타났었다. 본 실험의 결과는 자유자세에서 측정한 것으로서, .645초인데 이것은 앞 무릎을 135°로 한 자세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피험자들의 앞 무릎 각도를 측정한 결과는 각각 평균 142°, 149°, 160°, 151° (전체평균 150.6°, S.D.=7.7)로 나타나 준비자세를 좀 더 낮출 경우 전체적인 수행시간이 덜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Ⅲ - 15) 발차기별 동작 시간의 개별 비교 결과

	몸 통 돌려차기	얼 굴 돌려차기	몸 통 옆 차 기	얼 굴 옆 차 기	뒷 차 기	뒤후리기	들어찍기
몸 통 돌려차기		.031 ⁻	.101**	.121**	.045**	.092**	.233**
얼 굴 돌려차기			.070**	.091**	.014 ⁻	.061**	.203**
몸 통 옆 차 기				.020 ⁻	.056**	.009 ⁻	.133**
얼 굴 옆 차 기					.077**	.029 ⁻	.112**
뒷 차 기						.047**	.189**
뒤후리기							.142**

** p<.01

발차기는 보통 예비동작과 함께 쓰여지게 되는데, 발 바꾸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0초, 한발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5초 몸을 180°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5초였다. 이 자료는 실제 응용동작을 구성, 조합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2. 발차기별 충격력

타격직후 10프레임에 걸친 타켓의 평균 절대속도는 (표Ⅲ-16)과 같다. 실험시에 타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차게 하였으나, 돌려차

기를 제외한 기술들에서는 차는 발과 타켓의 중심 충돌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돌려차기에 의한 자료는 발차기의 강도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기술에 의한 자료는 실제 발의 강도보다 과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 돌려차기가 더 정확성이 있음을 역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돌려차기와 몸돌려차기, 뒷차기와 한발나가 뒷차기의 경우 각각 단일 동작과 예비동작이 있는 응용동작의 비교가 된다. 예비동작이 있는 경우가 타켓의 운동량이

(표Ⅲ-16) 타격직후 타켓의 평균속도 (m / sec)

발기술 \ 피험자	피험자 1	피험자 2	피험자 3	피험자 4	평 균
몸통돌려차기	20.85	22.16	23.41	25.17	22.90
얼굴돌려차기	18.54	21.06	23.58	23.27	21.61
몸돌려차기	20.25	21.90	22.36	21.91	21.61
몸통옆차기	10.09	9.20	15.23	10.78	11.33
뒷차기	7.04	8.26	11.95	7.64	8.72
얼굴옆차기	13.57	11.42	10.42	11.97	11.85
한발나가뒷차기	11.72	12.54	14.56	14.06	13.22
뒤후리기	12.52	15.82	13.70	14.13	14.04
평 균	14.32	15.30	16.90	16.11	15.66

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돌려차기보다는 몸돌려차기가 운동량이 작게 나왔다. 이는 몸돌려차기가 돌려차기보다 정확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뒷차기와 한발나가 뒷차기는 예비동작이 있는 한발나가 뒷차기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논리적인 추정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몸통과 얼굴차기 즉, 중단과 상단의 높이에 따른 차이를 보면 돌려차기와 옆차기 모두 중단차기가 운동량이 적다. 본 실험결과로는 이것이 절대치의 차이인지 목표표를 타격하는 정확성이 부족해지는 때문인지 확실치 않으나, 전자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Ⅲ-17)에 타켓의 속도와 질량을 곱해서 얻은 운동량을 나타내었다. 운동량을 타켓의 접촉시간으로 나누어 얻은 충격력은 (표Ⅲ-18)에 나타내었다. 가장 충

격력이 큰 발기술은 돌려차기로서 최대치가 1208 N, 평균 1098.5N이며 다음으로 뒤후리기, 한발나가 뒷차기, 뒷차기, 옆차기의 순으로 충격력이 크다. 몸돌려차기는 돌려차기의 응용동작으로 돌려차기 보다 약간 작게 나타났지만, 이것은 타격의 정확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며 실제 충격력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전반적으로 타격의 정확성이 부족하여 만족할만한 자료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이 자료들은 타격의 강도와 정확성의 두가지를 함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인 강도는 돌려차기, 뒤후리기, 뒷차기, 옆차기의 순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후절에서 각 기술별로 차는 발의 절대속도를 구하여 이 결과를 확인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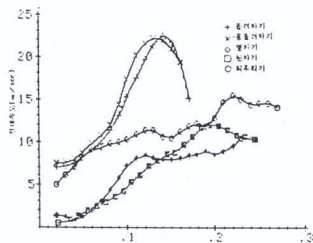
(표Ⅲ-17) 타격직후 타켓의 운동량 (kg m / sec)

발기술 \ 피험자	피험자 1	피험자 2	피험자 3	피험자 4	평 균
몸통돌려차기	10.00	10.64	11.23	12.08	10.99
얼굴돌려차기	8.89	10.10	11.30	11.16	10.36
몸돌려차기	9.72	10.50	10.03	10.51	10.19
몸통옆차기	4.84	4.89	7.30	5.17	5.55
얼굴옆차기	3.38	3.96	5.73	3.66	4.18
뒷차기	6.51	5.48	5.00	5.74	5.68
한발나가뒷차기	5.63	6.01	6.98	6.74	6.34
뒤후리기	6.01	7.59	6.57	6.78	6.74
평 균	6.87	7.40	8.02	7.73	7.50

발기술	시험자 1	시험자 2	시험자 3	시험자 4	평 균
몸통돌려차기	1000	1063	1123	1208	1098.5
얼굴돌려차기	889	1010	1131	1116	1036.5
몸돌려차기	972	1051	1003	1051	1019.3
몸통옆차기	322	326	487	517	413.0
얼굴옆차기	338	324	382	366	352.5
뒷차기	434	365	333	383	378.5
한발나가뒷차기	375	401	465	449	422.5
뒤후리기	400	506	657	678	560.3
평 균	591.2	630.8	697.6	721.0	660.2

3. 차는 발의 속도

차는 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순간부터 목표물에 맞을 때까지의 발끝의 절대속도를 동작시간이 빠르고 발기술이 정확한 시험자1의 동작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그림Ⅲ-10)에 나타내었다.



(그림Ⅲ-10) 발 기술별 절대속도의 비교

최대속도는 돌려차기 22.4 /sec, 몸돌려차기 22.1 /sec, 뒤후리기 15.4 /sec, 뒷차기 12.0m/sec, 옆차기 10.3m/sec의 순으로 컸으며, 타격시의 속도는 몸돌려차기 19.2m/sec, 돌려차기 15.0m/sec, 뒤후리기 14.0m/sec, 뒷차기 10.4m/sec, 옆차기 10.3m/sec의 순으로 컸다. 돌려차기와 몸돌려차기의 최대속도는 비슷하지만 타격시의 속도는 몸돌려차기가 유의하게 크다. 그러나 실제 충격력은 오히려 작게 나왔는데, 이는 타격의 정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발의 속도를 볼 때 각 발기술별 충격력은 돌려차기를 제외한 기술의 경우 약간 과소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충격력의 순위 비교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Ⅳ. 결 론

태권도의 기본 발기술인 돌려차기, 옆차기, 뒷차기, 뒤후리기, 들어찍기를 역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대표 선수 4명의 발차기 동작을 두대의 고속카메라로 촬영하여 3차원 영상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발차기별 수행시간은 몸통 돌려차기가 평균 .64초로 가장 빨랐으며, 다음으로 얼굴 돌려차기, 몸통 뒷차기, 몸통 옆차기, 얼굴 옆차기, 뒤후리기, 들어찍기의 순으로 빨랐다.
2. 발차기별 동작시간은 수행시간과 동일한 순서로 빨랐으며, 가장 빠른 몸통 돌려차기의 동작시간은 평균 .19초였다.
3. 발차기별 충격력은 몸통 돌려차기가 평균 1098뉴턴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뒤후리기, 뒷차기, 옆차기의 순으로 컸다.
4. 같은 발기술에서는 얼굴차기가 몸통차기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며 충격력은 작았다.
5.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장 효율적인 발기술은 몸통 돌려차기이며 몸통 뒷차기가 다음으로 효과적인 발기술이다.

현 장 적 용 방 안

몸통과 얼굴차기를 포함한 단일 발기술(돌려차기, 옆차기, 뒷차기, 뒤후리기, 들어찍기)의 수행시간, 즉 신

호가 주어진 순간부터 차는 발이 목표에 맞을 때까지의 시간은 평균 .76초로 나타났는데, 반응시간 즉, 신호가 주어진 순간부터 차는 발이 지면에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48초로서 전체 수행시간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발차기의 전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응시간을 단축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피험자들은 차는 발이 움직이기 전에 앞발을 먼저 움직이는 예비동작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동작을 없앨 경우 평균 .19초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준비자세에서의 무릎의 굽힘도 차기시간을 단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발차기 전에 낮은 자세(앞발의 대퇴와 하

퇴의 각이 135°정도)를 유지할 경우 평균 .07초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발차기의 시간과 강도, 정확성으로 볼 때 들러차기가 가장 효율적인 발차기이며 다음으로 뒷차기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두 기술을 기본으로 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발차기의 정확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시선이 목표에 고정된 발차기는 정확성이 있었으나, 뒤로 도는 동작이 있는 발차기의 경우 정확도가 낮았다. 따라서, 발차기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방안을 모색하여 정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이금세, 생체역학, 서울: 교학 연구사, 1986.
- 이민영 역, 운동 역학, 서울: 형설 출판사, 1982.
- 김석련, 태권도 국내 학술연구 논문의 분류에 관한 연구, 태권도 제57호, 대한 태권도 협회, 1986.
- 성낙준, 태권도 찢어차기의 역학적 분석,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신보삼, 주·도·투 운동의 생체역학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 양동영, 태권도 차기동작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관한 생체역학적 분석,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 장기준, 태권도 앞차기와 찢어차기의 운동역학적 분석,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정낙희, 의 2인, 태권도 경기의 공격유형에 따른 득점 변인과 실점변인 분석, 한국체대 체육 과학연구구 소 논문집 4권 1호, 1985.
- 정찬모, 의 5인,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대한 체육회, 1985.
- 한명우, 의 1인, 복싱선수의 반응시간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대한 체육회, 1985.
- 황인승, 태권도 뒤후러차기 기술의 역학적 분석, 제1회 세계 태권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1985.
- 황인승, 태권도 앞차기의 운동역학적 분석, 연세대학교, 1986.
- Miller, D. I., and Nelson, R. C., Biomechanics of Sport. Philadelphia: Lea & Febiger, 1976.
- Winter, D. A., Biomechanics of Human Move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9.
- Botwinick, J., and Thompson, L. w., Premotor and Motor Component of Reaction Time. J. of Experimental Psychology vol. 71, 1966.
- Drowatzky, J. N., Motor Learning. Burgess Publishing, 1981.
- Franks, B. D., et al., Evaluating Performance in physical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73.
- Miller, N. R., et al., A Technique for obtaining Spatial kinematic parameters of Segment of Biomechanical Systems from Cinematographic Data. J. of Biomechanics Vol. 13, 1980.
- Miller, D. I., and Petak, K., Three-dimensional Cinematography. Kinesiology III. A. S. for Health, P. E. & Recreation, Washington, 1973.
- Robert Shapiro, Direct Linear Transformation Method for Three-dimensional Cinematography, Research Quarterly vol. 49, No. 2, 1978.
- Wood, G. A., Data Smoothing and Differentiation Procedures in Biomechanics. Exercise and Sport Sciences Review. vol. 10, 1982.

오봉산 등산

본회에서는 체육주간 행사로 강원도 오봉산 등산을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연수원 등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황춘성 전무이사의 인솔로 하 이번 행사는 태권도 임직원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 넣는 즐거운 계기가 되었다.



오봉산의 봉고당

한규인 / 협회 홍보실장

태권도의 현재와 미래를 짊어질 임직원 백여명이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낸 일은 전무후무한 일로서 의미 있고 즐거운 산행이었다.

갯가지의 아름다움을 수놓듯 지니고 있는 오봉산은 강원도 회양군 장양면과 고성군 장전읍의 경계에 있는 해발 1,264m에 달하는 높은 산이다. 외금강(外金剛)의 한 봉우리로 세지봉(勢至峰), 문주봉(文珠峰), 선창산(仙蒼山), 상등봉(上登峰) 등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산은 다른 산과 달리 원추형 첨봉(尖峰)이며 북쪽으로는 천불동(千佛洞)의 대협곡이 2km에 걸쳐 펼쳐져 있고 남쪽은 세지봉 사이에 만물상(萬物相), 천선대(天仙臺), 삼선암(三仙岩), 온정령(溫井嶺) 등 금강산의 정수(精粹)를 모은 경승지가 펼쳐져 있다. 산을 오르는 태권도 임직원들 모두의 마음은 자연에 동화된 듯 여유가 넘쳐 흘렀다.

상사도 형갈고 직원들도 형제같이 그래서 모두가 협력하고 도와주고 오르는 산길은 부담이 없어서 좋았다. 또한 자연은 어떤 사람이고 감싸주는 포용력이 있어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 여가 구분이 없이 모두를 대등하게 대하여 주며 정상에 오르는 사



소양댐 기념탑에서.

람에게는 더 멀리 내려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만인에게 평등한 자연의 진리를 일깨워준 이번 산행에 더욱 더 멋있었던 일은 강원도협회에서 제공한 통째지 바베큐의 원시적인 먹음직스러움, 한없이

하였다.

권도관계 임직원 백여명이

천 2백 64미터에 달하는 오봉산 정상을 향하였다.

그러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맑고 푸른 소양호를 가르며 계곡을 질주한 뱃놀이(?)를 들 수 있다.

봉고당(?)의 분위기는 소양댐을 출발할 때부터 무르익었다. 로진꼬냐(?)에 더덕, 깡통고추장에 피차 부

담없는 연령층의 9명의 약당(樂黨)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노래를 부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북한강을 낀 경춘가도를 즐겁게 달렸다. 그러나 복잡한 서울거리를 들어서면서 곡주(穀酒)를 소화하지 못한 모모씨에 의해 차내가 잠시 소란을 피우게 되어 인솔 책임자인 총대장에게 누를 끼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금 생각하니 뒤통수께 꾸지람을 들은 일도, 한 사람당 5만원의 술값(?)도 기억될만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야외회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고당(?)의 추억이 재발(再發)아닌, 재미있고 유익한 사건으로 칭찬(?)받는 봉고당이 되어 잃은 점수를 만회하리라.

“인간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강미숙 / 대한태권도협회
서무담당

4월 24일, 학창시절 소풍가기 전날의 들뜬 기분과 같이 오랜만에 어린 아이처럼 들떠 내일의 날씨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약간의 안개 낀 날씨 속을 지나 국기원에 도착했다.

거기엔 벌써 많은 분들이 모여 즐거운 모습으로 대화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대한 태권도 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연수원의 임·직원들이 하나둘씩 모두 모여 인원을 확인한 후 오봉산으로 향했다.

차안에서는 흥겨운 음악과 대화의 단절을 뛰어넘어 평소에 근엄하고 어려웠던 상사들과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임원들의 구수한 노래가락도 즐거움을 복돋아 주었다.

태권도 사무국 직원들이 이렇게 한데모여 가족같은 마음으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던 기억은 내가 입사한

이래로 처음이었다.

그래서인지 오봉산을 오르면서도 서로가 불편하고 힘든것을 안타까와 하며 갖고 있는 음식들과 음료를 나누어 주는 정겨움을 보였다.

산에 오르면서 부터는 너무 힘이들어 국기원 여직원들과 나 또한 산을 잘타시는 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겨우 산을 내려왔다.

역시 평소에 운동을 안한것이 이런 곳에서 탄로난것같아 부끄러웠다.

하지만 청평사에 도착하여서는 조금전의 힘들고 포기하고픈 마음은 싹 가시고 상쾌하고, 정상을 뛰어넘은 대견함으로 마음이 뿌듯하였다.

맑은 산골물에 손발을 담그고 세수까지 하고 나니 급작스런 시원기를 느꼈다.

그런데 강원도 협회에서는 태권도 사무국 직원들이 어려운 산행과 더불어 강원도까지 올 수 있어 기쁘다는 뜻으로 통돼지 바베큐를 준비하여 우리 직원들에게 분배를 해 주었고, 준비해 간 음식들과 음료를 펼쳐놓고 옹기종기 모여앉아 맛있게 먹으며 신선한 공기와 더불어 즐거움을 만끽했다.

또 한쪽에선 여직원들이 모여 오락을 하고 노래도 부르며 하루해를 보냈다.

아쉬움과 함께 돌아가야할 시간이기에 청평사에서 배를 타고 소양강까지 오며 남자들은 점심시간에 통돼지 바베큐를 안주로 마신 술들이 흥을 돋구어 더욱 신나고 주저함 없이 즐거운 노랫가락이 소양댐까지 가는 배안 이곳 저곳에 흘러넘쳤다.

배안의 15분 동안은 이렇게 끝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해 출발했다.

올라가는 버스안에선 올해의 활기참 보다는 조금씩의 피로가 겹쳐 직원들의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서울에 도착했다.

서로 고생 많이 했다는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아쉬운 안녕을 했다.

나는 국기원의 긴 포도 위를 걸으며 인간이 어울려 살아가는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했다.

가끔은 외롭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새롭게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었다.

4월 23일 산행은 몸과 마음이 모두 맑아지고 건강해진 하루였다.

오랜만에 틀어 짜여진 생활속을 벗어나 한박 웃음과 함께 산행을 한 것이 그 다음날 부터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 더욱 친절하고 진실한 사무국이 되길 기원해 본다.



더 많은 창조를 위해 갖은 휴식

최호성 / 국기원 사무국

“호성아 일어나야지”

메조소프라노 엄마의 기상소리에 멀건히 한쪽 눈을 뜬채 붉은 숫자를 나타내는 시계를 바라본다. 아이고! 벌써 6시가 넘었네.

오늘은 야유회 가는 날인데 서둘러야 하겠는걸.

한참 바쁘게 움직여 김밥싸고 과자챙기는 소풍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가방에 소지품 몇가지를 밀어넣고 산뜻한 발걸음을 옮겨본다.

조금은 서늘한 기운이 돌지만 하늘은 푸르고 바람도 불지 않는 그런대로 좋은 날씨였다. 학교 졸업하고 국기원 일원이 되고나서 세번째 대하는 야유회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생 소풍만큼이나 들뜬 기분으로 버스에 오르니 한주일동안 피로가 절절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구석에 자리잡고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예년엔 토요일에 행해졌던 야유회가 올해는 좀더 많은 태권도 가족들과 함께 봄나드리를 떠나려 하다 보니 신나는 날 24일, 금요일이 되었다. 버스는 나를 아침이면 떼어놓던 같은 정류장에 토해놓곤 어디론지 제갈길로 가버리고 나는 또 즐거운 시간들이 될 것을 기대하며 국기원 트랙에 발을 들여 놓는다.

웅성웅성 꽤 많은 사람들이 알록달록한 등산복에 울긋불긋한 등산모를 쓰고 이 차에, 그리고 저 차에 나눠 타고 있었다.

국기원과 대한 태권도 협회와 세계 태권도 연맹



강원도 협회에서 제공한 통돼지 바베큐.

죽들이 오봉산으로 봄소풍 가는 날!

홍중수 부원장님은 참석하시지 못하셨지만 엄운규 부회장님을 비롯한 각기관의 여러 어른분들 백여명 남짓한 인원이 두대의 대형버스와 한대의 봉고차와 더불어 우리를 손짓하는 강원도로 향했다.

주말이 아니여선지 모두 출근을 마무리할 시각인 지라 옆으로 스치는 차는 여유로이 보였다. 버스의 뒷좌석엔 언니 동생들이 자리잡고 여러가지 게임을 벌여 버스안은 조용할 수만은 없었다. 갖가지 게임으로 옆드려 등을 맞는 벌칙도 있었고, 버스 앞어나가 큰소리로 「나는 오봉산 가는 길에 또라이(?)가 댔나보다」라고 세번째 외칠때는 얼굴이 붉어지기에 충분한 벌칙이 되고 말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맞추어 부르는 노래는 모든 이를 한마음으로 만들었고 우리들의 자동차는 어느덧 서울의 경계를 벗어나 춘천에 진입되고 있었다. 시라고는 하나 서울에 비교할만은 못하였고 소양강 물줄기가 앞뒤로 펼쳐질뎔 역시 호반의 도시로구나 생각됐다.

양옆으로 늘어진 가로수를 헤치며 거침없이 달리던 버스는 우뚝 솟은 산이 보이자 뿌이연 연기를 뒤로 한채 꼬불꼬불 산허리를 감으며 올라가고 있었다. 앞을 봐도 묵묵한채 펼쳐진 산만이 존재했고 높이가 더해감에 비례하여 하늘은 앞쪽게도 높게만 느껴졌다. 이만치 와서 저만치 불라치면 스프링처럼 생

긴 산길이 아찔하게 보인다.

얼마만큼 왔을까?

한참동안 네발달린 표정없는 기계덩어리의 도움으로 본의 아니게 앉아서 하는 등산을 해보게 되었다.

서울을 출발한지 3시간정도 소비되어 차의 엔진 소리는 정지되고 일행은 배낭을 챙겨들고 덜컥덜컥 거리던 흔들림의 여운을 느끼며 땅에 발을 디딤으로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었다.

차에서 여러 상자들이 내려졌고 상자속의 도시락은 각자의 몫이 나뉘었다. 가방속에 점심을 챙겨넣고 목에는 나눠주신 기념 수건을 메달은 모습으로 활짝 고개라 불리우는 가파른 언덕부터 우리들의 여정은 진행되었다. 선두 일행은 벌써 저만치 걷고 있었고 나는 꼴찌의 불명예를 사양하고자 부지런히 움직였다.

정오를 약간 넘은 시간이라 시장기에 동요됐는지 길음을 옮겨 놓으며 도시락을 비우는 사람도 보였고 쾌활한 언니들의 노래소리도 들렸다.

발밑에 밟히는 나뭇잎은 어떤 쿠션보다 폭신했고, 간혹 들리는 새소리는 우리 가족들의 방문을 반기는 듯 했다.

얼마간은 사람들의 발길에 닦여진 순탄한 길을 걸었다.

삼삼오오 무리지어 이런얘기 저런얘기들을 꽃피우며 산과 한몸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간간히 부는 바람이 그 땀의 열기를 식혀 주었다.

국기원 아가씨들은 출퇴근 길에 다져진 평소 실력인지 피곤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고 능숙한 솜씨로 산과 호흡하고 있었다.

오르막 길을 쇠뎅이가 해결해서인지 우리가 걷는 길은 내리막 길을 향하고 있었다.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곳에 철책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완전히 네발로(?) 철책에 매달려 내려올때는 색다른 드릴도 맛볼 수 있었다. 바위가 많은 꼭대기에 올라 마시는 물한모금은 표현이 어려운 맛이었고 소양호를 배경으로 품잡고 찍힌 사진은 걸작이었다. 여러개의 바위가 얹혀있고 한사람만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구멍바위라 불렀

제8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대회를 마치고

나호동 / 용인국민학교 6의8



태권왕겨루기 대회에서 라이트급 1위를 차지하고
금메달을 목에 건 나호동 어린이의 모습.

동안 책과 씨름을 했다. 그러는 가운데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자만심이 생겼단다. 그래서 그는 붓집을 싸가지고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 얼마동안을 내려왔을까? 골짜기 시냇가에서 호호백발의 할머니가 쇠공이를 갈고 있었다. 그래서 이태백은 무척 신기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태백이 볼 때 그것은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속해 쇠공이를 가는 것이었다.

이태백은 꾸준히 노력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산을 향하여 발을 옮겼다. 그 후 이태백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시인이며 문장인이 되었다”

지금껏 고통스러운 훈련을 참지 못하고 놀 것 다 놓고 먹을 것 다 먹으면서 언제 무엇을 이루겠냐는 아버지 말씀이 떠오른다.

나는 지금까지 태권도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그 결과로 제8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에서 라이트급 1위와 미기상을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냈다.

훌륭한 장군 밑에 약한 병사가 없다는 말과 같이 지금의 내가 있도록 격려해주신 박길원 교장 선생님과 김병운 담임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저를 지도해 주신 김두희 사범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와 함께 많은 꿈을 품은 용인 국민학교 선수단원 모두에게 나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태권왕에서 입상한 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장차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야겠다.

나는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가 되라고 태권도를 권하셨다. 직접 태권도를 대하니 많은 인내심과 노력이 없이는 시합에 나갔을 때 좋은 경기를 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맛있는 요리상을 받고도 그것을 마음껏 못먹는 때가 허다했다. 아버지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며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중국 옛 시인 중에 이태백이라는 분이 있었던단다. 그가 젊었던 시절 깊은 산중으로 공부를 하러가서 한 3년

50대에 태권도에 입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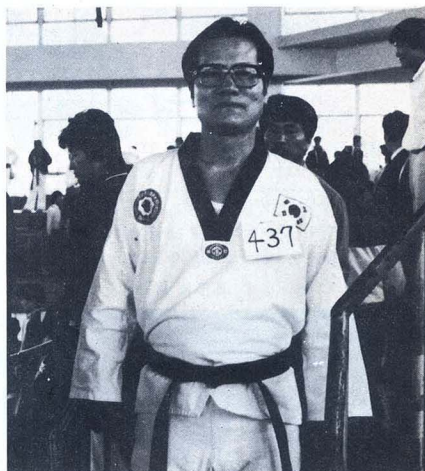
이철하 / 대한정밀공업주식회사
전무이사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 각각 건강하고 건전하게 발전 수행되게 함과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서 하나의 조화속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져 나가야하는 것이다.

인간이 각종 사회조직을 이루고 그속에서 자아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정신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은 그 기본이 인간의 지적 정서적인 부분에 뿌리박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사회를 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시키는 정신력은 그 근본이 육체적인 토대위에서 존재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조건인 육체적 부분, 즉 "체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당위성속에서 나는 내가 나의 육체적인 부분의 원동력, 나아가 정신력, 지적, 정서적 힘의 토대인 강한 "체력"을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해 찾아 낸 방법으로서 내가 선택 실천하고 있는 이 태권도의 장점과 태권도가 나에게 준 이점 그리고, 그 과정을 언급하려 한다. 이러한 나의 주장은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나와 같은 50대에세우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서일뿐이다. 젊었던 시절, 의욕과 야망이 엄청나게 컸던 나는 나름대로의 회사를 창립하여 열심히 발전시켜나갔던 중에 예기치 못했던 불의의 인생 풍파로 40대 전후의 인생항로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몇년간의 휴식후에 재출발하여, 현재는 한 중소기업의 전무이사직에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자신감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제 나이 50이 넘으니, 주위의 50대 동년배들의 이야기인 즉, 정년 준비니, 이제 자신들이 인생은 끝났으니, 자식들 잘되는 것이나 보고 자식들에 대한 남은 인



승품심사에 응심한 이철하씨.

생을 의존 내지는 걸어 보느니-하는 나약한 마음으로 모두 약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나 자신의 걸어온 길을 깊이 반성하고 반추하고, 과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후회없이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는 생활로 시간을 아끼고 나누면서 피나는 노력을 톡바로 해보고 살아온 짧은 날들이었든가를 깊이 생각하고 거듭 되새겨 보았다. 결론은 너무도 편케, 게으르게, 피나는 노력같은 것은 전혀없이 구두선 같은 과욕만을 가지고 명실상부하지 못했으며 내칠이고, 알찬 자기 실력을 쌓는 속에서의 정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40대 전후는 그와 같이 되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50이 넘어 늦기는 했지만 나의 인생은 이제 부터다하고 새로운 결심과 결의로 인생의 재 도전을 시작했다.

옛말에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것,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돈과 명예를 떠난 인간의 가치관속에서의 생활은 이제부터다. 기상은 이른 아침 정각 5시, 탁상시계의 자명종소리와 함께 번개같이 일어나 반바지에 줄넘기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 줄넘기 1,000번에 조깅 3키로를 하고 나서 욕조에 냉수를 가득채우고 무차별하게 다 퍼붓는 운동을 시작한지 어언간 3

년, 그러다보니, 겨울이면 두꺼운 내의를 사다달라고 하여 입던 그 내의마저 이제 4년째 다 벗어버리고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제 틈났으면 한페이지의 책이라도 읽는 공부하는 생활로 완전히 변해버렸다.

일본어 학원도 3개월 다니고 매일 1시간씩 3년간 일본어 공부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새벽 5시 남들은 조용히 잠에서 아직 깨지 않은 시간에 홀로 줄넘기 1,000번, 조깅 3키로를 3년간 뛰다보니, 영하 10도 이하인 눈보라치는 겨울날의 새벽은 한없이 외롭기만했다. 정작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 하는 실감이난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야망에 불타는 내 생활에 불이 붙었다. 무엇에도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고, 과감하게 계속 걸어가기 위하여 좀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히 허락하는 한 새로운 꿈의 실현을 위하여 70-80세까지라도 좋은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 보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운동이 없을까하고 찾던 중, 나는 이 태권도에 입문하게 되었다. 50대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성기요, 여러면에서 실력이 충만한 자신감에 넘쳐 있어야하는 시기인데 흔히들 별볼이 없이 이제 다 살은 것 같은 대화들이 나는 웬지 듣기가 싫었다. 태권도를 하기 위하여 나이 50까지 안하던 운전도 배웠



태권도 수련을 시작한 후
정작 내인생은 이제부터라고 말하는 이철하씨.

다. 운전을 하고 도장(풍남 체육관)까지 아침 5시 50분 도착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휴식없이 열심히 배우고 땀다. 이기섭 관장께서 직접 지도해 주시는 개인지도-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으로부터 시작하여 운동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지도 방법이다.

이 운동(태권도)을 초단 심사까지 받았지만, 강력하고 힘찬(웬만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강훈의 연속에서 2단의 훈련에 지금도 계속 열심이 정진하고 있다.

300만원에서 500-600만원의 호텔 웰스크럽에 명예로운 가입등록을 해두시고 주 1-2회도 못 나가시는 40-50대 이상 분들한테, 나는 이 태권도에 입문하여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서라도 몸을 풀어 보셨으면 얼마나 좋겠나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본다.

흔히들 태권도 하면 어린이들, 젊은층의 학생들이나 하는 운동으로 사람을 때리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나 배우는 과격한 운동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나이에 맞도록 적절히 무리하지 않게 얼마든지 자기 체력에 맞추어가며 할 수 있는 체력, 정신력 훈련으로서는 제일 좋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 반면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체력의 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강화 되어 20-30대에 못지 않는 힘의 실력도 반드시 가지게 되니 이 얼마나 흐뭇하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육체의 유연성 면에서도 20-30대 못지 않게 늘수 있고, 이 운동의 훈련을 겪어 내면서 크게는 정신력, 적게는 기억력도 나의 경험으로 봐서는 20-30대 때와 똑같이 되살아난 것 같고, 이 운동을 하기전과 지금에 크게 달라진 것은 아침부터 격무과로로 오후 늦게 피로하던 것이 말끔이 없어지고 새벽운동의 힘은 오후에 점점 활력이 생기는 기분으로 전환된 것 같아 나는 더 열심히 계속하고 싶은 심정이다. 태권도는 보편적으로 아는 과격한 운동만은 절대 아니다. 동의보감에 藥補不如肉補 肉補不如食補란 귀절이 있다. 이는 보약을 먹어 보신하는것 보다는 고기를, 고기를 섭취하여 보신하는것 보다는 음식을 고루 섭취함이 좋다는 것일껄다.

그러나 본인은 食補에다 규칙적인 운동, 그것도 태권도 수련이야 말로 50대 갱년기에 필요한 운동으로 자기 체력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조정, 조절해서 할수 있는 운동임을 거듭 말하고 싶다. 이제까지 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태권도의 과학적 선진화 대열에 서서

제5기 지도자 2급과정 교육을 마치고



윤종식 / 태권도 성무체육관
대구직할시 수성동 범어3동 27-1번지

늦가을의 여운도 잊은 채 태권도의 과학적 선진화에 주역이 되고자 전국 도처에서 100명의 사범, 관장, 기타 여러 분들이 국기원 연수원에 모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엄격한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된 교육생들이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6시간의 교육의 장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각오와 열의로 눈망울들은 더욱 더 빛나고 있었으며, 나 또한 질세라 야간열차로 설친 잠을 떨쳐 버리려고 안간힘을 써가며 강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조금 지루함도 있었으나 이내 전교육생들은 태권도의 과학적 선진화라는 대 명제 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강의에 열중하였으며 강사님 또한 열

강으로 강의실의 분위기는 자못 장엄하기까지 하였다. 틔나는대로 금급한 사항을 질문하며 필기하는 등 어느 누구보다 더 교육에 모범적으로 임했다고 자부하며, 또한 긍지를 가지는 바이다.

은통 대·소제목들로만 가득찬 두툽한 교재, 그리고 뻑뻑히 짜여진 시간표, 그중 어느 하나 어느 한시간이라도 뻔뻔해 뻔 수 없는 귀중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다. 정규대학에서 한학기 이상에 걸쳐서 강의하는 내용을, 그것도 교육생의 거의가 비전공분야인 과목들을 약10시간으로 축소시켜 강의 받는다는 것이 사실 무리였으나,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손은 필기 하기에 바빴고 눈과 귀는 강사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놓치지 않게 살폈으며 방과 후에는 2시간씩의 자율학습을 통하여 모자라는 점 등을 보충해 나갔다. 이처럼 불리한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복습했으므로 경기 지도자 2급 자격검정시험에 있어서 체육대학에서 받는 타종목의 23개 단체의 교육생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합격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는 옛날처럼 무조건적인 주먹구구식 지도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지도자상을 심어주고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겠으며, 또한 이번 교육에서 얻은 값진 지식 등을 심심 활용하여 태권도의 과학적 선진화에 주역이 되고자 내심 다짐하면서 교육기간 중 느낀점 등을 간단히 적어 붙자 한다.

교육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의 수강자 유의사항 중 감점사항 등에 대하여 들었을 때 강의실엔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서로 낮 모르는 얼굴들로 서먹서먹 하였으나 다음날부터 이내 전교육생들이 강의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의식 개혁시간의 박건호 강사님의 유머스럽고 찜찜한 목소리는 아직도 귀에 쫓인다. 무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철학, 현 태권도인이 가장 부족함이 바로 자기 자신의 철학인 것이다. 잘되면 제타이고 못되면 조상타고 돌리는 습성을 벗어 버리고 평소의 주관대로, 뚜렷한 주체성을 가지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알라고 나무라듯 고성으로 역설하던 시간이 뇌리에 남아있다. 일본의 잔학적 침략상을 날날이 고발하듯 강의하신 박권규 국사 강사님 이 시간 만큼은 끓어 오르는 분노와 일제치하에서 압박받던 선조들의 생각으로 강의실은 쥐죽은

듯 침울하기만 했으며, 하루 빨리 국력이 신장되고 남북통일이 되어서 찬란한 민족문화를 세계만방에 자랑할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가장 많은 시간이 배정 되었으며 교육생 전원이 가장 가슴즈였던 영어과목, 한 사람의 과학자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신 정월용 강사님의 노래씀씨는 과히 명창이셨다.

태권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품세의 발생동기는 무엇이며, 그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재 정리 시켜준 기술지도시간은 참으로 귀중했으며,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어떠한 검사를 당당도 있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떤 과학적 트레이닝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둘 것인가, 수련생이 슬럼프에 빠졌다면 그것은 어떤 심리적 영향 때문이며, 어떤 이유로 경기력 저하가 일어나는가, 발차기를 할 때 어떻게 차면 가장 빨리 찰 수 있으며, 큰 힘을 낼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번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들을 토대로 연구하고 분석지도 한다면 태권도의 앞날은 매우 밝으리라 본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료논문」이 그 첫째였던것 같다. 태권도에 관한 논문이라면 거의가 실험 측정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이다. 그런데 논문에 대한 사전준비도 없이 지방에서 올라온 교육생들이 19일만에 조사 연구하고 통계내고 결론짓는 실험 논문을 쓴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어떤 교육생은 태권도인의 의식구조에 관한 논문을 쓴다고 설문지를 돌리고 하였지만, 거의가 타인의 논을 복제해서 쓰는 것 같았다. 차후로는 수강생 모집요강에 수료논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좀더 연구하고 진실된 논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며, 다음으로는 「체육사회화」이다. 우리 나라 사회에 있어서 체육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으며, 태권도와 체육사회화과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으며, 있다면 어떤 효과인지 경기지도자들이 무엇을 알아야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지나쳐 버리고 주마간산식의 강의였다는 인상이 짙으며, 「스포츠 마사지」또한 운동경기시 일어날수 있는 상해에 대한 응급처치, 마사지 등의 구체적인 실기 강의로써 일선지도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는데 치료법 등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스트레칭 체

조」시간 또한 교육기간 중의 피로를 푸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수기법」시간은 일선 지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제대로 실기교육이 되지 못한 것 같다. 대체로 강의 분량에 비하여 강의시간이 너무 축소된 탓인지 질문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강의시간을 마치고 나가시는 강사님을 붙잡고 질문공세를 퍼는 결례도 범했었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재의 내용이 너무 빈약했던 것 같다. 대 소제목들로만 가득찬 교재에 노트를 하자니 강사님의 설명을 놓치겠고, 설명을 듣자니 필기를 놓칠지경이었다. 다행히 체육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의 유인물을 복사해서 보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필기량이 많은 편이었으므로 참고도서를 소개한 다던가 아니면 교재보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으며 수료시험 또한 그 과목이 끝나는 시간에 치르게 되니까 복습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았는데 강의가 끝난 다음날쯤 시험을 치룬다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현 태권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사료되는 것으로써 용어의 통일이다. 손동작은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차기는 그렇지 못한것 같다. '88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세계적 무도 스포츠인 태권도가 한가지의 발차기를 지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그 명칭이 다르다면 자라나는 수련생들이나 후배들에게 혼란만 줄 뿐아니라 태권도의 정통성 내지는 과학화 및 선진화에 역행하는 일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발차기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17일간의 교육이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어느 한시간이라도 빠져서는 안될 귀중한 시간들이었으며, 태권도의 선진과학화 발전을 위하여 열강해 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연수원 당국의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교육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교육생들을 잘 통솔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써주신 김정대 학생장에게도 감사드리며, 특히 교육기간 중 첫아들을 득남하신 송동석 교육생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산모와 2세의 건강을 비는 바이다.

김운용 회장

IOC TV·라디오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TV분과위원회와 라디오 분과위원회를 통합, 창설된 TV·라디오 분과위원회(위원장 랑스·크로스)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지난 5월 1

일 김운용회장의 TV·라디오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내왔다.

한편 김운용 회장은 지난 '86년 12월에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IOC집행위원회에서 IOC TV방영권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이종우 원장 취임

—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



세계태권도연맹 이종우 부총재가 87년 4월 10일자로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장에 취임하였다.

이종우 원장은 대한태권도협회 창설위원으로 초대 기술심의회 의장직을 맡아 태권도 발전과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태권도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1973년도에 세계태권도연맹이 창설되자 초대 사무총장, 명예총무 등을 거쳐 부총재를 역임하고 있다.

1982년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태권도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태권도지도자 연수원이 '발족' 되었을 당시 부원장직을 맡기도한 이종우 원장은 「농사가 1년의 계획이면 나무를 키우는 것은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며, 사람을 키우는 것은 100년의 계획이 필요한 중요한 일」이라며,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폭넓은 교육을 실시하여 태권도 발전에 적은 힘이나마 혼신을 바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종우 원장 약력

- ▲ 1929년 4월 17일생
- ▲ 서울 출생
- ▲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 ▲ 1980년 세계태권도연맹 명예총무
- ▲ 1982년 태권도지도자연수원 부원장
- ▲ 1985년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 ▲ 1987년 4월 10일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원장

'86 국제경기대회 우수선수 및 유공자 포상수여식

— 태권도 33명 수상 —



수상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이세기 체육부장관.

1986년도 한해 동안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선수 및 임원들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5월 14일 오후 2시 제1정부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태권도를 비롯하여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각종 경기 종목의 임원 및 선수들에게 주어진 포상 수여식에는 총 78명의 수상자들이 그 영예를 안았다.

태권도 종목에서는 '86월드컵대회 선수단 9명,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선수단 12명, 세계대학선수권대회 선수단 12명 등 총 33명이 제1회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창종류	성명	직위	대회명
체육포장	황호순	임원	제7회 아시아태권도대회
"	김경지	"	"
"	김우규	"	"
"	윤종욱	"	"
체육훈장기린장	이해진	선수	"
"	지용석	"	"
"	이창건	"	"
"	윤순철	"	"
"	이정진	"	"
대통령표창	김영주	"	"
"	정승환	"	"
"	장길환	"	"
체육포장	유상열	임원	'86월드컵 태권도대회
"	전재규	"	"
"	황영갑	"	"
체육훈장기린장	임성욱	선수	"
"	양대승	"	"
"	정용석	"	"
"	임재익	"	"
대통령표창	유명식	"	"
"	장명삼	"	"
"	이영기	임원	제1회 세계대학태권도대회
"	최인범	"	"
"	최영렬	"	"
"	하용성	"	"
체육포장	김철호	선수	"
대통령표창	인해진	"	"
"	박상식	"	"
국무총리표창	김운태	"	"
"	이경식	"	"
체육포장	서정현	"	"
"	최운	"	"
"	김용수	"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기술심의회 임원 임명장 수여식

5월 4일, 국기원



김운용 회장이 권경옥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에서는 지난 5월 4일 국기원에서 1987년도 기술심의회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술심의회 임원 및 태권도 관계자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겸 국기원원장은 기술심의회 임원들에게 태권도의 기획, 연구, 교육, 기술개발 등 각종업무의 수입 및 집행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국기원 기술심의회 임원명단

▲지 도 위 원 : 김인석, 김봉식

▲기술심의회 의장 : 김순배

▲기술심의회 부의장 : 강정구, 박명수

분 과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기 획 분 과 위 원 회	백운대	이학진 최대용	조준탁·김병숙·강신동·한용만 변중수·백남진·박홍래
심 사 분 과 위 원 회	이규정	이규현 맹만호	한상국·서인중·이교범·박정희 박주영·이만술·홍광학
연 구 분 과 위 원 회	조근중	신영익 오함숙	송재형·강재영·나호성·강형기 하봉규·김인식·이철수
기술과학분과 위 원 회	안해욱	이규훈 강신익	류용석·김교준·고장호·박재룡 추교선·차청훈·김종두
편 찬 분 과 위 원 회	김중영	양영모 전창식	이연구·김종성·장길태·이 연 김기일·성덕영·김장식
국 제 분 과 위 원 회	이택명	임홍수 심재익	학각근·장득용·장성주·장재우 김익환·이성용·송재섭
시 범 분 과 위 원 회	김영작	이규형 박덕규 박종명	이종관·구종희·최봉호·김현성 김중석·이재봉·이상현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임원명단은 제60호 태권도지 3페이지 참조)

무도연구소 활성화 모색 대한유도학교

대한유도학교에서는 지난 1980년도에 부설기관으로 무도 연구소를 개설한바 있는데 올해부터 무도연구소 규정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무도 연구소는 태권도를 비롯한 유도, 검도, 합기도, 씨름, 태슬림, 복싱등 각종 무도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과학화를 체계적으로 연구 보급급자 개설되

어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세계 17개국의 선수들과 기량을 연구 교환한바 있고, 각종 스포츠기구들을 구비하여 자체적인 현장 연구에 주력해 왔다.

무도 연구소는 앞으로 국내외의 연구기관들과 협력, 연구의 장을 넓혀 무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그 결과발표로 무도에 관한 기술개발과 학문적 최신이론을 정립하고,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습내용을 확대발전시키며 나아가 세계각국과 무도를 통한 상호교류로 한국무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구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태권도 학과에세는 이규석 조교수가 운영위원, 김광성 전임강사, 진중의 전임강사, 강성철 전임강사가 연구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올림픽 방영권료 한일정식조인 대회협력기금 포함 5천만불 (약 70억엔)

'88서울올림픽대회의 일본지역방영권료가 대회협력기금 등을 포함해 5천만불로(약 70억엔)로 확정되었다.

지난 5월 22일 도쿄의 NHK-TV방송센터에서 체결된 올림픽 방영권료 정식조인식에는 한국측에서 IOC위원이며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운용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NHK-TV대표로 島桂次 전무이사, 민방련(民放連) 대표로 鈴木充 민방련보도위원회위원장(동해TV사장)이 참석해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서 '88서울올림픽방영권료는 일본측이 방영권료 3

천5백만불(약49억엔)과 대회협력기금 1천5백만불(약 21억엔) 등 총 5천만불(약70억엔)을 지불하게 되었다.

한편 NHK-TV대표 島桂次씨는 서울올림픽 방영권료 계약을 마치고 담화를 통해 "일본측이 5천만불까지 끌어 올리게 된 것은 한국측 김운용 서울올림픽 조직위 부위원장의 인품에 접하여 최대한도의 선에서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신문에 보도된 관련기사



할렐루야 태권도단 창단

3월 30일, 세계체육인 선교회

세계 체육인 선교회에서는 태권도를 매개로 시대적인 복음사역을 담당하고, 선교활동으로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꾀하기 위해 창단된 할렐루야 태권도단이 지난 3월 30일 오후 7시 30분 세계체육인 선교회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할렐루야 태권도단 창단식에는 김운용 I.O.C 위원겸 대한태권도협회회장을 비롯한 태권도계 인사들 및 교계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창단식은 김희공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창인 목사의 메세지와 김운용 회장의 축사로 선교사역에 나선 태권도 단원들을 격려했다.

■ 할렐루야 태권도단

- 메 니 저 : 박종현 (동방아동 복지회 실장)
- 지 도 : 방현강 (이천 새순교회 담임교역자)
- 감 독 : 김강인 (태권도 협회 국제분과 부위원장)
- 코 치 : 이백운 (숭실고교 코치, 성균 체육관 관장)
- 트레이너 : 김상철 (한국 체육관 관장)
- 선 수 : 김희도 (꿈나무체육관 관장)
강용구 (전 국가대표 해비급)
김명동 (성무 체육관 관장)
이태희 (전 해군대표 선수)
박동운 (통일 체육관 관장)
엄석용 (금성 체육관 관장)
이해권 (유도대 3년)
이재현 (전 해군대표 선수)
박병철 (유도대 3년)
천승민 (성균 체육관 사범)
최창익 (한국 체육관 사범)
최현규 (후룡 체육관 사범)
김영일 (올림픽 체육관 관장)
김희관 (성덕 체육관 관장)

1987년도 1차 고단자 심사대회 5, 6단 총49명 배출

국기원에서는 1987년도 1차 고단자 심사대회를 지난 3월 14일에 실시하여 49명의 5.6단 고단자를 배출했다. 매년 4회에 걸쳐 고단자 심사대회를 실시하였다. 고단자 심사대회는 매년 사회에 걸쳐 국기원 기술심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심사대회에서 각 지역별로 합격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역	응심단	성	명	인원
서울	5단	김상훈 나송희 장명수 손창용 홍순대 유호경 김종진 김홍기 허철지 김영선 고재만 송병각 강석선 황종철 김덕은		15명
	6단	이준호 최봉호 박계홍 강석갑 정창규 고상화 김정일 이 봉		8명
대구	5단	서진석 이석진 김중보 정재석 이동열		5명
	6단	김문화 우영하 조용명		3명
부산	5단	박가서 이석효 서동균		3명
전남	5단	이수섭 김중운 김재운 한현영		4명
전북	5단	전철기 김영승 윤병호		3명
경기	5단	임승철 안중기		2명
인천	5단	김용만		1명
충남	5단	양명목		1명
경남	5단	임홍택		1명
충북	6단	신용철 이철재		2명
국방부	6단	김식태		1명



노상석 성동고 체육교사 동부교육구청 장학사로 승진발령

성동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며 '83년도에 태권도 부를 창설, 각종 경기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내은 노상석씨가 지난 3월 20일부로 동부교육구청 보건 체육계 장학사로 승진 발령되었다.

1963년도에 경희대 체육학과를 졸업한 후 1967년도에 동대문상고 체육교사로 교편을 잡기 시작한 노상석씨는 태권도부를 창설하고 1970년에 개최된 제1회 소년체전 개최식에서는 최초로 태권도 마스게임을 선보여 호평을 받으며 1973년도에 중화중학교 태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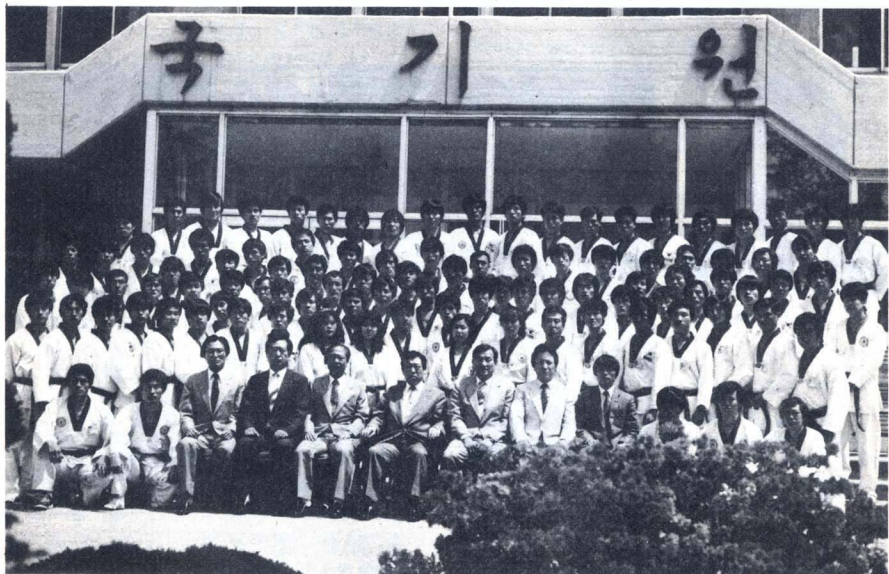
부 창설, 1976년도 서울체고 태권도 감독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1981년도에는 제1회 월드게임코치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체육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노상석씨는 중교연맹 산파역할을 하며 1974년도부터 1979년까지 6년간 전무이사를 역임하며 중교대권도 발전에 주력해왔는데 이번에 장학사로 승진 발령됨에 따라 초중등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맞게 되었다.

제54기 3급 지도자교육

105명 3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획득



지도자의 길을 걷고자 지도자교육에 참가한 수강생들.

국기원 태권도지도자연수원에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동안 제54기 3급 지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3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이번 교육에는 총 107명이 수강하여 99명이 수료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총 32개 과목에 해당하는 다양한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이 66시간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재교육자 8명과 이번 수료자 99명 등 107명이 자격고사에 응시, 불합자 1명, 불합격자 1명 외에 105명이 3급경기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영철, 황철규, 김승배, 남창길, 김홍근, 하강호, 오기만, 이원형, 김관식, 권성태, 주진근, 이미향, 윤선기, 박병분, 조영선, 최영태, 라갑성, 방현준,

박종범, 박성수, 윤동섭, 민관식, 이창곤, 최수경, 김승수, 최용식, 김 일, 성탁신, 전중철, 강형국, 임상범, 최정두, 나채복, 김종석, 박추철, 문윤홍, 이성주, 박희수, 엄성택, 이재승, 김청식, 조동엽, 류상민, 최민재, 조용식, 최인수, 류영규, 홍종만, 차경철, 박운서, 송영협, 이정호, 방만규, 박세준, 박종인, 김민식, 김원호, 유병인, 신재근, 강미선, 윤여운, 양병식, 이광순, 송영복, 한승하, 김장순, 이준연, 송대영, 도현식, 김상대, 안창용, 김정옥, 서위호, 김정태, 김재형, 김대현, 한창근, 이승인, 배성길, 김광조, 송유성, 이준명, 김삼수, 조홍대, 김상달, 김근태, 노영식, 김봉수, 진태하, 양대식, 서명옥, 강유진, 김성훈, 박현태, 정영춘, 최명호, 신해철, 김도강, 여상훈, 김옥영, 윤흥기, 이택용, 김태우, 김광섭, 김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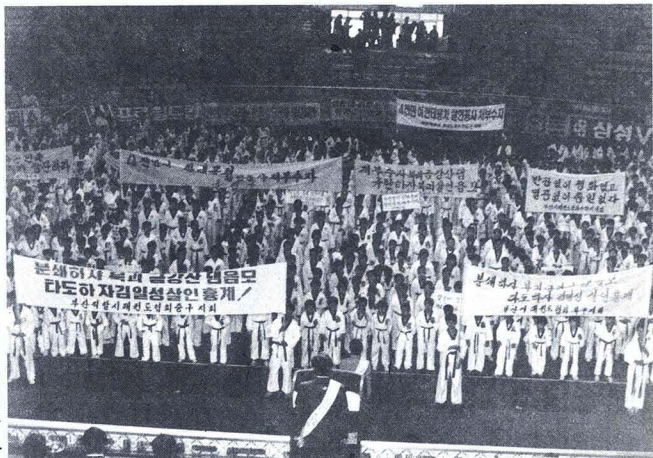
태권도를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

부산직할시협의회



권오현 회장

부산직할시의 태권도인
4천 5백명이 구덕실내
체육관에 모여 복고 금강산담
구축음모 규탄궐기대회를
열고 성금모금도 했다.



1987년도 대의원 총회

부산직할시 협회는 3월 26일 오전 11시 부산호텔 다
이아몬트홀에서 재직 대의원 12명 중 8명이 참석한 가
운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는 부산직할시협회의 권오현 회장
을 비롯해 손종식(영남중 교장), 최창호(제송중 교
장), 김허남(송도상고 교장), 안병로(부산체고 교장),
김영찬(동의공고 교장), 김일희(동명공고 교장), 신도
희(경남공고 교장), 김영규(동아대 체육진흥부) 대의
원이 참석해 1986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승
인 및 1987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에산안을 확정하였다.

권오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는 더욱 더 발전하는 부산직할시의 태권도가 되도록 전
태권도인이 단합해 줄 것을 당부했고 대의원들에게는
발전적인 회의가 되도록 많은 고견이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부산직할시협회는 지난 해에 전국체전에서 종합 6위를

차지하여 앞으로 상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하며 기술을
닦아왔고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사상 이래 종합 3위로 부
상하여 부산 태권도 발전의 이정표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제1회 부산-뉴욕 친선 태권도 경기대회를 개최
하여 양 협회간 태권도 경기를 통해 기술을 향상시키고
두 도시간의 이해증진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복고 금강산담 구축음모 궐기대회를 구덕 실내
체육관에서 열고 현장 모금운동을 펴기도 했다.

이날 모금운동에서는 총 2백만5백70원이 모여져 부
산직할시협회는 부산일보에 5십만원, 문화방송에 1
백5십만5백70원을 각각 기탁하기도 했다.

부산직할시협회의 1986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1. 86신인선수권대회 : 4월 29일과 30일 구덕 실내체
육관에서 개최된 '86종별신인 선수권대회에는 국민학교
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에서 총 356명이
참가하였다.

2. 제1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월 5일부터 9일까지 경남 마산에서 열린 소년체전에 임원 2명, 선수 11명 등 총 13명이 참가하여 금1, 은2, 동2개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3. 제67회 전국체전: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 임원 9명, 선수 24명 등 총 33명이 참가하여 금1, 은2, 동3개로 6위를 차지하였다.

4. 제2회 협회장기 대회: 10월 30일과 31일 부산구덕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단체 13팀, 개인 401명이 출전하여 대연국민학교, 영남중학교, 송도상고, 동아대, 장원체육관이 각각 부별 우승을 차지했다.

5. 제1회 부산-뉴욕 친선 태권도 대회: 11월 5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어 미국측에서는 임원 10명, 선수 8명이, 부산측에서는 임원 7명, 선수 7명이 각각 참가했다.

6. 제6회 부산직할시 대회: 12월 4일과 5일에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어 단체 28개팀, 개인 358명이 참가하여 대연국민학교, 영남중학교, 부산체고, 동아대학교, 사하구가 각각 부별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부산직할시협회는 1987년도에 우수선수 및 지

도사 육성,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상위입상, 태권도인 단합과 사회 기풍조성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1987년도 사업계획

사 업 명	기간	장 소	주 관
동계 강화훈련	1월	각 훈련장	부산협회
제1회 심사대회	2월	구덕체육관	교육위원회
제16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최종예선전	3월	"	"
제2회 심사대회	4월	"	부산협회
'87년도 중보선수권대회	"	"	"
소년체전대비 최종 강화훈련	"	중등부훈련장	교육위원회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월	경남(마산)	대한체육회
제3회 협회장기쟁탈 부별 태권도대회	"	구덕체육관	부산협회
제3회 심사대회	6월	"	"
제22회 대통령하사기쟁탈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	사직체육관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 선발전	7월	구덕체육관	"
제4회 심사대회	8월	"	"
전국체전 1차강화훈련	"	"	"
전국체전 2차강화훈련	"	"	"
제12회 교육감기 쟁탈대회	9월	"	"
전국체전 3차강화훈련	"	"	"
전국체전 4차강화훈련	"	"	"
제5회 심사대회	10월	"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	평주직할시	대한체육회
제7회 시장기쟁탈대회	11월	구덕체육관	부산협회
제2회 부산-뉴욕 친선 태권도대회	"	뉴 욕	"
제6회 심사대회	12월	구덕체육관	"

임 원 명 단

職 位	姓 名	所 屬 및 職 位
會 長	權 五 賢	(株)부산도시가스 회 장
副 會 長	崔 龍 洙	대야케이칼공업(株) 대표이사
"	金 文 時	대 성 건 설(株)전무이사
"	李 載 泰	(株)경 남 유 지대표이사
"	都 鍾 伊	대도고속운수(株) 회 장
專務理事	李 勤 雨	전 일 체 육 관 관 장
總務理事	崔 貞 權	웅 일 천 무 체육관 관 장
理 事	金 祐 圭	동아대학교태권도 감 독
"	金 成 根	동래종합체육관 관 장
"	金 健 一	초 원 화 원 대 표
"	王 武 昌	남성여자고등학교 교 사
"	鄭 寅 容	부산직할시체육회사무차장
"	全 禎 求	동 협 정 밀 상 사 소 장
"	盧 台 浩	북구생약공판장 장장장
"	具 宰 聲	(株)진 주 화 학전무이사
"	洪 應 杓	(株)원 건 업 대 표
"	尹 炳 甲	삼 보 아 민 감 사
"	申 泰 雨	삼 원 화 학 대 표
"	金 相 泰	삼 덕 수 산 대 표
"	金 且 鎭	대 기 심 유 대 표
監 事	金 一 熙	동명여자고등학교 교 장
"	金 準 浩	과 정 체 육 관 관 장

회관건립 기금마련

부산직할시 협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바 있는 기금 마련은 태권도를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시민체육 향상을 위하여 회관건립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연 6회에 걸쳐 실시하는 승품(단) 심사비 기금을 포함해 모금키로 했다.

신임집행부 구성

전북태권도협회

1. 1987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전북태권도협회는 4월 10일 오전 11시 전주 문화회관에서 21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대의원 총회에는 강영수, 신재룡, 김현덕, 양재실, 오영복, 석영환, 이종영, 광기철, 임귀택, 고창원, 최삼채, 김경수, 박양열, 김일균, 양희재, 서인오, 강준배, 임재봉, 백남규, 박재수, 최문옥 등 21명의 대의원이 참석했고 임원진으로는 문창균 부회장, 장한철 전무이사, 이병화 총무이사가 참석하여 1986년도의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승인과 1987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전북협회의 1986년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1). 전북태권도인의 밤 : 연초인 1월 24일 전북태권도인의 밤이 성황리에 개최되어 전북태권도인의 단합을 다지고 발전을 위해 힘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 제6회교육감배쟁탈 태권도대회 :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북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3). 제15회 전국소년체전 : 5월 5일부터 9일까지 경남 마산에서 개최된 제1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전북은 종합 4위를 차지하였다.

(4). 제2회 도지사배쟁탈태권도대회 :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북 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도지사배쟁탈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다.

(5). 제23회 회장기쟁탈전 및 종별선수권대회 :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전북협회에서는 1986년도에 2월, 4월, 6월, 8월, 11월, 12월 등 6차례에 걸쳐 전북 송풍단심사대회를 가졌다.

전북협회에서는 1987년도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그밖에 태권도 발전을 위한 안건으로 홍보비 예산을 추가하자는 안이 나와 이를 검토해 추가예산에 포함하도록 했다.

2. 임원 선출

전북협회에서는 회장단을 새로이 구성했는데 회장에 육종진(전주시장), 실무부회장에 문창균, 부회장에 김영신, 이견수씨가 각각 선임되었고 장한철 전무이사, 유형환 경기이사, 이병화 총무이사 등 임원진들은 그대로 유임되었고 그밖의 이사선임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 1987년도 사업계획

일 시	사 업 명	장 소
1. 9	제16회 전국소년체전 최종 선발전	전주서중
5. 12~14	제 7 호 교육감배 쟁탈전	전주실내 체육관
6. 9~10	제68회 전국체전 2차 선발전	"
7. 14~16	제 3 회 도지사배 쟁탈전 및 제17회 소년체전 평가전	"
10. 26~28	제24회 회장기 쟁탈전 종별 선수권대회	"
11. 5~7	제25회 고등학교 재학생 체육대회 및 제17회 소년체전 2차 선발전, 제69회 전국체전 1차 선발전	"

■ 임원명단

- 수석고문 : 창길수 (지방 검찰청 검사장)
- 고 문 : 전일섭, 설명희, 오용근, 인경환, 전상환, 허용
- 회 장 : 육종진 (전주시장)
- 부 회 장 : 문창균 (도 체육회 이사)
김영신 (변호사)
이견수 (남양진설대표)
- 전무이사 : 장한철
- 경기이사 : 유형환
- 총무이사 : 이병화
- 섭외이사 : 이흥래
- 시설이사 : 임동진
- 이 사 : 서정훈, 안영빈, 최동열, 김동진, 조부연, 전정술, 엄종수, 김병근, 김태성, 송택섭, 전형직, 권재석, 배상열, 이성철, 김두일, 유기대, 최종식, 이종성
- 심판분과이사 : 이영기
- 체육관관리이사 : 박영진
- 운영이사 : 배덕부
- 기획이사 : 김창호
- 감 사 : 김경수, 정선진

제2회 주독대한민국대사배 국제태권도대회 개최

재독 대한태권도협회

재독대한태권도협회(대한태권도협회 서독지부)는 지난 2월 22일 본(Bonn)시 재독 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독일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제사범자격자로 구성된 2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986년도 사업 및 결산승인, 감사보고, 임원 개선과 정관개정, 198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재독대한태권도협회의 1986년도의 주요 사업실적으로

첫째, 제1회 교육관배 겸 제3회 한인2세 태권도대회(2월 22일), 독일·이탈리아 친선 태권도대회(4월 13일), 유럽 5개국 태권도 친선대회(4월 26일), 제1회 주독대한민국대사배 국제태권도 대회(6월 14일), 세계태권도페스티벌 '86 제1회 회장컵 태권도대회(11월 1일), 도시대

항단체전 태권도경기대회(12월 6일)등 각종 대회를 실시하여 태권도를 수련하는 국제간의 친선과 기술교류로 세계화된 태권도의 진면목을 과시하였다.

둘째,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심판교육을 실시하여 1차에 20명, 2차에 36명에게 심판자격증을 부여했다.

셋째, 3월 25일 서울특별시협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긴밀한 유대강화로 태권도 발전을 도모했다.

한편 임원 선출에 있어서는 제5대 회장으로 협회발전에 공헌한 이우환(40세, 7단: 복음시 이태권도중앙도장 관장) 사범이 제6대 회장으로 재선 되었으며 감사에 김만금(3대회장, 7단: 켈른시 무사도태권도관장), 정홍일(유럽유단자협의회회장, 8단: 라벤스브르크시 정일태권도관장)씨를 선출하였다.

한편 유공회원 표창수여식에서는 송처수, 장두환, 김정권, 정금석 사범이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으로 부터 태권도 보급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전달받았으며 백진건(총무이사), 이강현(기술이사), 김수선(감사) 사범이 재독대한태권도협회 선임임원으로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았다.

재독 대한태권도협회는 87년도 주요사업으로 제2회 주독대한민국대사배 국제태권도대회를 6월 13일 보트롭시립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재독 사범들에게 대회의 운영을 위한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국기원 기술심의회 김순배 의장 남미 (페루·브라질) 순회교육 실시

국기원 김순배 기술심의회 의장은 3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32일간에 걸쳐 남미 순회 태권도 교육을 실시했다.

남미 순회교육은 페루의 리마, 쿠스코, 알카와 지역과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리아, 상파울로, 뽀르또알레그리, 비토리아, 벨로오리혼터 지역의 태권도 지도자 및 수련생들에게 품새 및 경기규칙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국기원에서는 세계 각국의 순회교육을 통하여 품새동작 및 태권도 경기규칙교육을 통해 올바른 규정 이해를 숙지시키고 주심싸인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태권도 이론의 종합적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의 남미 순회교육기간 동안 김순배 의장은 페루의 육군참모 총장 GRL Lopes Albuja, 올림픽 위원장 Dr. Raul Gamba, 육사교장 GRL Jaime Salinas, 체육회장 Dr. Victor Castanola 와 브라질의 체육회장 Dr. Tubino, 합참의장 Paiva, 연방 경찰국장 Dr. Tuma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국내 태권도의 발전상황,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문제, 88올림픽 대회가 준비상황등에 대해서도 알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를 당부했다.

제8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대회를 마치고

나호동 / 용인국민학교 6의8



태권왕겨루기 대회에서 라이트급 1위를 차지하고
금메달을 목에 건 나호동 어린이의 모습.

동안 책과 씨름을 했다. 그러는 가운데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자만심이 생겼단다. 그래서 그는 붓집을 싸가지고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 얼마동안을 내려왔을까? 골짜기 시냇가에서 호호백발의 할머니가 쇠공이를 갈고 있었다. 그래서 이태백은 무척 신기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태백이 볼 때 그것은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속해 쇠공이를 가는 것이었다.

이태백은 꾸준히 노력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산을 향하여 발을 옮겼다. 그 후 이태백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시인이며 문장인이 되었다”

지금껏 고통스러운 훈련을 참지 못하고 놀 것 다 놓고 먹을 것 다 먹으면서 언제 무엇을 이루겠냐는 아버지 말씀이 떠오른다.

나는 지금까지 태권도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그 결과로 제8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에서 라이트급 1위와 미기상을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냈다.

훌륭한 장군 밑에 약한 병사가 없다는 말과 같이 지금의 내가 있도록 격려해주신 박길원 교장 선생님과 김병운 담임 선생님께 감사 드리며 특히 저를 지도해 주신 김두희 사범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와 함께 많은 꿈을 품은 용인 국민학교 선수단원 모두에게 나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태권왕에서 입상한 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장차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야겠다.

나는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가 되라고 태권도를 권하셨다. 직접 태권도를 대하니 많은 인내심과 노력이 없이는 시합에 나갔을 때 좋은 경기를 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맛있는 요리상을 받고도 그것을 마음껏 못먹는 때가 허다했다. 아버지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며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중국 옛 시인 중에 이태백이라는 분이 있었던단다. 그가 젊었던 시절 깊은 산중으로 공부를 하러가서 한 3년

50대에 태권도에 입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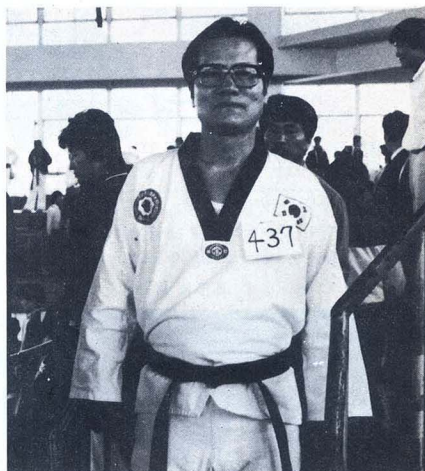
이철하 / 대한정밀공업주식회사 전무이사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 각각 건강하고 건전하게 발전 수행되게 함과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서 하나의 조화속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져 나가야하는 것이다.

인간이 각종 사회조직을 이루고 그속에서 자아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정신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은 그 기본이 인간의 지적 정서적인 부분에 뿌리박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사회를 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시키는 정신력은 그 근본이 육체적인 토대위에서 존재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조건인 육체적 부분, 즉 "체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당위성속에서 나는 내가 나의 육체적인 부분의 원동력, 나아가 정신력, 지적, 정서적 힘의 토대인 강한 "체력"을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해 찾아 낸 방법으로서 내가 선택 실천하고 있는 이 태권도의 장점과 태권도가 나에게 준 이점 그리고, 그 과정을 언급하려 한다. 이러한 나의 주장은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나와 같은 50대에세우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서일뿐이다. 젊었던 시절, 의욕과 야망이 엄청나게 컸던 나는 나름대로의 회사를 창립하여 열심히 발전시켜나갔던 중에 예기치 못했던 불의의 인생 풍파로 40대 전후의 인생항로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몇년간의 휴식후에 재출발하여, 현재는 한 중소기업의 전무이사직에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자신감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제 나이 50이 넘으니, 주위의 50대 동년배들의 이야기인 즉, 정년 준비니, 이제 자신들이 인생은 끝났으니, 자식들 잘되는 것이나 보고 자식들에 대한 남은 인



승품심사에 응심한 이철하씨.

생을 의존 내지는 걸어 보느니-하는 나약한 마음으로 모두 약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나 자신의 걸어온 길을 깊이 반성하고 반추하고, 과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후회없이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는 생활로 시간을 아끼고 나누면서 피나는 노력을 톡바로 해보고 살아온 짧은 날들이었든가를 깊이 생각하고 거듭 되새겨 보았다. 결론은 너무도 편케, 게으르게, 피나는 노력같은 것은 전혀없이 구두선 같은 과욕만을 가지고 명실상부하지 못했으며 내실있고, 알찬 자기 실력을 쌓는 속에서의 정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40대 전후는 그와 같이 되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50이 넘어 늦기는 했지만 나의 인생은 이제 부터다하고 새로운 결심과 결의로 인생의 재 도전을 시작했다.

옛말에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것,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돈과 명예를 떠난 인간의 가치관속에서의 생활은 이제부터다. 기상은 이른 아침 정각 5시, 탁상시계의 자명종소리와 함께 번개같이 일어나 반바지에 줄넘기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 줄넘기 1,000번에 조깅 3키로를 하고 나서 욕조에 냉수를 가득채우고 무차별하게 다 퍼붓는 운동을 시작한지 어언간 3

년, 그러다보니, 겨울이면 두꺼운 내의를 사다달라고 하여 입던 그 내의마저 이제 4년째 다 벗어버리고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제 틈났으면 한페이지의 책이라도 읽는 공부하는 생활로 완전히 변해버렸다.

일본어 학원도 3개월 다니고 매일 1시간씩 3년간 일본어 공부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새벽 5시 남들은 조용히 잠에서 아직 깨지 않은 시간에 홀로 줄넘기 1,000번, 조깅 3키로를 3년간 뛰다보니, 영하 10도 이하인 눈보라치는 겨울날의 새벽은 한없이 외롭기만했다. 정작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 하는 실감이난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야망에 불타는 내 생활에 불이 붙었다. 무엇에도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고, 과감하게 계속 걸어가기 위하여 좀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히 허락하는 한 새로운 꿈의 실현을 위하여 70-80세까지라도 좋은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 보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운동이 없을까하고 찾던 중, 나는 이 태권도에 입문하게 되었다. 50대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성기요, 여러면에서 실력이 충만한 자신감에 넘쳐 있어야하는 시기인데 흔히들 별볼이 없이 이제 다 살은 것 같은 대화들이 나는 웬지 듣기가 싫었다. 태권도를 하기 위하여 나이 50까지 안하던 운전도 배웠



태권도 수련을 시작한 후
정작 내인생은 이제부터라고 말하는 이철하씨.

다. 운전을 하고 도장(풍남 체육관)까지 아침 5시 50분 도착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휴식없이 열심히 배우고 땀다. 이기섭 관장께서 직접 지도해 주시는 개인지도-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으로부터 시작하여 운동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지도 방법이다.

이 운동(태권도)을 초단 심사까지 받았지만, 강력하고 힘찬(웬만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강훈의 연속에서 2단의 훈련에 지금도 계속 열심이 정진하고 있다.

300만원에서 500-600만원의 호텔 웰스크럽에 명예로운 가입등록을 해두시고 주 1-2회도 못 나가시는 40-50대 이상 분들한테, 나는 이 태권도에 입문하여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서라도 몸을 풀어 보셨으면 얼마나 좋겠나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본다.

흔히들 태권도 하면 어린이들, 젊은층의 학생들이나 하는 운동으로 사람을 때리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나 배우는 과격한 운동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나이에 맞도록 적절히 무리하지 않게 얼마든지 자기 체력에 맞추어가며 할 수 있는 체력, 정신력 훈련으로서는 제일 좋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 반면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체력의 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강화 되어 20-30대에 못지 않는 힘의 실력도 반드시 가지게 되니 이 얼마나 흐뭇하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육체의 유연성 면에서도 20-30대 못지 않게 늘수 있고, 이 운동의 훈련을 겪어 내면서 크게는 정신력, 적게는 기억력도 나의 경험으로 봐서는 20-30대 때와 똑같이 되살아난 것 같고, 이 운동을 하기전과 지금에 크게 달라진 것은 아침부터 격무과로로 오후 늦게 피로하던 것이 말끔이 없어지고 새벽운동의 힘은 오후에 점점 활력이 생기는 기분으로 전환된 것 같아 나는 더 열심히 계속하고 싶은 심정이다. 태권도는 보편적으로 아는 과격한 운동만은 절대 아니다. 동의보감에 藥補不如肉補 肉補不如食補란 귀절이 있다. 이는 보약을 먹어 보신하는것 보다는 고기를, 고기를 섭취하여 보신하는것 보다는 음식을 고루 섭취함이 좋다는 것일껄다.

그러나 본인은 食補에다 규칙적인 운동, 그것도 태권도 수련이야 말로 50대 갱년기에 필요한 운동으로 자기 체력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조정, 조절해서 할 수 있는 운동임을 거듭 말하고 싶다. 이제까지 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태권도의 과학적 선진화 대열에 서서

제5기 지도자 2급과정 교육을 마치고



윤종식 / 태권도 성무체육관
대구직할시 수성동 범어3동 27-1번지

늦가을의 여운도 잊은 채 태권도의 과학적 선진화에 주역이 되고자 전국 도처에서 100명의 사범, 관장, 기타 여러 분들이 국기원 연수원에 모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엄격한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된 교육생들이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6시간의 교육의 장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각오와 열의로 눈망울들은 더욱 더 빛나고 있었으며, 나 또한 질세라 야간열차로 설친 잠을 떨쳐 버리려고 안간힘을 써가며 강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조금 지루함도 있었으나 이내 전교육생들은 태권도의 과학적 선진화라는 대 명제 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강의에 열중하였으며 강사님 또한 열

강으로 강의실의 분위기는 자못 장엄하기까지 하였다. 틔나는대로 금급한 사항을 질문하며 필기하는 등 어느 누구보다 더 교육에 모범적으로 임했다고 자부하며, 또한 긍지를 가지는 바이다.

온통 대·소제목들로만 가득찬 두툽한 교재, 그리고 뻑뻑히 짜여진 시간표, 그중 어느 하나 어느 한시간이라도 뻔뻔해 뻔 수 없는 귀중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다. 정규대학에서 한학기 이상에 걸쳐서 강의하는 내용을, 그것도 교육생의 거의가 비전공분야인 과목들을 약10시간으로 축소시켜 강의 받는다는 것이 사실 무리였으나,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손은 필기 하기에 바빴고 눈과 귀는 강사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놓치지 않게 살폈으며 방과 후에는 2시간씩의 자율학습을 통하여 모자라는 점 등을 보충해 나갔다. 이처럼 불리한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복습했으므로 경기 지도자 2급 자격검정시험에 있어서 체육대학에서 받는 타종목의 23개 단체의 교육생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합격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는 옛날처럼 무조건적인 주먹구구식 지도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지도자상을 심어주고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겠으며, 또한 이번 교육에서 얻은 값진 지식 등을 심심 활용하여 태권도의 과학적 선진화에 주역이 되고자 내심 다짐하면서 교육기간 중 느낀점 등을 간단히 적어 붙자 한다.

교육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의 수강자 유의사항 중 감점사항 등에 대하여 들었을 때 강의실엔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서로 낮 모르는 얼굴들로 서먹서먹 하였으나 다음날부터 이내 전교육생들이 강의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의식 개혁시간의 박건호 강사님의 유머스럽고 찜찜한 목소리는 아직도 귀에 쫓인다. 무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철학, 현 태권도인이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철학인 것이다. 잘되면 제타이고 못되면 조상타고 돌리는 습성을 벗어 버리고 평소의 주관대로, 뚜렷한 주체성을 가지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알라고 나무라듯 고성으로 역설하던 시간이 뇌리에 남아있다. 일본의 잔학적 침략상을 날날이 고발하듯 강의하신 박권규 국사 강사님 이 시간 만큼은 끓어 오르는 분노와 일제치하에서 압박받던 선조들의 생각으로 강의실은 쥐죽은

듯 침울하기만 했으며, 하루 빨리 국력이 신장되고 남북통일이 되어서 찬란한 민족문화를 세계만방에 자랑할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가장 많은 시간이 배정 되었으며 교육생 전원이 가장 가슴즈였던 영어과목, 한 사람의 과학자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신 정월용 강사님의 노래씀씨는 과히 명창이셨다.

태권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품세의 발생동기는 무엇이며, 그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재 정리 시켜준 기술지도시간은 참으로 귀중했으며,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어떠한 검사를 당당도 있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떤 과학적 트레이닝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둘 것인가, 수련생이 슬럼프에 빠졌다면 그것은 어떤 심리적 영향 때문이며, 어떤 이유로 경기력 저하가 일어나는가, 발차기를 할 때 어떻게 차면 가장 빨리 찰 수 있으며, 큰 힘을 낼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번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들을 토대로 연구하고 분석지도 한다면 태권도의 앞날은 매우 밝으리라 본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료논문」이 그 첫째였던것 같다. 태권도에 관한 논문이라면 거의가 실험 측정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이다. 그런데 논문에 대한 사전준비도 없이 지방에서 올라온 교육생들이 19일만에 조사 연구하고 통계내고 결론짓는 실험 논문을 쓴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어떤 교육생은 태권도인의 의식구조에 관한 논문을 쓴다고 설문지를 돌리고 하였지만, 거의가 타인의 논을 복제해서 쓰는 것 같았다. 차후로는 수강생 모집요강에 수료논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좀더 연구하고 진실된 논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며, 다음으로는 「체육사회화」이다. 우리 나라 사회에 있어서 체육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으며, 태권도와 체육사회화과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으며, 있다면 어떤 효과인지 경기지도자들이 무엇을 알아야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지나쳐 버리고 주마간산식의 강의였다는 인상이 짙으며, 「스포츠 마사지」또한 운동경기시 일어날수 있는 상해에 대한 응급처치, 마사지 등의 구체적인 실기 강의로써 일선지도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는데 치료법 등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스트레칭 체

조」시간 또한 교육기간 중의 피로를 푸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수기법」시간은 일선 지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제대로 실기교육이 되지 못한 것 같다. 대체로 강의 분량에 비하여 강의시간이 너무 축소된 탓인지 질문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강의시간을 마치고 나가시는 강사님을 붙잡고 질문공세를 퍼는 결례도 범했었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재의 내용이 너무 빈약했던 것 같다. 대 소제목들로만 가득찬 교재에 노트를 하자니 강사님의 설명을 놓치겠고, 설명을 듣자니 필기를 놓칠지경이었다. 다행히 체육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의 유인물을 복사해서 보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필기량이 많은 편이었으므로 참고도서를 소개한 다던가 아니면 교재보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으며 수료시험 또한 그 과목이 끝나는 시간에 치르게 되니까 복습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았는데 강의가 끝난 다음날쯤 시험을 치룬다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현 태권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사료되는 것으로써 용어의 통일이다. 손동작은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차기는 그렇지 못한것 같다. '88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세계적 무도 스포츠인 태권도가 한가지의 발차기를 지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그 명칭이 다르다면 자라나는 수련생들이나 후배들에게 혼란만 줄 뿐아니라 태권도의 정통성 내지는 과학화 및 선진화에 역행하는 일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발차기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17일간의 교육이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어느 한시간이라도 빠져서는 안될 귀중한 시간들이었으며, 태권도의 선진과학화 발전을 위하여 열강해 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연수원 당국의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교육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교육생들을 잘 통솔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써주신 김정대 학생장에게도 감사드리며, 특히 교육기간 중 첫아들을 득남하신 송동석 교육생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산모와 2세의 건강을 비는 바이다.

연재소설 - 세컨드윈드Ⅱ

마지막회

세컨드윈드 - II

白 鴻

조감도(鳥瞰圖) I. 몬트후이스(Montjuic),
1992년

태양의 나라 「Tierra Del Sol」, 스페인을 연 것은 아마도 만오천년 전의 저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남긴 고인류(古人類)일 것이었다.

「지브롤터」 좁은 해협을 건너온 북아프리카의 원시인들과 「피레네」 산맥을 넘어 온 원정 고트인들, 그리고 지중해의 둥근 호(弧)를 그린 식민 도시를 지배하려는 「페니키아」, 「카르타고」, 「그리스」, 「로마」의 부침(浮沈)이 「리베리아」 반도(半島)의 곳곳에 유전(遺傳)되었다.

「카탈로냐」는 가장 「스페인」적인 지역이다.

「레콩키스타」-국토회복운동-로 일컬어지는 600여년간의 대(對) 이슬람 항거의 결실이 이 지역에서 맺혔다.

「아라곤」왕국의 「페르난도」 II세와 「카스틸랴」의 여왕 「이사벨」의 정략결혼으로 스페인은 비로서 「카톨릭」왕국으로 오랜 역사의 장(章)을 열기 시작했다.

「바르셀로나」는 바로 해양대국으로서 무적함대를 이끌고 대제국(大帝國)의 기틀을 연 스페인의 영광이 기항하는 지중해의 요충이었다.

「이사벨」의 후원으로 1492년, 「콜롬부스」는 「아메리카」를 조국 스페인에게 헌상했다.

현육이 내딛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첫발은 항구 한쪽 「푸에르타 데라파스」에 서 있는 콜롬부스 기념상(記

念像)에서 부터였다.

기원전 6세기 카르타고의 식민도시로 지중해 무역의 거점으로 건설된 「바르시노」가 그로부터 거의 2600년 만에 지구촌의 중심도시의 하나로 변모한 것이다.

항구 북동쪽의 길게 지중해를 끼고 새롭게 개발된 「포블레 노우」에 올림픽 선수촌이 해풍(海風)을 맞고 있었다.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개막 전야에 현옥은 「르포」라도 쓸 기분으로 시가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몬트후이스」 산정(山頂)에 올랐다.

산이라야 불과 200m 남짓한 얇막한 등산이었다.

그러나 해안을 끼고 광대하게 펼쳐진 평원의 끝에 바다를 한 눈에 거느릴 수 있는 전략적 요새지였다. 과연 고대인들의 안목은 뛰어나 스물 몇 세기를 꿰뚫고 현대에 와서도 군사적 요충지로 존중되고 있었다.

「돔」과 「고덕」식 건축양식이 혼재된 옛 왕궁이 산기슭에 있었다.

「올림픽 링」이라는 「네운짜인」이 명멸하는 「메인·스타디움」 근처의 순환도로를 올라 신전의 그것처럼 잘 치장된 돌계단을 오르면 천년의 해풍에도 견디어서 지중해를 조망하고 선 고성(高城)이 있었다.

녹슨 철판(鐵板)은 항구로 닥아서는 적선(敵船)을 겨누고 있었다.

오늘은 그저 관광객의 방문기념 사진에서 배경으로 족(足)한 대포가 중세에는 지중해를 호령하던 그것이라니 “역사란 항상 회귀를 도처에 양산(量産)하는 것” 이다라고 동행한 정기자는 빈정거렸다.

「몬트후이스」에서 내려다 본 「바르셀로나」는 고대(古代)와 중세(中世), 그리고 철단의 현대를 기묘하게 버무려 놓아 한마디로 딱히 축약할 수 없는 개성(個性)을 느끼게 했다.

「고덕」가(街)에는 「로마네스크」식 건축이 즐비했다.

잘 발달된 방사형 도로와 동서로 길게 뚫린 고속화도로 주변 여러 곳에는 멀리 「마요르카」섬까지도 보일 듯한 마천루가 서 있었다.

「엘 그레코」, 「고야」, 「피카소」, 「달리」의 강렬한 색채와 동물이 나르스 듯한 회화의 「모자이크」같은 환상이 느껴진다고 정기자는 말했다.

“아름다운 한마디로 질서와 일사분란에만 익숙한 우리 감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것 같을니다.”

현옥은 정박 중인 유람선에서 전야제를 알리는 폭죽 발사음이 막 터지기 시작하자 불꽃이 투영되는 해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라도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바르셀로나의 밤거리는 시민들이 모두 등불이 된 것처럼이나 많은 수의 조명을 내뿜었다.

전야제에서 시장(市長)은 1929년 단국박람회를 연 이래로 아니, 도시건설 이후 27세기만에 바르셀로나의 가장 빛나는 밤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옥으로서는 「몬트후이스·스타디움」에서의 개막식에서 찬란한 스페인의 태양아래에서 전야제의 빛보다 수십곱절 휘황한 서광을 느꼈다.

그것은 한 태권도 사범의 소소한 삶의 역경에서 기대하기 힘든 희열이었다.

어눌한 현옥이 「몬트후이스」올림픽 경기장에서의 개막식 장면을 상미에게 적어 보낸 바는 이랬다.

“상미! 보시오……………(전략)……………”

보통은 40에 불혹(不惑)이라 하여 감동(感動) 줄 일이나 받는 일이 별로 없는 법이라고 자신에게도 강제해왔소.

하지만 나는 오늘 생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터져나오는 웃음으로 스스로는 물론 주변 여러분들에게도 면구스러운 꼴이 되었다오.

당신도 같은 시각에 우리 선수단의 입장 장면을 T.V중계방송으로 보았으면 왜 내가 그런 당혹을 느꼈는지 이해할 줄 민소—.

애당초 선수단 총감독께서 우리의 입장 연출에 깜짝 놀랄테니 두고 보라고 했지만 이건 상상을 뛰어넘는 공전절후의 작품이었소.

고(故) 안익태 선생이 스페인에 오래 신세진건 당신이나 나나 알고 있었잖소?

「코리아·환타지」(한국환상곡)에 맞추어 처음 「올림픽 이벤트」로 정식참가한 우리 태권도 선수단이 시범을 보이자 8만여 관중이 모두 일어나서 「백·코러스」(Back Chorus)를 부르는 광경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소.

계다가 대회조직 위원장은 이렇게 「코멘트」하는 것이었소.

‘전반 올림픽 개최지이며 이번 올림픽부터 처음 정식 종목으로 참가하게된 태권도의 창시국인 한국의 선수단이 감사하는 뜻으로 온 인류에게 보여준 오늘 이 입장식 광경은 인류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사상 영원히 기억

연재소설/썸컨드윈드 II

될 화해와 우정 그리고 인류애로 아로새겨져 올림피 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यो.

나는 그 역사적인 합성의 한 가운데에서 통곡하는 심정이었소.

옆자리에서 같이 눈물흘리던 정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정리했다오.

'동방의 작은 빛이 지중해의 태양보다 더 밝게 타올랐다'고 말ियो.

당신과 처음 만나던 날, 당신의 나지막한 휘파람 소리에 계룡의 계류처럼 맑은 마음으로 손짓하던 내 모습이 생각나오?

또 건호도장의 단칸 방에서 첫아이를 진통하던 당신의 산고 위로 사뿐히 내리던 눈발을 떠올리기도 했소.

그저 사서 고생이라던 어머니의 태권도 배격론도 이제는 웃을 수 있겠소.

가을 비라도 내리고 조락의 쓸쓸함이 도복 깃 사이로 파고들면 깃가에 땀들던 당신의 선율에 위안받으며 악을 쓰고 외쳐대던 수련혼(修鍊魂)도 이제는 즐거운 회억일 수 있지 않겠소?

왜 그렇게 연탄불은 맥없이 잘도 꺼지는지, 긴 겨울밤 담요 몇 장으로 멀쩡히 수마에 쫓기면서도 책으로 향하던 교양욕(敎養慾)이 이제는 즐겁기만 하오.

오기처럼 줄라만 매던 낡은 띠를 이제는 잘 개어 백선에게 물려줍시다.

이제 당신이 하수고대하던 썸컨드 윈드의 초임에 다른 것만 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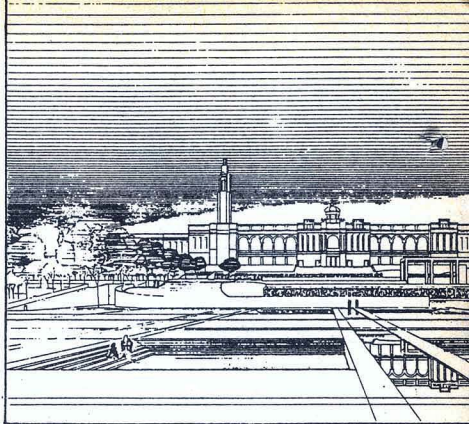
이제 그만 감상일랑 떨쳐버리고 몇가지 기행(記行)을 전하겠소.

개막식이 열린 「몬트후이스·스타디움」은 원래 1929년에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건설한 것이나오.

지난 1982년에 이번 올림픽 준비를 위해 창설된 올림픽국(局)에서 「몬트후이스」 기슭의 이 낡은 「스타디움」을 개수하는 것을 위주로 「올림픽·링」의 설계를 8개팀에다 의뢰했다오.

그 중에서 「페데리코 쾰레아」와 「알폰소 밀라」팀의 제안이 채택되었오.

그들은 「올림픽 링」안의 「메인·스타디움」을 1929년 당시에 건축한 전면의 상정탑 등을 살리되 관중석과 귀빈석을 전면 보수하고 「스포츠·팔리스」(다목적 실내체육관)를 신축하며 주변 환경을 올림픽제전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아름답고 실용적인 설계로 당선되었소.



몬트후이스 올림픽 스타디움과 스포츠팔리스

우리 태권도 경기는 바로 신축한 「스포츠 팔리스」에서 치루게 된다오.

실내체육관이라든 관중석은 고정석 만오천, 이동석 육천, 귀빈석 1,850석인 대형체육관이다오. 벌써 표는 매진되었다오.

그리고 「메인·스타디움」인 「몬트후이스」 경기장은 일반 관중석 육만, 귀빈석, 5,400석인데 아마도 개막식날 팔만명 이상이 입장한 것으로 아오.

아름든 이 「몬트후이스」 「올림픽 링」안에서는 어디에서나 지중해의 물어날 것 같은 색 질은 바다와 작렬하는 태양이 아름답게 전망된다오.

사실 나는 침단산업에서는 우리보다 뒤떨어진 스페인의 올림픽 준비가 우리만 못할 것으로 지레 짐작했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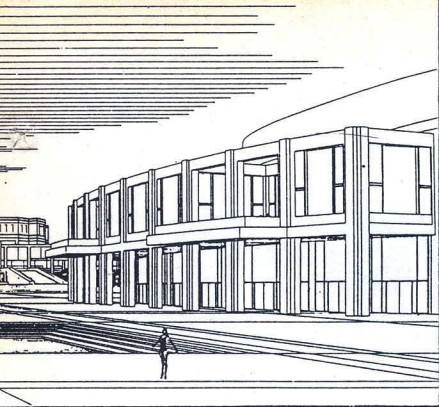
그렇지만 막상 와서 보니 이들의 준비과정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또 대단히 현실적이었던 것으로 알게되었소.

왜냐면 이 「올림픽 링」의 개발계획이 이미 사회체육의 장기계획이 감안되어서 스포츠학교, 체육연구소, 경기 단체, 「메디칼 센터」, 「연구소」등으로 활용되도록 10년전인 설계단계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우리가 없는 살림에 올림픽 준비에 국민 전체적인 체육 복지 계획을 살필 경황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아뿔든 부러운 생각이었다오.

계다가 이미 60여년전에 지은 스타디움의 기념비적인 역사성을 살리면서 재정부담을 절감하려는 합리성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소.

아마도 당신은 나의 이 「스포츠」나 태권도에 관한 짐작이 병적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소. 곁에 있었으면 보나



(전면이 메인·스타디움, 오른쪽이 태권도경기가 펼쳐질 다목적 실내체육관(스포츠 뮐리스))

마나 성당의 벽화나 「스테인드 글라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지

아직 태권도 경기 일정까지는 닷새 쯤 여유가 있으니 박물관에 가서 당신 선물이나 몇 점 고르겠소.

피카소의 추상화엽서가 좋겠소? 아니면 「동기호태」의 목조각이 좋겠소?

나중에 시간이 나면 안익태 선생의 생전에 거쳐하던 집에 찾아갈려고 하오.

귀국하면 한국 환상곡을 들으며 내 당신에게 안선생의 유품과 우리 입장식에서의 느낌에 대해 질실한 이야기를 해주겠소.

하영돈 이 카르타고의 식민도시는 이제 태권도의 식민도시로 새출발하는 느낌이오.

호텔에서는 정기자(記者)가 나를 태권도 사범이라고 떠벌려서 주방장의 선물이라며 배추김치를 담그어 내놓았지 뭐요.

.....후략

(鳥瞰圖) II. 無題(무제)

옛날에 옛적에 사범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사범님은 말했다.

“태권도는 무도(武道)다”

그리고는 꿏어 앉히고 온종일 신화(神話)를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하품이 나오면서 즐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도 사범님은 단군왕검으로부터 올림픽에 이르기 까지 시대를 넘나들며 오직 태권도말씀만 계속했다.

어언 아이들은 꿈을 꾸고 잠꼬대도 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신화는 멈추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났다.

“차렷, 사범님께 경례!”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물었다.

“태권도 재미있지?” — “응, 재미있어!” —

집에서 엄마들이 물었다.

“오늘 뭘 배웠니? 한번 해봐라”

아이들은 꿏어 앉아 즐기 시작했다.

엄마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아이들이 결코 보일 수 없었다.

엄마들은 아이들의 꿈에서 현란한 시조신(始祖神)의 강림을 결코 볼 수 없는 법이다.

아이들은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즐기만 했다.

사범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만 하셨다.

한참 지나자 아이들은 사범님만 보아도 잠들어버렸다.

항상 꿈 속에서는 도복과 비슷하게 꾸며입은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보듬어 안아 주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아무 것도 배우지 않는다고 사범님을 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범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석달 열흘이 지나자 아이들은 사범님의 말씀을 모두 외었다.

모두가 자당한 말씀이었다.

아이들은 백일만에 모두 잠을 깨었다.

그리고 쭉쭉 커나갔다.

아이들이 모두 파랑 띠를 땄을 때에는 엄마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엄마들이 즐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범님은 항상 시퍼렇게 눈뜬이들을 잠재우는 그런 분이였다.

하루는 머리는 금빛이고 눈은 파란 키 큰이가 사범님을 만나고 갔다.

팔씨름을 하자고 찾아 왔단다.

아이들은 꿈 속에서 놀아주던 할아버지들의 신력(神力)을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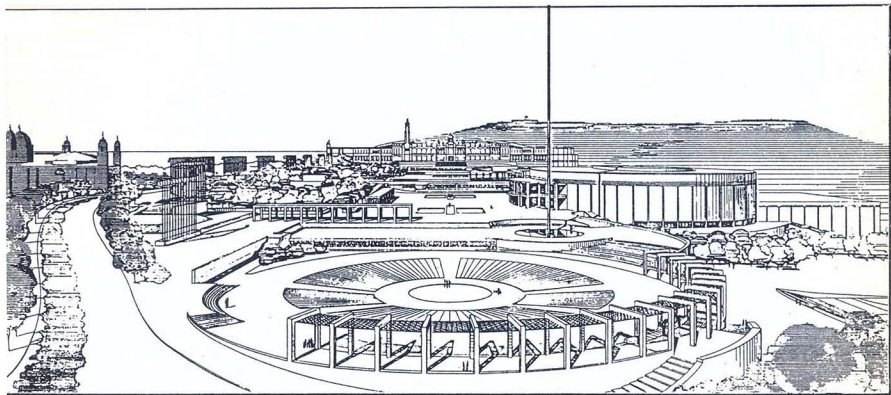
결코 사범님은 아무에게도 지지않을 거라고 아이들은 믿었다.

사범님은 아이들의 꿈을 무참히 깨뜨렸다.

사범님은 졌다.

아이들은 사범님의 패배를 증오했다.

하여 사범님 대신 눈 파랑고 키 큰이를 줄라 팔씨름



올림픽 링의 설계도 (오른쪽 뒷편이 몬트후이스 산, 왼쪽이 지중해)

을 배웠다.

더이상 아이들은 줄지 않았다.

감은 눈으로는 팔씨름을 이길 수 없었다.

사범님은 외톨이가 되었다.

어느새 팔씨름에 자신이 생긴 아이들은 아무에게나 팔씨름을 하자고 졸라댔다.

이길 때마다 아이들이 신이 났다.

팔씨름이 재미있게 되자 아이들은 사범님을 보아도 꿈꾸지 않게 되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사범님은 그저 싱긋이 웃기만 했다.

여름이 왔다.

아이들은 파랑 눈에 키 큰이의 팔뚝에 난 노란 털을 보자 겁이 덜컥 났다.

아이들은 다시 사범님에게 물려왔다.

사범님은 또다시 "옛날 옛적에 ~"하면서 단군왕검부터 올림픽까지 아이들을 잠 속으로 안내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꿈을 되찾은 것에 안심했다.

아이들이 꿈꾸며 가꾸는 태권도는 사범님이 세상에 바치는 현화였다.

에필로그(Epilogue)

이 글은 사실적 묘사를 위해서도 1992년에나 쓸 터였다.

5년이나 조산(早産)인 것은 필자의 몸가짐이 귀중한 태권도 사랑을 태중(胎中)에 계속 보듬기에는 조신하지 못해서이다.

다만 예, 아니오로 점멸하는 콤퓨터 소자(素子)의 냉엄한 이진법(二進法) 논리가 펜촉의 침예한 감성보다

우선한다는 의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느끼는 중이었다.

예언(豫言)이나 예측은 바벨탑을 쌓던 어리석은 인간이 신의 영역에 접근하려는 불경죄에 포함될지도 모르겠다.

대저 사람이 신탁(信託)을 수임할 때는 성인(聖人)들조차도 초자아(超自我)의 시련 후에야 가능할 터였다.

하지만 햇수로 6년간이나 귀중한 지면을 할애해주신 계간 태권도예의 애착을 가상하게 여겨서라도 감히 무딘 펜끝을 5년 후의 태권도상으로 모아보려고 했을 뿐이다.

1992년을 그린 것은 그저 짝사랑 하소연으로 가법계 흠어볼 일이다.

혹여 물지각할 만큼 기억력이 날카로운 독자(讀者)가 계시다면 5년 후에 한번쯤 기억을 되살려 1987년 여름에 읽었던 실없는 잡문(雜文)을 뒤적여 봄직도 하겠다.

개중에 맞아 떨어지는 얘기가 있으면 그건 작자의 상상력이 그려놓은 우연의 일치라고 「추임·검」 뺄트시 하여도 무방하다.

아름은 "리현옥"으로 대명사된 사범의 「세컨드 윈드」는 조산한 지진아인 마지막 장(章)에 그려진 것으로 마감된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저 허물벗듯 갈아입는 도복자락에 항상 감도는 또 하나의 사점(死點)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다.

우리의 옷차림이 조금 세련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 속까지도 환해지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음이 아닌

가?

이제 곧, 치장된 외양에 걸맞는 우리의 내면세계에 대한 갈증이 태권도의 뿌리에 대한 부하(負荷)로 집지어 지리라.

그것은 곧 리현옥과 같은 사범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새로운 사점으로 우리 앞에 설 것이다.

췌컨드 윈드는 그 후의 안락으로 닥아서리라 보겠다.

아롱든, 재미없는 글, 중단해서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다.

재회를 약속하는 것은 늘상 있는 진부한 변명이다.

하지만 새로운 만남에서는 면(面)과 질(質)을 달리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면서 펜을 거둔다.

5년여에 걸친 독자와 편집진의 격려, 질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새로 연재되는 연작소설

師範佐 — 사범님 —

태권도 사범 출신작가 金健中 作



■ 작가약력

충북 음성태생. 월간문학 신인상에 소설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 주요작품으로 『방패연』, 『두번 높이차기』, 『4월 감기』, 『휴전』등이 있고, 저서는 장편 『모래성을 쌓는 아픔』과 월간문학 당선작품집 『출발소리』가 있음. 제 1회 성남문학상 수상. 현재 대호문체육관장(7단)으로 후진육성과 소설을 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 협회 회원. 『소설과 비평』등인.

새로 연재되는 연작소설은 현재 일선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작가활동을 하고 있는 대호문 체육관장 김건중(7단) 사범이 집필하기로 했다.

김사범은 15년동안 일선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우리 태권도계의 중진으로 그동안 꾸준히 후진육성과 작품활동을 겸한 사람이다.

지난해 문학상 수상 이후 왕성한 창작 활동으로 금년들어 동인지, 월간문학, 한국문학, 독서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김사범은 “문학성을 획득한 그의 소설은 소외된 삶을 역사의식에 리얼하게 조명하는 작가”라는 평을 들으며 소설집필에 열중하고 있다.

금번에 연작으로 연재하려는 『김사범』은 그의 말대로 우리 태권도의 진솔한 이야기를 리얼하게 그려낼 것으로 믿는다. 특히 재치있고 깔끔한 필치로 써나갈 그의 작품에 기대를 걸어본다.

독자 페이지

日記를 쓰며

기게 나사처럼 빈 틈 없는 시간속에
하루를 마감하는
내生涯의 작은記事

가슴의
북판에 쌓인
언어를
챙기고 있다.

깊은 눈에 빠져
허덕이던 노래이며

빠곡한 공상도 엮어 編輯한 하루여

아픔도
새김질 하면
沙金처럼 반짝이리.

안 의 선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794번지

내 자신이 곧 한국 상징

고국을 떠나온지 9년
이제 겨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동안 파란만장한 세월이었지만 태권도 정신에 입각
하여 열심히 살아갔다는 자세를 잊지 않았다.
나는 서독의 오스나부르크에 본관을 두고 3군데 학교에
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엔 꾸아켄부룩(Quakenburuck)에서
처음으로 태권도 시범을 보였는데 매우 반응이 좋았다.
그날 받은 입장료는 꾸아켄부룩 불구자 체육회장에게
전달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범들은 언제나 참다운 무도정신
으로 나 자신이 외국인들에게 곧 한국을 상징한다는 생
각으로 생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독에서 윤광중

YOON KWANG JOONG
Goethering 15 (TAE KWONDO SCHULE)
4500 OSANbruck
W/Germany

공 트

이 삼 인 강원도 춘천시
사우동 715-63

두 꼬마가 어느집 초인종을 누르려하고 있었다. 하지
만 키가 너무 작아서 누를 수 없었다. 뛰어도 되질 않
았다. 지나가던 신사가 보기에 두 꼬마가 무척 안스러
워 보였다. 그래서 신사가 다가가서 초인종을 대신 눌
러 주었다.

그때 꼬마들이 신사에게 말하길
꼬마 : 아저씨, 빨리 도망쳐요.
신사 : 왜,
꼬마 : 주인 아주머니께서 장난한다고 꾸중하실
거예요.
(다른꼬마에게) 우리 먼저 도망가자.
신사 : ???



▲ 김운용 세계연맹 총재가 미국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큰 미국태권도 연맹의 김일권 (오하이오주, 오른쪽) 김일희 (펜실바니아주, 왼쪽), 사범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 5월 4일 국기원에서 거행된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기술심의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운용 회장이 김인석 국기원 지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5월 14일 제 1 종합청사 19층에서 거행된 '86 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에서 태권도인 3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87년도
전국춘계종별
선수권대회
3.16~21,
국기원



▲ 신인선수들의 등용문인 이번 대회에는
1천 4백 50명이 출전.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 여성심판원이
정확한 판정은 물론
부드러운 분위기를 돋구는 가운데
중등부 경량급의 경기는
아기자기한 맛을 자아냈다.



▲ 3 체급을 석권한 동성고의 사령탑
김세혁 코치의 표정
(선수가 코치 마음처럼 움직여 주질 않았나 ... ?)



▲ 고등부 선수들의 실력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어
태권도의 내일을 밝게 해주었다. (고등부 우승자들)

1987년도 국가대표선수 1차선발대회

4. 1~3,
국기원

▶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출전을 위해 선수들은
닦아온 기량을 혼신을
다해 펼쳤다.



▲ 태권도의 간판 스타였던 정국현 (지하철공사) 선수가
연승га도에 돌입 재기전에 성공.



▲ 경기를 마치고 코치석에 온 정국현 선수를
맞이하는 김영희 (서울 지하철 공사) 코치의
모습에서 승리를 읽을 수 있었다.



◀ 이번대회에서는
핀급의 윤희준 (신탄진고),
플라이급 강창모 (동성고),
페더급 윤정욱 (동성고) 선수 등
고교선수들이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조로(早老) 하는 태권도
선수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정국현,
고영철 선수의 재기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1987년도
국가대표선수
최종선발대회

4.9~10,
국기원



▲ 오는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 8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영예의 국가대표 선수들.



▲ 국가대표선수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이계행(조선대학원) 선수.



▲ 이종선, 김영주, 권태호 선수를 차례로 물리치고 임성욱 선수에게 핀급패권이 결정되는 순간.



◀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명언을 가름이라도 하듯 맞수의 대결은 흥미로웠다. 신배인 국가대표 박봉권 선수의 공격을 피하며 역습하는 양대승 선수(한체대).

1987년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4.21~22,

국기원



▲ 밴텀급의 패권을 가리는 박선영(경희대) 선수와 박현숙(고양중고) 선수의 치열한 공방전



▲ 다양한 기술로 대량 득점을 올리며 핀급 우승을 차지한 원선진(수성여중 1년) 선수는 고교 언니를 모두 물리치며 이번 대회에서 화제의 꽃이 되었다.



▲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던 임신자 선수가 대학졸업후 코치로 등장.



▲ 여성 심판원의 등장은 여성태권도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리라.
(양인옥, 서춘희, 박정옥 심판)



◀ 우수한 기량을 펼치며
우승을 차지한 영광의 얼굴들.
(임상자 명단 32 페이지)

1987년도
여자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
5.8, 국기원



▲ 각체급의 여왕들
이들은 오는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 1회 세계 여자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 정확하고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며 열전을 벌이는
여성태권도 선수들.



▶ 84년부터 헤비급 챔피언 자리를
지켜온 장운정 선수가 올해도
여왕의 자리를 지켰다.

1987년도 월드컵 5.15~17



◀ 김운용 회장은
임형연 단장에게
단기를 전달하며
'88 서울올림픽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중주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줄것을 당부했다.



▲ 각대륙 연맹에서 선발된 강호 16개국의
열전 3일의 서막이 올랐다. (개회식 모습)



▲ 헨스 세계연맹 부총재가
윤순철 선수에게 시상하고 있다.



◀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영예를 안은 이종선 선수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위 요르단선수,
3위 핀란드 이탈리아 선수.

태권도 대회

— 핀란드 헬싱키 —

▶ 불란서 파리에 소재한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망중한 (忙中閑) 을 즐기는
대표선수단.



▲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은 위위를 점하고 있음이 확인 됐으나
중량급에서의 과제는 여전히 ...



▲ 최약 체급인 헤비급 노신 선수에게
감독(송봉섭), 코치(박수복)가 합세
작전을 짜고 있다.



◀ 종합우승을 하고 개선한
대표선수단. (김포공항에서)

제 14 회
중·고
태권도연맹
회장기대회
4.27~5.2
국기원



▲ '86년도 여중부 단체 우승팀인 상인천여중이 황호순 회장에게 우승기를 반납하고 있다.



▲ 박주호 (사진), 조현길 실행이사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는 엄윤규 문화 부회장.



▲ 여고단체 우승팀인 인천체전 박진경 선수에게 우승컵을 전달하는 백은희 자문위원.



▲ 개막식 행사에서 펼쳐진 성암여상 고적대 퍼레이드는 긴장된 선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 고등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성동고 선수들과 중고연맹 임원들.

제 14 회
전국 대학
개인선수권 대회
5.30~31,
국기원



▲ 김한주 대학연맹회장이 개회식에서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것을 다짐하는 대표선수의 선서를 받고 있다.



▲ 여자부 경기는 내려찍기와 돌려찍기등의 다양한 기술발휘로 박진감 넘친 경기를 펼쳐 보였다.



▲ 대학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큰 이영기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김한주 대학연맹 회장.



▶ 각종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대학강자들이 편찬 남자부 A조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영광의 얼굴들과 대학연맹을 이끄는 임원들.

제 8 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

5.16~17, 국기원



◀ 국민학교 연맹
서영준 회장의
대회사.



▲ 질서 정연한 가운데 진행된 개막식.



▶ 어린이 태권도
한국대표 시범단
(미동국교)의 태권도
시범은 개막식 행사를
빛내 주었다.



◀ 단체 우승을 차지한 광희국교 팀에게
우승기를 수여하는 서영준 회장.



▲ 혼신의 힘을 다하여 태권왕에 도전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 1학년 태권도 어린이로서 품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박기춘(서릉국교) 어린이.



◀ 임상자에게 시상하는 대한태권도협회 황춘성 전무이사.

▶ 태권도 내일의 꿈나무들이 시상대에서 임상의 영예를 한껏 과시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내일의 국가대표가 탄생되리라 …….





▲ 소년체전 개최에 공로가 지대한 경남협회 이대규 회장과 김선규 전무이사에게 감사패와 표창패를 전달하는 본회 황춘성 전무이사.
(사진 김선규 전무이사)

제 16 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5. 22~24.

경남 울산시 현대중공업 체육관



▶ 웰터급 결승전에서
경남의 박기채 선수가 뒤돌려 차기로
부산 정진태 선수를 공격하는등 분전했으나
부산에 패하여 2위에 머물고 말았다.

▼ 각시도를 대표해 필승의 각오로 분전해 영광의 우승을 차지한 각체급 우승자들.



▲ 울산시내의 중학생들이
경기장 분위기를 활기있게



▶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집행부임원과 14개 시도협회 임원들.



▲ 서울 종합우승, 전남 2 위, 경남이 3 위를 차지했다.



▲ 회비의 순간./ 승자에게 칭찬을, 패자에게는 격려를



각시도팀들을 나누어 응원하며
돌구었다. (사진 현대여중 응원단)



▶ 본대회 개최지로 대회운영에 수고한 경남협회 임원과 선수들.